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오 혜 진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지도교수 배 은 경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오 혜 진

오혜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위 원 장	<u>추 지 현 (인)</u>
부 위 원 장	<u>김 소 라 (인)</u>
위 원	<u>배 은 경 (인)</u>

국문초록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 페미니즘 대중화의 주체라 일컬어지는 20대의 페미니스트들은 놀라움과 상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은 ‘메갈’이나 ‘영영페미’, ‘요즘 페미’로 통칭되곤 하는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들을 내적 동질성을 가진 어떤 단일한 실체로 고정화하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0대 여성들의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며,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호명하는 여성들이 모든 이슈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지도 않다. 본 논문은 디지털 공간과 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페미니스트로 살고 있는 20대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되기 경험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고, 이들 각자가 만 들어가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가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살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불법촬영물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과 살면서 경험한 성차별을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된 계기로 꼽는다. 이들은 자신이 언제든 젠더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자임을 자각했을 뿐 아니라 이슈가 된 사건들을 둘러싼 사회와 남성들의 반응을 보고 집단으로서의 여성이라는 범주에 강력한 동일시를 하게 된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제대로 경청되거나 존중되지 않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공고한 남성문화라는 점을 알게 된 이들은 남성과 사회를 불신하고 여성 연대에 대한 희망과 절박함을 구성한다. 페미니즘의 언어를 획득한 이들은 자신의 경험들을 재/해석하면서 페미니즘을 자기 삶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언어이자,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연대로 의미화 한다. ‘남성혐오’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를 문제화하는 안티페미니즘이 디지털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거나 페미니스트 실천에 동참하는데 제약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페미니즘이 대중화되고 페미니스트들이 수적으로 많아졌다는 감각은 페미니스트 연결감을 고양하고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토양이 된다.

다음으로 페미니즘의 렌즈를 통해 일상적인 관계와 관행들을 새롭게 보고 조직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부상하는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페미니스트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친밀한 관계는 성찰과 갈등, 협상과 투쟁의 주요 장이 되고 있다. 가족 내 경험을 통해 가족을 사회의 지배적인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장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가족 내 성별 노동 분업과 아버지의 가부장적 태도, 성별화된 규율과 통제로 드러나는 딸의 지위에 문제제기하며 페미니스트 딸로서 투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인 구조 내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딸을 규율하고 억압하는 존재이기도 한 어머니의 문제적 지위가 드러난다. 불평등한 젠더 규범을 거부하는 페미니스트 딸과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적 기준을 딸에게 교육하고 ‘정상성’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훈육하는 어머니 사이에 복잡한 균열이 감지된다. 스토킹, 임신과 낙태, 불법촬영 문제 등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성애 연애 관계 내 섹슈얼리티는 욕망이나 탐색의 영역이기보다는 위험과 안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성애 연애 각본에 따른 여성성 수행과 폭력과 사랑의 경계가 모호한 남성중심적 연애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연애 관계에서의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고, 이성인 연인과 각개전투하면서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협상해나가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페미니즘‘들’을 접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페미니즘을 구성해가는 20대 페미니스트들이 느끼는 혼란과 갈등에 주목했다. 이들은 확고하고 완결된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여러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고민과 실천들을 통해 페미니스트가 되어 가는 존재들이다. 디지털 공간과 현실을 막론하고 안티페미니즘을 맞닥뜨리는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들 내부의 차이 또한 지속적으로 마주한다. 여전히 공고한 성차별의 현실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사회와 남성에 대한 불신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남성을 설득하면서 함께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은 다르게 나타난다.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은 피해자라는 점은 공유된 인식이지만, 여성들 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교차성은 체화하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유통되는 트랜스젠더의 젠더수행에 대한 비판에 일부 공감하는 연구 참여자가 있었지만, 그 비판이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본질주의에 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페미니즘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페미니즘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심하게 대립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이들은 힘 있는 여성 연대의 토대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면서 페미니즘 내부의 차이를 애써 외면하고 공통성을 회구하는 태도를 구성하기도 한다. 안티페미니즘은

‘한국의 페미니즘’은 ‘변질된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의 고정된 ‘올바른 페미니즘’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페미니즘을 물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안티페미니즘의 안티테제로서 자신의 페미니즘을 구성해가는 개별 페미니스트 주체들도 이런 식의 물화된 인식에서 자유롭지 않다. 페미니즘은 하나였던 적이 없으며 언제나 경합하면서 재/구성되고 갱신되는 페미니즘들만이 있어왔다는 점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간의 페미니즘 담론들이 발휘하는 효과들 속에서 갈등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이에 대응할 논리와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과 부담이 페미니스트 개별 주체들에게 부과되기도 하고, 페미니즘을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념형의 페미니즘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죄책감을 보이거나 다른 페미니스트를 비난하는 등 페미니스트 ‘자격’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가장 올바른 페미니즘도, 가장 훌륭한 페미니스트 같은 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페미니즘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페미니스트로 사는 길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페미니즘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이 서로 간의 개입(engagement)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상기하는 것이다. 논쟁과 토론을 비난으로 인식하거나 회피하고, 페미니즘을 규범화하는 태도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되,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의 문법과 현재적 지형이 가지는 영향력에서 거리 두고 상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가 요구된다.

혼란과 균열 속에서도 페미니즘이 사회와 젠더 관계를 변화시키는 변혁적 이론이자 실천이라고 믿는 연구 참여자들은 장을 막론하고 자신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각종 페미니스트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은 개인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 변화의 책임을 개별 여성의 몫으로 두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게 만들거나, 중국에는 개인을 비난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성차별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요한 페미니스트 실천으로 의미화 하는 것은 사회와 남성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성들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의 변화가 사회에 전시되고, 주변의 여성들에게 보여짐으로써 다른 여성들에게 지지와 변화, 해방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자신의 페미니스트 실천이 다른 여성들에게 롤모델이자 자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본 논문은 20대의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고정되고 완결된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여러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고민과 실천들을 통해 페미니스트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드러내고, 이들에게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범주화할 수 없는 차이들과 동시에 페미니스트 연대에 대한 열망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0대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페미니즘을 구성하고 갱신해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혼란과 곤경을 직시하면서 그것이 대부분 물화된 페미니즘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주요어: 페미니즘들, 페미니스트 되기, 20대 여성, 여성 연대, 여성 범주, 페미니스트 실천

학 번: 2012-20190

<목 차>

국문초록	i
1.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의 검토	5
3) 연구 방법	10
(1) 현상학적 연구	10
(2) 심층면접 과정	12
4) 논문의 구성	14
2. 페미니스트 되기: “빨간악”을 먹은 여자들	15
1) 여자임을 자각하기	15
(1) 충격과 분노로 다가온 사건들	15
(2) 페미니즘의 언어로 내 경험을 재/해석하기	22
2) 페미니스트라는 이름표	27
(1) ‘남성혐오’라는 딱지와 부정적 인식에 대한 두려움	27
(2) 페미니스트로서 또래 집단에서 관계 맺기	30
(3) 체감하는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불균질한 “시대의 분위기”	35
3. 친밀한 관계에서 페미니스트로 살기	43
1) 가부장적 가족 경험과 페미니스트 딸	43
(1) 어머니의 이중노동 부담과 가부장적 아버지	44

(2)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는 가족	46
(3)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49
(4) 가부장을 상대로 분투하는 페미니스트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	52
2) 이성애 연애와 섹슈얼리티	60
(1) 위험으로 인식되는 섹슈얼리티와 안전한 연애	60
(2) ‘한남’과 연애하는 페미니스트	64
 4. 페미니즘‘들’ 속에서 ‘나의 페미니즘’ 만들기	69
1) 페미니즘‘들’	69
(1) 남성애에 대한 불신과 변화에 관한 전망	70
(2) ‘여성’ 범주를 둘러싼 논란과 페미니즘 ‘진영’ 구분	77
(3) 하나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즘들	80
2) 페미니스트 실천과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의 의미	82
(1) 디지털 공간이 매개하는 실천들과 규범이 된 페미니즘	83
(2) 탈코르셋 운동과 페미니스트 ‘자격’	86
(3) 페미니스트 실천의 의미	92
 5. 결론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3

<표 차 례>

[표 1]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12
------------------------	----

1. 서론

1) 문제제기

2018년의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20대 여성 10명 중 5명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일련의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의 20대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 정체성이 보편화·대중화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¹⁾ ‘영영페미니스트’라 불리는 젊은 여성들에 의해 한국 사회에 새로운 페미니즘이 등장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 젊은 여성들이 보여주는 페미니즘이란 무엇일까? 20대 여성의 절반이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할 때, 과연 이들에게 자신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단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젠더 불평등과 여성 억압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규정되고 갱신되는 것이라면, 2010년대 말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가?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상용화된 것은 대략 9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한다. 이 시기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영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대학가와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였다. 기존의 위계질서가 통용되지 않고 지역, 계급, 젠더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이자 새로운 정체성을 실험해볼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여겨졌던 당시의 온라인 공간에도 페미니스트에 대한 공격은 있었다. 특히 1999년 군가산점제 폐지를 시작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와 성평등 관련 정책에 대한 반감과 공격이 거세어졌고 온라인에서는 이런 공세가 일반 여성 전체에까지 확대되었다(윤보라, 2014; 김수진, 2016; 권김현영, 2017; 황정미, 2017). 대학에서도 학생사회가 붕괴하면서 여성주의 운동 역시 침체되었다. 안티페미니즘의 통념 속에서 ‘페미니스트’로 규정된다는 것이 공동체에서의 고립과 배제를 감수해야 함을 의미하던 상황(이다혜, 2012)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대 여성 2명 중 1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생각”, 『KWDI Brief』, 2018.11.15

만..’ 증후군이라고 얘기될 만큼 2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거리두기를 하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에 가까운 20대 여성들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토록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호명하게 된 것일까?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5), ‘페미니즘 열풍’(김주희, 2017), ‘페미니즘의 재부상’(김보명, 2018b), ‘페미니즘 대중화’(정희진, 2018)라는 명명들이 반증하듯이,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은 한국사회의 대중적 화두가 되었다. 페미니즘이 “평범한 여성들의 자기규정의 일부”²⁾가 된 현상과 페미니즘 대중화³⁾를 주도한다고 여겨지는 이 2-30대의 ‘평범한 젊은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담론과 실천에 대한 분석과 평가들이 이어졌고, 이들은 놀라움과 상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영영 페미니스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름들⁴⁾로 불리는 이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은 2015년 초 ‘페미니스트가 싫어서’ ISIS행을 감행한 김군과 이를 두고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하다던 김태훈의 칼럼이 촉발한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는 온라인 페미니스트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같은 해 메르스 갤러리에서 벌어진 미러링⁵⁾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4050세대 여성들은

2) 김현미 연세대 교수가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6 여성회의 강연에서 한 말이다.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새물결,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여성신문』, 2016.9.22.)

3) 강예원(2018:2)은 사회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이 대중적 관심과 주목자원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각각의 입장을 가진 개개인들이 등장하면서 페미니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페미니즘에 주목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페미니즘 대중화를 의미화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도 2015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슈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학자나 운동가 등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페미니스트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 페미니즘이 널리 퍼져 익숙해진 현 상황을 페미니즘 대중화라는 말로 포착한다.

4) 2015년 메갈리아와 미러링 전략의 등장 이후 이들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을 명명하는 이름 표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한국사회에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주며 가장 뜨거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 ‘메갈리안(메갈)’이라는 호칭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자주 사용되는 ‘영영 페미니스트’라는 명칭은 2016년 여성회의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활동했던 ‘영 페미니스트’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 담론과 실천의 주요 거점이자,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 대중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되는 디지털 미디어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넷 페미니스트’, ‘디지털 페미니스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5년 메르스 갤러리의 미러링과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등 사회적 전환을 가져온 사건을 통해 집합적 정체성을 구성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들을 세대로 묶는 ‘메갈리안 세대’, ‘강남역 세대’라는 명칭도 자주 쓰이고 있다.

5) 중동기호흡증후군, 일명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이 한국 사회를 강타한 2015년 5월 디시 인사이드에 개설된 메르스 갤러리에서 홍콩에 체류 중이던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인 20대 여성 두 명이 격리 조치를 거부했다는 언론의 오보를 본 일군의 인터넷 유저들이 그동안

미처 생각해내지도, 입에 담지도, 글로 적을 엄두도 못 낼 언어들”(김수진, 2016:173)을 사용하며 “남자들을 신나게 패”(윤보라, 2017:13)던 이들은 “새롭고”, “낯선”, “전례 없던”, “갑자기 등장한” 페미니스트들로 평가되기도 하였다(김경연, 2017; 김리나, 2017). 오랫동안 디지털 공간의 일상화된 문화로 자리 잡아 온 여성혐오 표현을 성별 주체를 뒤바꿔 패러디한 미러링의 언어는 ‘모두가 힘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살기 편한 혜택 받은 집단’으로 표상되며 여성 혐오의 주요 대상으로 공격받아온 2-30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열렬한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류진희, 2015; 김수진, 2016; 박무늬, 2016; 배상미, 2016; 김리나, 2017; 윤보라, 2017).

일각에서는 “메갈과 ‘위마드’”를 ‘여자 일베’로 프레임하는 담론을 통해 젊은 페미니스트들을 혐오의 대상에서 혐오를 생산하는 주체로, ‘남성혐오’를 내면화한 문제 집단으로 치부하고 있다. ‘한국의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로 ‘변질된 페미니즘’이라는 주장을 통해 ‘진짜 페미니즘’과 ‘올바른 페미니즘’이 있다고 암시하고 페미니즘을 물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김수아, 2018; 배은경, 2019). 그러나 페미니즘은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 사상과 역사, 실천은 전혀 통합된 것이 아니며, 사실상 끊임없이 서로 논쟁해온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재규정되고 갱신되는 “여러 사상들과 현실의 여러 행동들로 구성된 다양하고 복수적인 조각들의 묶음”이다(freedman, 2002).

해오던 대로 여성혐오 발화들을 쏟아내었다. 무개념에 이기적인 한국 여성이라는 비난을 시작으로 여행비용을 누가 냈는지, 여행 목적이 명품 쇼핑인지 원정 성매매인지 등을 비롯해 갖은 여성혐오 텍스트들이 생산되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정확히 언제 시작했는지에 관해서는 다소 의견이 분분하나 기존의 여성혐오의 언어를 주어를 바꿔 그대로 돌려주면서 패러디한 미러링 전략은 김치남, 한남충, 씹치남 등의 미러링 용어를 탄생시켰으며, 이들의 미러링 실천은 각종 논란 속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3개월 후인 2015년 8월 여성혐오를 혐오하는 메르스 갤러리 계승을 표방하는 ‘메갈리아’라는 개방형 독립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이후 불법 포르노 웹사이트인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한 메갈리아 사이트는 내부 논쟁과 갈등 끝에 ‘위마드 임시대피소(현 위마드)’와 ‘레디즘’, 페이스북 페이지 ‘메갈리아4’, ‘메르스 갤러리 저장소’ 등 여러 플랫폼 내 커뮤니티로 갈라지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2017년 운영이 중단되었다.

- 6) 메갈리아 사이트 내부 논쟁을 거치면서 분화되어 나온 ‘위마드’는 2016년 1월 ‘위마드 임시대피소’라는 이름으로 다음 카페에 개설되었다. 2017년 2월 독자적인 사이트가 개설되었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형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다. ‘위마드(WOMAD)’라는 명칭은 “Woman(여성)”과 ‘Nomad(유목민)’의 합성어로 “갈 곳 없는”, “떠돌이 신세”의 “유목적 존재”이자 “분노한(mad)” 여성들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가진다(김리나, 2017:59).

‘메갈’로 통칭되곤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디지털 공간과 대중문화, 일상과 제도에 스며들어 있는 성차별들을 ‘여성혐오’로 포착하고 꾸준히 문제제기해왔다. 2018년 총 30만명이 참여했다고 알려진 ‘해화역 시위’⁷⁾에서 드러나듯 디지털 공간에서의 페미니즘 담론은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이슈화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 사안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의 조직화로도 연결되고 있다(김보명, 2018b; 박영민·이나영, 2019). 또한 탈코르셋 운동과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쟁점화를 통해, 자신과 주변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추동하기도 한다. 페미니즘이 대중화되는 과정 속에서 각자가 가진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점 또한 가시화되었다. 페미니즘들로의 분화는 ‘메갈’, ‘위마드’, ‘래디컬 페미니스트’ 등 디지털 공간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페미니스트 주체들을 범주화하고 이들의 페미니스트 실천 양상과 그 의미와 효과, 한계들을 지적하는 연구들로도 이어지고 있다.

“요즘 페미”로 통칭(추지현, 2019)되어버리곤 하는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며,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호명하고 있는 여성들이 모든 이슈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의 ‘영페미니스트’와는 다른 ‘영영페미니스트들’이 등장했다고 보거나, ‘메갈’, ‘위마드’, ‘랜캠’⁸⁾ 등의 이름 붙이기를 통해 현재의 젊은 여성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설치는’⁹⁾ 페미니즘들을 내적 동질성을 가진 어떤 단일한 실체로 고정화하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고 있는 이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에게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무슨

7) 공식 명칭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이다. 2018년 5월 1일 홍익대학교 미대 누드 크로키 수업의 모델인 남성의 사진이 불법으로 촬영되어 위마드에 유포된 사건과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대응이 발단이 되었다. 그간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었던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에서의 경찰 대응과 다르게 범인이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해당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이에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수사당국에 대한 분노로 조직된 시위로 2016년 5월 19일 해화역에서 개최된 1차 시위에 1만 5천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이후 총 6차례의 시위를 진행하였다. 여성단일 의제로 열린 집회에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총 30만명 추산)이 결집하면서 불법촬영물과 이에 대한 사회, 사법당국의 성차별적 인식과 대응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박영민·이나영, 2019 참고).

8) SNS 등에서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9) 방승인 장동민이 Jtbc의 〈마녀사냥〉이라는 방송에서 다른 여성 출연자에게 “설치고, 떠돌고, 말하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모든 걸 갖겠다”고 발언하였고, 페미니스트들이 장동민의 여성혐오 발언을 전유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설치하는 여자들’을 페미니스트 구호로 사용하였다.

의미인지를 꺾진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텍스트와 광장에 결집한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개별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선언과 되기 과정을 탐문하는 작업은 하나이지 않은, 역동적이고 다양한 페미니즘의 속성을 드러내준다. 이 연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 대중화를 이끈 주체로 평가되는 20대 페미니스트들을 새롭다거나 식별과 분류가 가능한 고정되고 단일한 실체로 인식하는 경향에 문제제기하고, 자신이 속한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페미니스트가 되어 가는 20대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되기 경험을 통해 이들 각자가 만들어가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본 논문이 페미니즘이 대중화된 시기에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20대의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페미니즘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015년 이후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대중화되고 있는 현상과 이를 주도해왔다고 평가되는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전개해온 페미니즘 운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많은 연구자들이 페미니즘이 이토록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페미니즘에 열광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조직해가는 이들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이들이 보여주는 페미니즘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했다.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메갈 세대’, ‘강남역 세대’라는 말이 널리 통용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급부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일대 사건인 메갈리아의 미러링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추모시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의 등장을 선언하고 의미화하는 연구들이다. 두 ‘사건’ 모두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공유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성’이라는 정치적 범주를 탄생시키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강력한 페미니즘 운동의 주 배경으로 회자된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추모 시위는 ‘여성됨’이라는 집합적 경험을 공유하고 역차별 담론의 허구성과 사회의 구조적인 성차별을 깨달은 이들이 삶을 정치적으로 재조직하려는 페미니스트들로 출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이나영, 2016; 정용립·이나영, 2018). 메갈리아와 미러링 전략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이른바 ‘메갈리안’들이 별안간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이

들이 경험해 온 일상화된 여성혐오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그 간 디지털 공간에서 축적해온 문화·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펼쳐낸 메갈리아의 '미러링'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들¹⁰⁾을 분석하였다(류진희, 2015; 김수진, 2016; 박무늬, 2016; 배상미, 2016; 양정언, 2016; 장민지, 2016; 조혜영, 2016; 김정연, 2017; 손희정, 2017; 윤보라, 2017; 한우리, 2017).

'여성혐오'라는 개념을 둘러싼 상반된 이해와 반응은 페미니즘 담론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 두 '사건' 모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주어진 사건의 관계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명명(naming) 투쟁을 펼쳐내는 과정이었다고 본다면, 한편에서는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페미니즘이라는 담론이, 다른 한편에서는 '메갈은 여자일배', '한국의 페미니즘'은 '남성혐오'라는 담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이나영, 2016; 윤보라, 2017; 김수아, 2018; 배은경, 2019). 이 두 사건을 경유하며 페미니즘이 많은 여성들에게 지지를 얻고 여성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설치기" 시작하자 안티 페미니즘의 반격(backlash) 또한 거세지면서 치열한 담론 투쟁이 벌어졌다. 현재까지도 안티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운동과 주체 형성에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여성' 범주 구성과 연대의 문제를 둘러싸고 진영 갈등의 형태로 구축되고 있는 페미니즘들로의 분화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들이다(김리나, 2017; 나영, 2017; 이현재, 2017; 고병진, 2018; 김보명, 2018a; 이효민, 2018; 정승화, 2018). 이들 중 일부는 소위 TERF(Trans-Exclusive Radical Feminist)나, '워마드', '래디컬 페미니스트'로 범주화되는 '여성우선'을 주장하는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이 파·가해의 이분법 속에서 '피해자 여성'이라는 단일하고 단순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스스로 저항하고자 했던 성적 억압의 이론적, 실천적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모습들

10) 만연한 여성혐오와 성별 이중규범을 폭로했던 '메갈'이 남긴 유산은 미러링 용어뿐만은 아니다. 메르스 갤러리에서는 거의 모든 젠더 의제들이 거론되었고, 메갈리안들은 독립 사이트를 개설하고 논쟁과 갈등을 겪으며 분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다양한 액티비즘을 기획했다. 최근 들어 가장 뜨거운 주제인 '여성' 범주 구성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 또한 '메갈'이 뿌려놓은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메갈이 남긴 유산의 백미는 '메갈'이 이른바 한국의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됐다는 점(문은미, 2016; 김리나, 2017; 윤보라, 2017)이라 할 수 있다. 윤보라(2017)는 한국 사회가 메갈리아 현상이 던진 젠더 의제들을 진지한 토론과 질문으로 재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거친 미러링의 언어가 일으키는 불편함과 과격함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친 메갈'과 '반 메갈'이라는 단일한 전선이 형성되면서 '메갈'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담론 투쟁이 벌어졌던 맥락과 그 효과를 짚는다. '메갈'이라는 용어가 모든 페미니스트 정치와 정체성을 아우르는 일반명사로 자리 잡으면서 '메갈'을 문제 삼는 것은 곧 '한국의 페미니즘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다.

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차성을 통해 차이와 ‘여성’ 범주, 사회적 연대를 성찰적으로 재사유할 것을 요청한다(나영, 2017; 이현재, 2017; 고병진, 2018; 김보명, 2018a; 이효민, 2018). 정승화(2018)는 이런 연구들이 급진 페미니즘과 퀴어 정치학 간의 진행 중인 갈등을 토론과 논쟁이 아닌 대신 “진영 싸움 형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 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내세우는 급진 페미니즘 대 정치적으로 올바른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프레임”으로 페미니즘을 구분하며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담론장을 본질주의로 명명하면서 도식화된 비판을 하기 보다는, 최근의 급진 페미니즘을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계속해서 새로 갱신되고 있는, 운동 자체가 구성 중인 진행형의 운동”으로 바라보면서, 정치적 주체로서 ‘여성’을 구성해 나가는 담론적 교섭 과정의 맥락과 효과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메갈리안’을 수시로 변화하고 분화되며 이동해가는 다양한 메갈리안들로 포착하는 김리나(2017)는 ‘메갈리아’와 ‘위마드’에서 기획되는 액티비즘의 주체와 전략이 내외부의 페미니스트 검열과 경합하면서 끊임없이 구성 중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문제 집단이라는 외부 검열을 의식해 ‘개념 있고 대단한 일을 하는 페미니스트’로 인정받으려고 내부 검열을 하는 순간 발언의 자유가 축소되고 ‘화제성이라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단일한 페미니스트 운동 주체로 규범화, 본질화 되는 것을 경계한다. 소속감과 자부심을 경계하는 이들에게 검열이 작동하는 ‘메갈’, ‘위마드’, ‘페미니스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도 드러낼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아닌 우리의 계획”이라는 문구를 모토로 삼는 이들은 특정한 액티비즘의 주체라는 고정된 집단 정체성을 경계함으로써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을 정형화하려는 시도에 반발하면서도 운동의 주체로서 ‘여성’이라는 범주를 지속적으로 호출하고 재구성하는 모순적인 과정 속에서 액티비즘을 기획하고 있다. ‘명예남성’으로서의 여성, 트랜스 여성, 남성 성소수자와 관련한 여러 논쟁을 거치면서 ‘여성’ 범주의 불안정성을 역설적으로 가시화시킨 ‘메갈리아’와 ‘위마드’가 생물학적 몸에 근거해 ‘여성임’을 주장하는 모순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김리나의 연구는 ‘메갈리안’이라고 불리는 메갈리안들의 ‘여성’ 정체성과 ‘페미니스트’ 정체성이 고정되고 단일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페미니즘 담론들과의 경합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을 잘 드러내준다.

셋째는 페미니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청년 여성들이 여성운동의 성과와 IMF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의 영향이라는 기반위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특성이 겹쳐진 세대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추동한 배경이 된 이 조건들이 최근의 페미니스트 운동과 접합되면서 나타나는 양상과 효과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다(손희정, 2015; 장민지, 2016; 김보명, 2018b; 강예원, 2019). 김보명(2018b)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자생적 페미니즘”은 한국사회의 젠더지형의 변화로 초래된 청년세대여성들의 이중부담과 삶의 불안정성을 배경으로 등장했으며, 평등에 관한 포스트 페미니즘 환상이 실패한 결과, ‘여성’의 이름으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로운 페미니즘 정치학이 등장했다고 분석한다. ‘여성’의 이름으로 페미니스트적 저항을 조직하지만 “평범하고 규범적인 삶”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현재의 청년세대 여성들의 실천 양식과 지향은 앞선 세대인 ‘영 페미니스트’들의 문화정치학이나 87세대의 시민정치학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여성혐오가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으로 반드시 구조적 변화나 역사적 전환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는 않으며, 비판적 저항을 하는 동시에 저항의 양상이 개별화된 소비자적 실천이나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화적 대결, 여성전용공간으로 전제되는 거리 시위 등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본다. ‘남성’을 설득하거나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우선해 ‘피해자’ 여성들이 가진 역량의 조직과 행사를 통해 주어진 세계 내에서의 힘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 되고 있으며 분리주의 실천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 또한 “더 이상 진보가 가능하거나 임박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강예원(2019)은 온라인을 통해 페미니즘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10대 여성들이 온라인의 ‘래디컬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규범들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어떤’ 페미니스트가 될 것인가에 대한 탐색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이 특정한 ‘개인적인’ 실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여성들과의 연대는 “능력 있는 페미니스트”라는 개인적 성취를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의미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 개인화가 10대 여성들의 페미니즘 정치학을 추동하고 있다고 읽어낸다.

이상 선행연구들은 성차별 경험의 집합적 공유와 저항을 통해 정치적 범주로서 ‘여성’이 등장한 맥락과 범주 구성을 둘러싼 담론적 경합, 그리고 시대 진단과 세대 관

점의 접근이 중심을 이룬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이 대중화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최근 페미니스트들의 실천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2015년의 메르스 갤러리 사건 이후 디지털 공간에서 가시화된 페미니스트들을 범주화하고 이들의 페미니스트 실천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드러내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른바 ‘디지털 페미니즘’의 지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근의 페미니스트들이 세대 단위로 포착되거나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들로 명명되는 경향이 포착된다. ‘영영 페미니스트’, ‘메갈 세대’, ‘강남역 세대’ 혹은 ‘메갈리안’, ‘위마드’, ‘트페미¹¹⁾’라는 이름들을 붙이는 이런 범주화의 작업이 이들의 페미니스트 되기 과정의 역동과 페미니스트들 간의 차이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조선정(2014)은 여성 주체를 세대단위로 구성하고 세대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페미니즘을 단일한 실체로 고정시키고, 페미니즘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비가시화 한다고 지적한다. 출생코호트 내 구성원들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다른 해석을 하는 불연속이 일어나기도 하며, 개인적 수준에서 보면 페미니스트 정체성 형성이란 것이 특정한 시기에 경험한 상징적 사건뿐 아니라 주관적인 계기들, 미시적 상황들과 실천들, 분위기들이 결합하면서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일 수 있다(김선기, 2014). 디지털 공간과 광장의 정치학에 주목된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현실 공간에서의 일상적 체험이 분석으로 들어와야 한다. 한편 메갈리안이나 위마드 등의 커뮤니티나 여초카페, 트위터 등의 SNS에서 펼쳐지는 페미니즘 담론과 실천들은 플랫폼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끊임없는 논쟁과 갈등을 거치면서 구성, 갱신되고 있다(김리나, 2017; 한우리, 2017). 특정한 장에서 현출되는 글과 논리, 규칙과 규범들이 다른 장에서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며, 매개된 삶 공간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형성하는 정체성은 완결적이거나 통합적이기 보다 모순적이고 다층적으로 나타난다(윤명희, 2013; 추지현, 2019). 이에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페미니스트 실천들을 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을 통해 이들의 페미니스트 실천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경험들에 의해 매개되면서 구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강예원, 2018; 박영민 · 이나영, 2019; 추지현, 2019). 추지현(2019)의 연구는 다양한 디지털

11)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를 일컫는 말이다.

플랫폼을 사용하는 2-30대 여성들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페미니즘이 위해에 대한 불안, 소통의 경험, 사회적 관계망과 제도화된 자원의 존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재구성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대중화되고 있는 페미니즘을 내적 동질성을 가진 하나의 단일하거나 고정된 실체로 읽어내고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오히려 대화와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다. 페미니즘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여성들에 의해 말해지고 들려지는 상황 속에서 이 활발한 공론장을 이어나가고 페미니스트 지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당대의 지배적인 담론을 대표주자로 만드는 것도, 논쟁적인 담론을 추적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페미니즘들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오늘의 페미니즘 담론장 안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개별 주체들에게 행위성과 능동성, 성찰성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페미니즘이 대중화된 시대에 디지털 공간과 현실의 생활 세계, 광장을 넘나들며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고 있는 개별 여성들의 체험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고, 이들 각자가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페미니즘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는데,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3) 연구 방법

(1) 현상학적 연구

이 논문은 사람들이 의식으로 경험한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려 하거나 어떠한 전제를 가정하지 않고 직접 기술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장혜경, 2010)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를 방법으로 채택한다. 본 논문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20대 여성들의 생활세계에서의 체험을 풍부하게 기술하는 것을 통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포착하고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앎의 의식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 중시되고, 이 의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인가로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의식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계의 '어떤 특정한' 측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는 뜻으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얇은 고정적이거나 객관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얇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상호 작용, 구성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상학은 우리가 생활세계에서 경험하는 체험들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편견과 선입견을 거둬내고,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괄호치기하면서, 현상과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요청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 어떤 현상에 관하여 우리가 지니고 있던 기존의 생각이나 가설, 이론적 틀이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고민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이근호, 2007).

본 논문은 20대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페미니즘‘들’을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들을 적용하여 진단한다거나, 진행 중인 논쟁에 개입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대신,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에 관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지니고 있던 생각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전제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수많은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호명하게 된 현상을 목도한 연구자가 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페미니즘과 그들이 구성해가는 페미니스트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페미니즘을 만나게 된 계기들은 무엇인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부르는 이들이 일상에서 어떤 경험과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사례 번호	출생 년도	거주형태 (자취경험)	본인생활비 조달방법	연애 경험	주요 사용 플랫폼	오프라인 공동체 활동
1	1996	자취	알바	○	블로그 · 페이스북	-
2	1992	자취	알바	○	인스타	동아리
3	1996	자취	알바	연애중	인스타	-
4	1995	통학(○)	-	연애중	트위터	SNS기반 학내단체
5	1992	통학	알바	×	활용저조 (트위터)	동아리
6	1996	자취	용돈	×	트위터	-
7	1995	자취	용돈	○	페이스북 · 트위터	동아리
8	1997	통학(○)	알바	연애중	트위터 · 에타 · 팬카페	-
9	1998	통학	알바	연애중	에타	-
10	1996	통학	용돈	○	인스타 · 트위터 · 팬 카페 · 여초카페 · 유 튜브	-
11	1996	통학	용돈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 타	-
12	1996	통학	용돈	×	트위터	-
13	1996	자취	용돈	×	페이스북 · 인스타	-
14	1997	통학	용돈 + 알바	연애중	트위터 · 인스타 · 에 타 · 여초카페	동아리 · 세미 나

[표 1]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2) 심층면접 과정

가. 연구참여자의 선정과 모집 결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또는 석사과정생 중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생각하거나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표1). 서울 소재 대학에서 페미니즘과 젠더 관련 강의를 하는 교수자들이 수업

중 만난 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소개시켜주었고, 지인들을 통해 소개를 받기도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를 통해 스노우볼링 방식으로 모집하기도 하였는데, 소개를 부탁할 때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생각하거나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4년제 서울 소재 7개 대학에 재학 중인 총 14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고, 어문계열이 9명, 예술계열이 3명, 이공계열은 2명으로, 사례11부터는 문과생에 편중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이과생을 타겟팅하여 2명의 이공계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2명이 서울 출신이고, 7명은 경기도, 5명은 지방에서 서울로 진학한 학생들이다.

나. 심층면접의 진행과 연구 자료의 수집

심층면접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대부분 연구 참여자당 2회로 진행되었는데 1차 인터뷰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1차 인터뷰를 진행한 후 작성한 녹취록 분석을 바탕으로 2차 인터뷰에서는 좀 더 초점화(focused)된 질문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다만 1차 인터뷰로 구술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따로 2차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3차까지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각 인터뷰는 1회마다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학교나 거주지 근처 카페 등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인터뷰 내용이 녹음되고 녹취되어 연구에 활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된 녹취 자료는 총 25개로 전체 14개 사례 중 7개의 사례를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나머지는 페미니즘 페다고지 연구모임¹²⁾을 통해 수집된 녹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12) 본 논문의 심층면접은 필자가 2019년 1월 페미니즘 페다고지 연구모임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고 합류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페미니즘 페다고지 연구모임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경험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20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있었다. 연구모임에 합류하게 된 필자는 2019년 1월 말부터 4월까지 총 7명의 연구 참여자를 인터뷰하였는데 심층면접을 통해 생산된 녹취자료는 연구모임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모임의 구성원들의 일정이 조율 가능할 때는 사례회의를 통해 녹취자료를 함께 분석하거나 2차 인터뷰의 질문을 함께 구성하기도 하였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문제제기, 선행연구와 연구대상 및 방법을 밝혔다.

2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가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살핀다.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서 이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며 페미니스트가 되어 가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페미니즘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 페미니스트 이름표가 어떤 의미이며 그러한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이 실제 어떤 과정인지를 포착한다.

3장에서는 페미니즘의 렌즈를 통해 일상적인 관계와 관행들을 새롭게 보고 조직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부상하는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가족 경험과 이성애 연애 경험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섹슈얼리티와 가족, 재생산에 관해 어떤 이해와 실천들을 구성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페미니즘‘들’을 접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페미니즘을 구성해가는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혼란과 갈등에 주목한다. 다양한 페미니즘들의 경합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긴장과 균열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 페미니스트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바탕이 무엇인지를 탐구해본다.

마지막 결론인 5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제언을 정리한다.

2. 페미니스트 되기: “빨간약”¹³⁾을 먹은 여자들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호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페미니즘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또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이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에게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라는 이름표가 어떤 의미인지를 탐색해본다.

1) 여자임을 자각하기

(1) 충격과 분노로 다가온 사건들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가 된 계기는 다양했는데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이 ‘리부트’되었다고 평가되는 2015년 이후부터 발생했거나 새롭게 수면위로 떠오른 대중문화 콘텐츠를 둘러싼 여성혐오,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불법촬영물 문제, 미투 운동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을 자신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삼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은 “모든 여자들의 전환점”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즘에 강하게 접촉하게 된 계기로 꼽고 있다.

13) ‘빨간약’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주인공 레오에게 건네는 진실을 알게 해주는 약이다. ‘매트릭스’는 인공지능(AI) 로봇에 의해 기억이 입력되고 삭제되면서 ‘진정한 현실’을 인식할 수 없게 인간을 지배하는 가상현실세계로, 이 세계에서 먼저 빠져나온 모피어스가 건네는 ‘빨간약’을 먹게 되면 자신이 가상의 세계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된다. 빨간약을 먹은 주인공 레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의 진실을 깨닫고, 이를 알기 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페미니즘’이라는 빨간약을 먹으면 어떤 진실을 알게 되고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때 빨간약을 먹었다는 표현을 자주 하고 있다.

그건 모든 여자들의 전환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왜냐면 저는 그 뒤로 강남역에서 약속 안 잡았어요. 진짜로 화장실로 못 가겠고, 지금도 같이 가줘 이러면서. (사례1)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면, 또는 어떤 거기에 준하는 탁월한 성취를 이루면 괜찮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하나의 강력한 자원 또 몇 개의 강력한 자원이 여러 가지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약간 마음이 바뀐 거 같아요. (중략) 말 그대로 단지 이 지정성별 하나 때문에 얼마든지 차별적으로 어떤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감상은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그냥, 그쵸, 사실은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이런 자원을 가지면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을까? 에서 그렇지 않네. 전혀 그렇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례7)

단지 “여자라서 당”한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감각은 이들이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문제가 “나의 일로 끌어와진” 기점이자,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반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학벌이나 돈과 같은 “강력한 자원”을 가지게 되면 자유와 안전이 담보될 거라는 “착각”에서 깨어나게 된 계기가 됐다.

각종 젠더의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운데 여성들이 마주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은 불법촬영물의 존재였다. 메갈리아에서 소라넷 사이트의 문제를 공론화한 이후 불법촬영물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 명명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화장실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이 공공연하게 촬영되고 있고 이것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별다른 제약 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난 후 “나도 언젠간 찍혔겠지”, “누군가 보겠지”라고 체념하기도 하지만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스스로 생활을 제약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도 있다.

어느 날 어떤 화장실을 갔는데, 되게 허름한 화장실이었는데 거기에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벽에도 구멍이 다 있고, 벽이 갈라진 곳도 있는 것 같고, 뭐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울음이 났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은 봐야 하니까, 그래서 속옷을 내리고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중략) 그리고 막 학교 안에 커뮤니티 보면, 우리 학교에 그게 발견되었다, 뭐 안전한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제 자취방도 맨날 봐요. 혹시라도 모르는 거니까. 집주인이 남자면 마스터키가 있

으니까 화장실 어디 숨겨놓고 이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갑자기 철컹 이런 일이 생기면 다 살살이 뒤져보고 방 안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3)

공중화장실의 수많은 구멍을 보면서 불안해하면서도 속옷을 내리고 일을 봐야하는 상황이 너무 싫고 눈물이 났던 경험을 말해줬던 사례3은 자취방에서도 혹시 카메라가 없나 매일 살펴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취를 하는 동안 속옷만 입고 편하게 있는 게 제일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는 사례4는 어느 날 내 자취방 안이 찍힐 수도 있다는 의식이 드는 순간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암막커튼을 사서 달고는 그 뒤로 한 번도 커튼을 젖힌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집안을 드나드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싫고, 자꾸만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기분을 느끼면서 혼자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시켜야 했다. 사례8은 여성안심 스티커가 붙어 있는 화장실이 아니면 공중화장실에 아예 가지 않고, 뚫려있는 무수한 구멍과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여자들이 붙여놓은 스티커와 경고문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지만 실리콘으로 막거나 내가 피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에 답답함을 호소한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공포가 무척 컸던 사례3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 공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불법촬영물이 주로 화장실이나 집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되고, 촬영된 영상물이 디지털 공간에서 언제, 어디서 유포될지 모를 뿐더러 이것이 영구히 삭제되지 않고 남아 어떻게 가공될지 모르는 디지털 이미지라는 점, 내 지인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의해 내가 성적 대상이나 유희거리로 소비될 수 있다는 것이 “피해망상인가” 싶을 정도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아나운서나 기자를 꿈꾸는 사례3은 만약 자신이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어 사법절차를 밟게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사건종결 여부가 아니라 그 이미지가 계속 남아 가공되고 유포되어 계속해서 소비되고, 지인들이 그 이미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강남역 살인사건을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주요 계기로 꼽는 연구 참여자들은 사건 자체보다도 이를 둘러싼 온오프라인의 반응들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한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수의 여성들은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여성혐오 범죄로 명명했다. “여자가라서 죽었다”는 선명한 구호는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여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 느끼는 분노와 슬픔의 정동이 포스트잇으로 뒤덮인 강남역 10번 출구에

서 집합적으로 공유되었다(이나영, 2016; 정용립·이나영, 2018). 그러나 사례 12가 말하듯이 이 사건이 여자 “전원의 문제”라는 인식은 여성들 사이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성들의 성폭력 경험을 공유하는 필리버스터로까지 이어졌지만 “언제나처럼 남자들은 화를 안 내더라”는 말처럼 이 사건을 둘러싼 해석과 정동이 동일하게 공유된 것은 아니었다.

강남역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게 다. 그런 과거의 뭔가 가져왔던 관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 같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왜 그랬지?라고 여자애들끼리 생각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걸 남자애들한테 말을 하나까 남자애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친하고 잘 지내왔는데 왜 강남역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며,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느낌으로 많이 말다툼이 있었던 거 같아요. (중략) 만약에 옛날에 생각을 했다면은 나는 앞으로 새벽에 안 다녀야겠다 위험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 가장 화가 났던 거는 반응들이었던 거 같아요. 이게 단순히 여성들이 약하니까 그냥 만만해서 건들인 거 아니냐 그때 범인이 화장실에서 여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그렇게 부정하지라는 생각도 했고 (중략) 강남역 살인사건 때 그 반응들을 보면서 아 이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구나. (중략) 그때 가장 컸던 감정은 배신감인거 같아요. 내 주변에 내가 밤길이 무섭다고 생각을 해서 데려다 달라고 했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 그거는 니가 약해보이니까 당할 수도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하는 그 순간들. (사례4)

연구 참여자들은 이 사건이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임에도 정신질환을 가진 한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 주장하는 반응을 보면서 “어이가 없고” “화”가 나면서 성별에 따른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절감하게 되었다. 한편 이들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성들이 집합적으로 내는 목소리가 제대로 경청되거나 존중되는 대신 무시되고 조롱된다는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사례4는 현실의 남자친구들이 사건을 단순한 약육강식의 논리로 설명하는 걸 보면서 이들에게 여성대상폭력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뿐더러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접한 자신이 여성으로서 갖는 두려움과 문제의식을 두고 “이제껏 친하게 지내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서 불편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걸 보고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사례7은 추모 현장의 분위기를 남성혐오로 프레이밍하고 추모 시위에 참석하는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공유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온도 차”가 크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불법촬영의 문제가 “여자들에게만 한정된 얘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 화장실의 구멍 사진을 찍어서 남자친구에게 보여준 사례3은 남자친구가 “평생 동안 화장실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례9 또한 인터넷 댓글을 통해 남자들은 화장실의 구멍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불법촬영물 문제를 접하고 여자로서 두려움을 경험한 이들은 남자들은 아예 그런 공포를 마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 동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성별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한다는 사실이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지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이런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여성들의 집합적 목소리가 제대로 경청되고 존중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회의 남성중심성을 깨닫게 되기도 하였다. 여자라서 당하고, 그럼에도 여성들이 겪는 공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회의 부정의함을 직관한 이들이 페미니즘과 만나게 된 것이다.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불법촬영물 문제 외에도 여성혐오로 논란이 된 사건이나 대학 내 카톡방 성희롱 사건, 2019년 4월 언론에 대서특필된 정준영과 버닝썬 사태 등을 계기로 여성혐오와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공고한 남성문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연구 참여자들도 있다. 웅달샘과 꿈꾸는 라디오 여성혐오 논란(이하 웅꾸라 사건)¹⁴⁾을 통해서 여성혐오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된 사례12는 여성비하와 멸시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들의 여성혐오가 태세를 갖추고 ‘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대화의 맥락에서 평소 말투로 나왔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 더욱 충격이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할 줄 알았는데” 기사 댓글들을 통해 이들을 변호하는 여론을 보면서 “남자들 저 정도 애긴 다 한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었다. 된장녀 프레임의 상징인 스타벅스에는 가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를 검열하곤 했던 그는 다른 여성을 된장녀 프레임으로 보거나 온라인에서 여자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를 접할 때마다 같이 욕하는 등 자신이 여성혐오에 “세뇌” 당해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런 그에게 “페미니즘으로 얻게 된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중 하나는 같은

14)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방송인 유상무, 유세윤, 장동민이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 ‘웅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의 일부 회차에 여성혐오 발언이 있다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다.

여자를 미워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사례8은 불법촬영물에 관해 대화를 이어가던 중 남자들은 불법촬영물을 다 알고 쉬쉬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여자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이것이 남성 일반은 다 공유하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들이 나름 남성문화 안에서 남성성을 강요받고 있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신이 이를 이해하거나 공감 해주지 못하고 “남자혐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약간 이런 느낌. 뭐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잘못을 했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다 이려고 놀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 뇌에 그 구조 자체가 다른 거 같아서 그런 인식이나 발상을 깨기는 정말, 멀었구나, 진짜. 아무리 이렇게 남녀 갈등으로 싸우고, 막 얘기를 아무리 해도, 진짜 멀었구나. 이 20대 극 초반 애들조차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정말 아무렇지 않은 너무 당연한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사례9)

1차 인터뷰 때 페미니즘이 “개싸움” “남혐”으로 “변질됐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멀리하기도 했었다는 사례9는 정준영과 버닝썬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진행한 2차 인터뷰에서 “인류애가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사례9는 당시에는 범죄자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문제로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준영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걸 보면서 “이 와중에 찍힌 여자아이들이 누군지 궁금해”하는 한국 남자들의 인식이 너무 혐오스럽고 “이쯤 되면 진짜 종특인가” 싶은 깊은 회의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말한다. 현재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자신이 자존감을 높이고 가치관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던 그는 이 사건 때문에 남자친구한테도 화를 내고 “너조차도 못 믿을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일상 얘기와 너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낮에 과제 다 했냐 나 아직 덜 했어 뭐 오늘 수업 뭐있지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야 개 가슴 완전 크지 않냐 이런 얘기로 넘어가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어떻게 이런 놈들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이게 공론화되고 나서 [학내 커뮤니티] 반응들이 (중략) 가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이다 이게 가장 처음에 반응인거예요. 그 5월에 강남역 사건과 7월에 이게 겹쳐지면서 진짜 그 배신감 밖에 안 들었던 거 같아요. 어떻게 나와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남자인 순간 이런 반응을 봐야하는가. 여자애들은 처음 내놓는 반응이 이제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그런 놈들이 있지? 하면은 남자애들은 멈칫 하는 거예요 약간. 뭔가 이거를 자기가 옹호할 수는 없고, 항상 앞에 붙는 말이 개네가 잘못된건 맞다 근데. 근데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중략) 친구들 카톡방에서 제가 이제 기사를 공유했었어요. 근데 한명이 (중략) 아니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냐 남자애들 톡방은 다 그럴 거다 해서. 입장을 통일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들은 안한다고 하든가 차라리. 모든 남자애들이 그렇지 않다 라고 하든가 모든 남자애들은 다 그런 놈들이라고 하든가.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게 다 그렇긴 한데 나는 아니야. 나는 너에 대해서 그러진 않았어. 이렇게 하.. (사례4)

언론에 보도까지 된 학내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둘러싼 남성들의 반응을 말해준 사례4는 사례12가 옹꾸라 사건을 접했을 때 받았던 충격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접했을 때 카톡방에 있던 남성들이 나눈 성희롱 대화가 일상적이라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학내 커뮤니티와 주변 남성들의 반응을 보고는 더 “화” 났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한 남성 친구는 관련 기사를 공유한 사례4에게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냐 남자애들 톡방은 다 그럴 거다”고 반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때와는 다른 점이 발견되는데 남성들이 모든 남성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며 입장을 통일하지 못하고 “멈칫”한다는 점이다. 이런 반응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이 남성들의 일상적인 문화라는 점이 남성들에게 공유된 인식이라는 점을 방증하는데, 여기에 방어적으로 등장하는 논리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을 보면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배신감”밖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과 불법촬영물의 문제 등은 자신이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자임’을 자각하게 되는 사건이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저 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사는지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을 넘어 여자를 멸시하고, 성적대상화하면서 남성들만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남성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이들의 현실 인식을 뒤흔들어 놓았다. 나아가 이에 문제제기 하려고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예민함”, “일반화”, “남성혐오” 등으로 치부되거나 무시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들은 분노와 동시에 ‘여자들은 다 안다’는 감각과

‘우리 여자들’이라는 집합적 동일시를 획득하였다. 이는 남성에 대한 불신과 여성 연대에 대한 희망과 절박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2) 페미니즘의 언어로 내 경험을 재/해석하기

페미니즘이 대중화되기 전 대학생들이 주로 여성학 수업, 여성주의 동아리, 참여학생회, 여성단체 등 면대면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통해 페미니즘을 접했다면 최근에는 제도화된 방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페미니즘 대중화의 효과 속에서 페미니즘 담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강예원, 2019). 본 논문의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페미니즘 담론을 접하고 있는 동시에 페미니즘을 공부하거나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공간과 관계를 찾거나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 각자 사용하는 플랫폼과 활용 정도에 차이가 있었지만 포털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여초카페, 에타¹⁵⁾ 등의 디지털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페미니즘 담론을 접하고 있었다. 역시 각자가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독서, 학내의 페미니즘과 관련한 수업, 학내외의 강연 혹은 세미나나 학회, 동아리, 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직접 만들기도 하면서 페미니즘을 접하고, 공부하거나 관련 활동을 이어가기도 한다.

[트위터] 탐라에 많이 들어와요. 제가 굳이 팔로우를 안 해도 저는 그, 제가 (웃음) 사실 팔로우 하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그 마블 좋아해가지고 마블이나 해리포터 이런 거. 그런 거 팬 계정 같은 거 그런 거 불라고 이제 팔로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이런 얘기 많이 리트윗하고 이러니까 저도 보게 되고, 저도 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사례10)

덕질용으로 트위터를 사용하던 두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았는데도 언젠가부터 타임라인에 페미니즘 이슈가 흘러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페미니즘 이슈를 접하게 되었다. 메르스 갤러리에 들어가 본 유일한 연구 참여자인 사례12는 여성혐오 논란과 관련한 페미니스트들의 기사나 웹진 같은 것을 읽고

15) 대학 시간표 어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의 줄임말로 학교인증을 거친 재학생들이 캠퍼스 별로 익명의 커뮤니티를 개설해 운용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최근 많은 대학에서 활발하게 이용하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이에 동의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 나도 페미니스트인가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트위터가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 페미니즘 소식 창구로서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다. 트위터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구 참여자들도 방송이나 포털에서 보는 뉴스, 기사, 칼럼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각종 미디어에서 페미니즘 관련 이슈가 양적으로 많아지고, 페미니스트들의 글들을 많이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페미니즘 담론을 접해오고 있다.

현실과 디지털 공간의 여러 경로를 통해 페미니즘 담론과 만나고 나름의 언어를 획득했거나 찾아가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성차별의 경험이 있나는 질문에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 내 성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꼽았다. 가족 내에서 폭언이나 물리적 폭력, 성추행 등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고, “사소한 차별”이라거나 “평범한 가부장적 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남아선호사상과 성차별적 인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던 조부모나 친척, 부모님들을 보고 자란 경험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96년생인 사례10은 주변의 친구들의 경험을 들어보아도 본인이 어렸을 때는 아들을 더 선호하는 문화가 좀 더 당연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명절이나 일상생활에서 가사노동 등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성차별을 경험하였다.

저는 아빠의 그 친척분들 (중략) 자꾸 보수적인 생각만 듣다보니까 되게 반항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도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바꾸는데 항상 남자를 먼저 바꾸게 하는 거예요, 출석번호도 남자가 항상 1번이고, 그래서 제가 손들어서 말 했어요 아 왜 맨날 남자들 먼저 시키냐고, 그리고 왜 맨날 저희가 출석번호 뒤냐 (중략) 약간 그 때부터 되게 반항적이었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쪽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가 대학생 때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알게 되면서 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페미니즘이랑 비슷하구나 싶어서 그 때부터 접목했던 것 같아요. (사례14)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또래 친구들이 성차별을 하거나, 성희롱, 성추행을 일삼았던 경험을 공유해주기도 하였는데, 그 때는 그게 문제임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지만, 이런 경험들로 인해 자연스레 “반항심”이나 “반골기질”을 가지게 됐거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기게

됐다고 말한다. 이들은 자신이 자라면서 겪어왔던 성폭력이나 성차별,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감정이나 기질이 자신을 페미니즘과 만나게 했다고 의미화 하고 있었다. 항상 “응어리”진 “억울함”이 있었다는 사례3은 여성학 수업을 들으면서 “미묘함”과 “은근함”으로 표현되는 어떤 분위기가 차별인지 아닌지 몰라서 느꼈던 답답함이 “아 이거였네” 하면서 해소가 되었다. 사례14는 심하게 보수적이고 차별적인 아빠의 친척들과 학교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반항적인 사고”를 가지게 했고 대학생 때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알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페미니즘이랑 비슷하구나 싶어서 그 때부터 접목했”다고 한다.

저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터닝포인트였죠. (중략) [페미니즘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일단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전혀 없잖아요. 누가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받아들이지,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저는 지금 제 모습을 너무 좋아하, 있는 그대로 좋아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연대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사례11)

외모 품평과 외모 관리 경험은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제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끊임없는 외모품평과 이에 따른 압력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거식과 폭식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형을 하기도 했으며, 예쁘지 않으면 발언권이 아예 없다고 느끼기기도 하고, 자신과 다른 여성을 외모로만 평가하고,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자신을 탓하기도 하였다. 외모 품평과 관리 압력 때문에 고통을 겪어온 이들도 있었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페미니즘과 탈코르셋 운동을 접하고 여성들의 외모 관리 문화에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이들도 있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접하고 탈코르셋 운동을 만난 후에 특정한 몸과 스타일로 예뻐져야 한다는 강력한 규범 속에서 여성이 끊임없이 품평과 희롱의 대상이 되는 동안, 외모관리가 개인의 주체적인 욕망과 선택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회의 규범적 여성성과 성적 대상화를 거부하고 나선 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가시화되고 대표되고 있는 탈코르셋 운동을 둘러싼 여러 담론과 경합하면서 자기 나름의 코르셋 벗기를 시도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사례11은 세계여행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을 만난 것이 자신의 외모 관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다. 세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이 느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찾던 중 페미니즘을 만난 그는 자신이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들이 “정돈된 말”로 나와 있는 “사이다 같은 경험”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페미니즘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말하는 사례11은 페미니즘을 만나서 자신을 좋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연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만족”하고 있다.

저한테는 그니까 그 말이 저로 인해서 해석이 됐어요. 제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근데 과학계 꽤맞춰진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걸 요즘엔 좀 인정을 하고, 이것도 결국 나에 의해서 각색되고 편집된 어떤 긴 스토리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당하게 애썼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기도 한 거예요. 제가. 제 차별을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제가 편집해왔을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사례6)

최근 2년 간 가족 내 차별 문제들 때문에 “꿈꾸 앓”기도 하면서 지냈던 사례6은 페미니즘으로 인해 삶 전체가 해석되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버리는 바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트위터에서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서 끊임없이 자극이 오고 “행동을 취하는 연습”을 하게 된 그에게 페미니즘은 “주체의식”이 생기게 된 계기이다.

내가 똑같은 일을 해도, 왜 그런지 저도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가 제가 어리다는 거, 여자라는 거 이거 두 개 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왜 빨간약이라고 하잖아요. (웃음) 저는 사실 그 표현들이 너무 입에 착착 붙고, 이렇게 대체할 학술 용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웃음) 그래서 빨간약 들었을 때 진짜 박수 쳤어. 빨간약을 더 거부감 없이 먹고 그러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로 안 느껴졌다기보다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을 못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너가 그만둬라, 일을 옮겨라, 뭐 그냥 참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중략) 지금이면 할 수 있어요, 지금이면 정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지금이랑 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내가 돈 주는 사람한테 대든다, 이게 상상도 잘 안가기도 하고 (중략) 뭔가 저는 그 전을 생각하면, 제가 되게 가렵고, 너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내가 그랬다 뭔가 이런 게 있어요, 뭔가. 근데 지금은 뭔가 진짜 현실을 딱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뭐 비슷한

상황이 와도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약간 스스로를 더 성숙하게 한 것 같다? 분별력도 생긴 것 같고. (사례1)

연구 참여자들은 성인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각종 성차별과 성희롱, 성추행 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19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례1은 “삶의 모든 복이 일복”으로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알바를 해왔는데 그만큼 “희롱의 경험도 굉장히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외모규율, 성희롱, 위협적인 성적 접근 등을 경험한 사례1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어린 여자’라는 이유밖에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처음 성희롱을 경험했을 때가 19살이었던 그는 그 나이에 자기가 뭘 할 수가 있었겠냐고 하면서도 자신이 한 경험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한다. 주변 지인들은 걱정하고 분노하면서도 자꾸 자신에게 일을 그만두길 권했는데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잘못된 것도 없는 내가 왜 그만둬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은 그가 미투 운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분노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일을 그만두거나 참는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이면 정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례1은 당시에는 그저 화만 나는, 감정만 있던 상태였는데 ‘빨간약’을 먹고 나니 자신이 경험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정리”할 수 있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대처” 능력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페미니즘을] 경유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됐다기보다, 뭔가 딱 그냥 맞는 느낌? 퍼즐조각이. (사례13)

대학교 1학년 때 교수의 성차별적 발언을 그냥 듣고 넘긴 것이 후회되었던 사례13은 이후 #OO계 내 성폭력 운동이 진행되었을 때 이 교수를 고발하였다. 지금 같았으면 바로 맞받아쳤을 거라는 그에게 페미니즘은 “연대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고 있었다. 언어화 되지 못하고 ‘화’나 ‘응어리’, ‘억울함’이라는 감정으로만 떠돌던 연구 참여자들의 지난 경험들은 페미니즘의 언어를 만나면서 마치 “퍼즐조각”이 맞는 느낌으로 재/해석되어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연대로 연결되고 있다.

2) 페미니스트라는 이름표

(1) ‘남성혐오’라는 딱지와 부정적 인식에 대한 두려움

주지하다시피 지난 2015년부터 디지털 공간의 여성유저들은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면서 각종 젠더 이슈들을 사회적 문제로 대두시켰다. 특히 메르스 갤러리에서 여성들이 보여준 미러링 실천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 ‘착한 페미니즘’을 거부(문은미, 2016)한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의 운동 방식과 그 “과격”함에 대한 논쟁이 오고갔지만 다수에게 이런 전략이 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되면서,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에 환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후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주목된 관심은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을 양산하기도 했지만 안티페미니즘의 백래쉬 또한 만만치 않았다. 특히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의 보도 이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페미니즘’을 ‘남성혐오’로 문제화하는 프레임이 등장하였고, 이는 남성 중심 커뮤니티의 일반화된 담론 구조로 자리 잡았다(김수아, 2018). 이런 식의 프레임이 ‘메갈’과 ‘워마드’는 ‘여자 일베’라는 식으로 악마화 하는 담론과 결합하면서 ‘여성 이슈의 쟁점화 자체를 성대결의 확산으로 보거나, 여성 이슈에 대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남혐’으로 보는 시각이 득세하게 되었다(배은경, 2019). 이런 식의 담론은 디지털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사례1은 수업시간에 “그 주제”, 즉 페미니즘 관련 주제가 나오면 남자들이 화를 돋우고 여자들은 화를 내면서 싸우기만 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친구의 불만 섞인 전언을 들려주었다. 페미니즘 관련 논의는 “나와서는 안 되는 주제, 싸움의 시작”이 된다는 그의 말처럼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현실에서 페미니즘 얘기는 “조심”스럽고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되어 심지어 아예 “말을 안”하는 상황이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녀 간 싸움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례3은 오프라인에서 “그 주제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그게 나오면 얼버무리게 되”는 등 너무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한다.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는 “성별은 뭔가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몰카 피해 정도의 문제라고 합의된 수준을 제외하고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니까 말을 안 해요. 아예. (중략) 계속 책 같이 읽는 세미나 계속 같이 하고 그랬는데

멤버들 모아가지고, 그 선생님도 젠더 얘기만 입 다물고 있잖아요. (사례13)

사실 수업 등 현실 공간에서 페미니즘 관련 이슈를 토론할 때 여성과 남성으로 편이 갈리는 상황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다. 그렇지만 항상 성별에 따라 어떤 입장이 나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과 남성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문제는 사례12처럼 남자들이랑 “괜히 얘기했다가 멀어질까봐 둥글게, 둥글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페미니즘과 관련한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가 “남녀” 간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그 주제” 자체를 아예 꺼내지 못하고 있거나 회피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례10은 최근의 페미니즘 담론이 토론할 때 욕과 비난이 많은 인터넷 중심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 오프라인에서도 페미니즘을 “민감한 사안”으로 만든 게 아니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례10을 포함하여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격화된 표현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이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례1은 “빨간약을 먹기 전” 페이스북에서 메갈 용어를 쓰면서 화를 내는 친구에게 “여자 일베”라고 하는 다른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친구가 뭔가 안 좋은 것에 “현혹”이 되어 있구나 생각했었다는 에피소드를 전해주었다. 최근에 페미니즘은 ‘메갈’로 수렴되는 경향(문은미, 2016; 윤보라, 2017; 김수아, 2018)이 있는데,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도 ‘페미니스트=메갈=여자일베’ 혹은 ‘페미니즘=남혐’이라는 공식이 통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사례10과 사례14는 현실에서 “너 남혐 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 페미니스트로 “낙인”찍힐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는 사례2는 페미니스트로 인식되면 “일반 남자들”에게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남성들의 공격이 정말 세”고, “20대 여자애들이 현실에서 남자들한테 공격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미니즘 문구가 쓰여진 옷을 입거나 페미니즘 배지가 달려있는 가방을 멜 때면 페미니스트로 표지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해주었다. 부정적인 페미니스트 이미지에 크게 개의치 않더라도, 페미니스트를 조롱하거나 증오심을 표현하는 일이 디지털 공간에 넘쳐나고,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자주 게시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 의한 폭력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도 있다.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는 사례6은 가끔 길을 가다가 목소리의 볼륨을 줄이는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의식될 때는 또 갑자기 크게 말하면서 일부러 “한남이 어찌고저찌고” 더 하기도 한다. 자신이 속한 일상생활 공간의 주변인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사례11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은 좀 신경이 쓰인다고 했는데, 카페에서 페미니즘 얘기를 할 때 시선이 불거나 “누가 봐도 탈코르셋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지하철 등 공공 공간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남자친구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런 불편한 얘기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사귀면서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떨렸거든요. 왜냐면 페미니즘에 대한 프레임이 있으니까. (중략) 메갈이 완전 일베취급 당하잖아요. 여자 일베다, 이렇게. 네이버 기사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뭐 일베랑 동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 그러면 일베가 되는 건가? 여자 일베인가? 제가 메갈을 여자 일베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데,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사례3)

사례3은 “페미니즘에 대한 프레임”이 있어서 남자친구한테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말하기 전까지 굉장히 긴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사례3은 서점의 페미니즘 코너에 가는 것만으로도 조마조마하고 신경이 쓰일 정도로 페미니스트로 인식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가 이 정도까지 걱정하는 이유는 “메갈이 완전 일베취급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메갈이나 위마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고향 친구들이 해주는 얘기를 전해 듣기만 한 사례3은 주로 인터넷 기사나 댓글로 반응을 접하고 있다. 해화역 시위도 직접 다녀온 친구가 기사가 과장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 “괜찮은 단체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에게 이런 페미니스트 “낙인”은 혹시 기록이 남아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이어져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나름의 ‘코르셋 벗기’를 실천 중인 사례8은 여전히 페미니스트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고, 낙인찍히는 것도 아직 겁이 나서 “탈코르셋 전체”를 할 자신이 없다.

디지털 공간에서 페미니즘이 ‘남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9는 자신이 페미니스트로 단언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사회의 “페미니스트 인식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되기 때문인데, 그가 집회에 나가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도 “한쪽으로 편파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라고 말했다. 이

들은 페미니스트로 인식되면 모르는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고립되고 배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두려움은 이들이 현실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지인들에게 페미니즘과 관련한 이슈를 던지고 고민을 이어가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 현실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폭력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페미니즘 관련 대화와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관계나 공간이 없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디지털 공간이나 학내에 개설되는 페미니즘 관련 수업이 페미니즘을 '안전하게'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되고 있다.

(2) 페미니스트로서 또래 집단에서 관계 맺기

'한국의 페미니즘'이 '남성혐오'로, '페미니스트'가 '메갈'이나 '위마드'로 프레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낙인화된 페미니스트 이미지가 자신에게 미칠 부정적 효과-관계 틀어짐, 취업 혹은 인사 불이익, 폭력 피해 등-을 우려하면서 페미니스트임을 상황에 따라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한다. 페미니스트 낙인에 크게 개의치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는데 별 거리낌이 없는 연구 참여자들도 상황과 상대에 따라 선택적으로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동의 수준을 확인하지 않아도 남성에게는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냥 저희 속으로는 아, 진짜 왜 저러지? 하고 그냥 거르죠. 뭐라고는. 논쟁되고 어쨌든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걸 말해볼 생각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죠?) 말 하면 자기만의 논리로 그러고, 이러니까 그러고 같이 어쨌든 같은 동기, 같은 학년이어서 일 크게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냥 말을 잘 안 섞어요. 그런 얘기를 잘 안 꺼내는. (사례8)

사례8은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학과 남자들은 “거른다”고 표현했는데, 같이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라 “일 크게 하고 싶지 않고” 논쟁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들의 언행에 문제제기를 해볼 생각은 안 해봤고 그냥 말을 잘 안 섞게 된다는 것이다. 사례8은 여대에 다니는 페미니스트 친구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중략) 스터디를 다른 학교 교수님이랑 그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둘 다 남자분이세요. 그러다보니까 가끔가끔씩 아무래도 얘기를 하더라도 가끔가끔 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할 때가 있는데 감히 말을 못하겠어요. (그게 진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런 상황도 되게 많을 텐데 내가 반응을 하면 나는 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큰 거 같아요. 어- 남자들이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무리에서는 최대한 페미니즘 얘기를 안 해요. 되게 뭐야 재? 그럼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봐. 여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게 있고 자기도 경험한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까지는 숨기지 않는데 남자들 앞에서는 절대 못하겠어요. (사례14)

사례14는 주변에 페미니스트 친구들도 있고, 본인이 봤을 때 최근 학내 분위기도 50% 이상이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런 사례14는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냄에 있어 상대방 특성에 따라 “간”을 보는데 친구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페미니즘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편이면 불편한 게 있어도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남자들 앞에서는 아무리 불편해도 페미니즘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는데, 남자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지만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군이 남초군이라 페미니스트임이 드러나면 해고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사실 “진짜 현실 세상”에서는 페미니즘 단어를 얘기만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비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직장에 가게 되면 일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한다. 사례8과 사례14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불편하거나 부당한 언행을 접하더라도 페미니스트로서 문제제기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근데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애들이. 특히 약간 가끔씩 남자, 어떤 남자애, 우리 과에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너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개뽀만 아니라 약간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같아요. 너 그럼 페미니스트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중략) 근데 그럴 때 뭐가, 나 맞아.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한 적은 사실 없어요. 약간 그냥 응, 그런 거에 관심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 말했지. 왜 그런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돌려 말하게 되는 거 같아요. (중략) 하도 (웃음) 하도 그 단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뭔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례10)

굳이 나서서 “나 페미니스트야”라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일상의 대화에서 페미니스트임이 드러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이나 단어들을 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페미니스트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를 신경 쓰고 있다.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례10은 남성들에게 페미니스트라는 질문을 몇 번 받아봤는데 “관심이 많다”고 돌려 말하고 굳이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 단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남자인 친구들이 가끔 카톡으로 페미니즘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럴 때는 본인의 생각을 말해주는 편이다. 페미니즘에 관한 얘기는 아주 친한 남자애들을 제외한 남자들이랑은 얘기를 잘 안하고 여자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편이다.

이제 어느 정도는 적어도 여자, 여자들 사이에서는 메갈 수준의 가벼운 정도의 페미니즘 논의는 동의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요즘 애들은 다 메갈인 거 알지? 라는 그게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말을 굳이 안 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중략) [한남이나 재기 이런 단어는 그냥 숨 쉬듯이 써서. 이게 뭐 아 특별히 극렬 페미라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저거 지금 대학생 수준 연령대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 예전 메갈 정도의 그거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를 좀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사례12)

사례12는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가 보기에는 “메갈 수준의 가벼운 정도의 페미니즘 논의는 동의가 됐”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요즘 애들은 다 메갈”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례12는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인데, 새로 만난 사람과 계정을 교환하기도 하나는 질문에 상대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답했다. 트위터에서 미러링도 하고 욕도 하는 편인 그는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 얘기해보고 자기와 생각이 맞고 친해지고 싶다고 하면 계정을 교환한다. 그런데 자신이 ‘메갈’로 인식되는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 사례14는 ‘위마드’는 얘기가 다르다고 한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2015-2016년에는 사람들이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해도 그냥 인권이나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어디거나 한 명씩 있는 “극성맞은 애” 정도로 생각해도 “위험한 애”, “반사회적인 애”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페미니즘 논의가 몇 년째 활발히 이어지고 내부

에서 “분과”가 나뉘기도 하면서 ‘위마드’로 인해 생긴 위험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페미니스트로 보이는 것이 어떻게 인식될지 걱정하고 있다. 혹시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이 ‘위마드’라고 올라오면 인간관계나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페미니스트 아니면 친구 안하니까. 못해요. 못해. 뭘 씹소리야(웃음) 이라고 다음에 안 만나. (사례6)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안 맺거나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사례13은 실명 계정인 페이스북 등에서 공개적으로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니 사람들이 알아서 걸러지지 않겠냐고 말한다. 사례13은 자신을 “신여성”이라고 표현하던 “벽에다가 말하는” 좌절감을 주는 한 친구와 절연을 했다는 사연을 들려주기도 했다. 낙태죄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면 “그래도 생명만큼은”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아니면 친구 안(못)한다”는 사례6은 페미니스트 친구를 사귀어도 생각이 달랐을 때 완전히 솔직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친구와 탈코르셋에 대한 입장이 다를 때 자신의 생각을 예들려 표현하지 않고 토론을 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에게 비난으로 읽힐 것을 염려하는 눈치였다. 사례6의 다른 친구는 탈코르셋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만날 때마다 “변명” 같은 말을 늘어놓는 친구가 자신과는 다르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현실적 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해보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는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래도 스스로 고민하고 대화와 변화의 여지가 있다면 계속 만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배경지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만 자신이 어떤 성향의 페미니스트인지를 드러내는 연구 참여자도 있고 ‘메갈’이라는 ‘낙인’을 전유하면서 유머로 승화할 수 있는 스타일의 페미니스트 친구를 찾고 있는 연구 참여자도 있다. 사례11은 실명 계정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데, 사람들을 걸러내는데 효과가 좋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변의 친절한 친구들은 이른바 ‘사상 검증’을 하려는 의도로 질문을 던지는 남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다.

뭔가 페미니즘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프레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얘는 완전히 페미니스트, 뭐라고 해야 되지?(폴 페미? 메갈?)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제가 메갈이나 폴페미 소리를 듣기 싫은 게 아니고, 저는 약간 래디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스스로를. 근데 그런 맥락을 모르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프레이밍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사례11)

사례11은 자신과 같은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검증된 친구들”이 아니면 페미니즘에 관해 잘 얘기하지 않는다. 사례11은 다른 사람과 논쟁하거나 사안의 맥락을 성실히 설명하고자 했다가 얻은 것도 없이 스트레스만 받았던 경험이 있다. “전제”와 “배경지식”이 안 맞으면 A부터 Z까지 설명해줄 수도 없고 설명한들 “핀트”가 안 맞으면 “소모적”이라고 느낀다. 자신이 생각하는 탈코르셋의 의미를 설명해줘도 디지털 공간에서 탈코르셋이 강요되고 있다는 느낌만 얘기하는 친구와의 에피소드는 그가 배경지식과 전제가 맞는 친구들과만 소통하고 싶은 이유를 짐작케 한다. 그는 스스로를 “약간 래디컬”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행 중인 논의의 “맥락을 모르는”, “반신반의하는 친구들”은 댓글과 미디어에서 보는 모습만을 보고 “페미니즘을 오해”해서 자신을 “프레이밍”하게 될까봐 그런 친구들과는 페미니즘 얘기를 잘 나누지 않는다. 탈코르셋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11은 탈코르셋이 ‘특정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소위 ‘래디컬 페미니스트’로 프레이밍 될 것을 알면서도 절실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는 친구가 말로는 화장과 연애에 비판적이면서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을 굶고, 화장을 꼬박꼬박하면서 남자친구를 끊임없이 사귀는 걸 보면서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신”과 “화장과 이성애중심적인 연애”를 둘 다 좋아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심란하지만 이 친구에게도 과정이 있고 자기만의 속도가 있을 수 있으니 “판단”은 우선 “유보”하고 있다.

사례5에게는 페미니스트이냐, 아니냐는 큰 의미가 없다. 사례11처럼 “좀 같은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 전제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너무 지치고 힘든 일이라 회피해버리게 된다고 말하는 그는 힘을 빼는 언쟁들을 하고 싶지 않다. 자신은 “메갈 성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페미’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오히려 ‘메갈’이란 말을 선호한다고 하는 사례5는 “나 메갈리아다, 메갈녀이다” 라는 말을 웃으면서 받아들이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걸러내고, 다른 사람들은 “컷팅”해 왔다. 그

런데 메갈이란 말을 전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페미니스트를 걸러내는 사례5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라는 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는 그가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워마드 계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메갈’, ‘워마드’, ‘래디컬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티 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을 ‘남성혐오’로, 페미니스트를 ‘메갈’ 혹은 ‘워마드’로 프레임하면서 페미니즘을 문제화하고 페미니스트를 문제집단화 하는 현실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좋거나 나쁜 것, 옳거나 그른 것의 이분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페미니스트인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대인 관계를 맺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말하고 토론하거나 논쟁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한편 페미니스트가 아니면 깊은 관계를 맺지 않거나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다.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비슷한 성향과 전제를 가진 페미니스트와만 친구 관계를 맺고 싶다는 연구 참여자들은 설득과 논쟁에 소모되고 지쳐있다고 말한다.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더라도 안전한 관계 혹은 이권이 없어 덜 소모적이고 덜 상처받는 관계를 희망하는 것이다.

(3) 체감하는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불균질한 “시대의 분위기”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서 시시각각 마주하면서도 동시에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주변에서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다. 주변의 친구들보다 먼저 페미니즘을 접하고 페미니스트로 스스로를 정체화 했다는 사례10과 사례11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변 친구들이 모이기만 하면 페미니즘 이슈들을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고 한다. “워낙 사건이 많다보니” “자꾸 뉴스에 나오고” “대중적 화두”가 되다보니 “여자 셋만 모여도 꼭 페미니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제 주위에서는 그 친구랑 제가 그 당시에는 페미니즘을, 내가 페미니스트가 될 거야. 혹은 페미니스트야. 라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가까운 친구

들 중에서는. (2017년에는?) 네, 그 때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쪽으로 계속 팔로업을 하다보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이랑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다른 친구들이랑도. 뭐 동아리 후배라든지 아니면 과동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관심이 생기면서 저랑 그런 얘기를 시작하고 그게 또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오고 네, 그렇게 됐던 거 같아요. (중략) 그리고 아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어도 그냥 여자애들 세 명이상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사건이 워낙 많고. 요즘 막 비혼이다, 탈코르셋이다 워낙 굉장히 대중적인 화두가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꼭 한 번씩 나오는 거 같아요. 어디를 가든. (사례11)

사례10은 대학친구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누구도 나 페미니스트야” 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최근 2-3년간 각자가 겪었던 차별에서부터 “큰 사건들”까지 페미니즘 이슈가 대화와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해화역 시위에서 몇 년간 교류가 없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사례11은 자신이 탈코르셋을 하고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진 이후부터 주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레이더” 같이 서로를 발견하면서 그게 또 다른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고 전한다.

저한테 고등학교 동창들 7명 친구들이 약간 리트머스 종이처럼. 왜냐면 개네는 저처럼, 저처럼이라고 하면 좀, 애초에 그런데 관심이 있었고. 아니면 약간 반골기질이 있다던가 그런 애들도 아니었고 정말 그냥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을 법한 고등학생이었는데. 개네가 대학교 오고 취업을 하거나 하면서 개네가 각자의 인생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거를 보고 겪었을 거란 말이지. 저한테는 약간, 저한테는 (웃음) 개네가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라서. 개네가 변했으면 어렵히 다른 사람들도 달라졌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례12)

사례14는 ‘김치녀’ 같은 여성혐오 용어를 사용하던 친구들이 언젠가부터 “여혐 단어 쓰는 애들 다 거른다”고 하는가 하면, 페미니스트를 싫어하던 언니가 여초 카페에 가입하더니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요즘에는 여자 연예인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신에게 외모품평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한다. 사례12는 학벌이 좋거나, 페미니즘이 강성인 여자대학에 다니거나, 문화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은 진보적인 담론에 보다 친화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극렬 페미”도 아닌 “대한민국 여

자 평균”이라고 생각되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들까지 언젠가부터 “한남” 등 메갈의 미러링 언어를 숨 쉬듯이 쓰고, 페미니즘 관련 청와대 청원에 동참할 것을 SNS에 올리기도 하는 걸 보면서 페미니즘이 대중화되었다고 느낀다.

제가 국가기관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지만 내가 진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도와 줄 거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중략) 약간 초기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메갈이라고 말했다가 누구한테 두들겨 맞으면 주변 학우들이 그래도 니가 말이 좀 심했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이런 감각이었으면, 요즘엔 내가 이렇게 말해서 어디서 두들겨 맞아도 결국 내 사람, 주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메갈년들이라고 내가 부르는 사람들이 도와 줄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사례5)

옛날에는 ‘메갈’이란 단어조차 말하지 못했던 사례5는 친구들이 ‘메갈’이 “너무 과격하지 않냐”고 욕하면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 자기도 모르게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감각”을 가졌던 그는 페미니즘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욕하는 “그 페미 그게 나인 거 같은 느낌”을 가지고 페미니즘 학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학회에 동참하기 전에도 두려움은 있었는데, 학내에서 총여학생회 폐지를 주장하거나, 페미니즘 행사를 공격하는 등의 안티 페미니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문화에 익숙했던 자신이 학회에 들어가면 “빠박 나 페미야”라고 선언하게 되는 상황이라 두려웠지만, 그러면 “페미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한다. 스스로를 “졸보”라고 평가하는 그가 이제는 내 주장에 대한 확신이 있고 친구들한테 “바깥에 얘기하기 꺼려지는 주제”를 얘기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된 이유를 “페미라는 말을 쓰지 않는 페미니스트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의 “신뢰할 수 있을만한 사람들” 덕분이라고 꼽는다. 그런 그가 두려움을 느끼는 공간은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한 시위 현장 이었는데 이는 모르는 남성이 혹시나 가할지도 모르는 폭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가기관 이런 거 전혀 믿지 않”는 그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확실히 든다고 말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명예훼손과 역고소의 위협을 감당하면서도 줄줄이 발언하고, 사람들이 모금을 하고 지원한다거나 연대해서 시위를 하는 풍경들을 보면서 “메갈년들”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냥 제 주변에는 일단 페미니스트 아닌 사람이 없어요(웃음) 제가 막 일부러 딱히 쳐냈
다기보다도, 그냥 이 시기를 적당히 지나고 돌아보니까 아닌 사람이 그냥 거의 없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변에서 (중략)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대의 분위기를 너
무 탔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어느 환경, 어느 학과, 어느 학교 이런 거보다도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조금씩 협상되어 가는 과정인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의식을 본인들이 가지
고, 가지게 된 게 사실 중요한 거 같아가지고, (중략) 이제 좀 서로가 탁상에서 말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의제들을 본인들이 다 이제는 의식을 해야 될 때라는
걸 아니깐 조심을 하죠. (사례6)

너무 일상의 차원으로 들어와서. 그니까 그런 기사나 이슈나 담론을 그냥 SNS에서 공유
하고, 아니면 뭐 책을 읽는다든지, 페미니즘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그냥
카페나 밥 먹을 때도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페미니즘 얘기를 하거나 뭐 우리가 겪은
부당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남자 욕하거나 그런 게 엄청 일상적인 차원이 되어서. 미러링
- 같은 건 진짜 농담 식으로 항상 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중략) 그냥 당
연히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근데 약간 분위기가 그 페미니스트라는 거 워딩이~ 워딩
을 굳이 안 쓰는 분위긴 거 같은. 쓸 필요가 약간 없는? (사례13)

연구 참여자들 중 세 명은 페미니즘이 대중화된 “시대의 분위기”를 타고 대학 생활
을 하게 된 것이 자신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페미니즘
이슈가 일상적인 차원으로 들어와서 카페에서나 밥 먹을 때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굳이 페미니스트라는 워딩”을 쓰지 않아도 이 시기를 지나고 돌아보니 주변에 “페미
니스트 아닌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사례6은 본인이 입학하기 전
의 학교나 학과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안티 페미니즘은 “목살 당”한다. 그런 사람
은 “아주 자연스럽게 헛소리하는 사람이 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요즘 대학생 중
에 페미 아닌 사람 찾기가 더 힘들 것 같”다고 말한 사례13이 속한 학과에서는 소위
PC(Political Correctness)하지 않으면 멍청한 걸로 무시되고, 누군가 “페미니즘에 관
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말을 함부로 했을 때”에는 “저 사람 뭐야”란 시선을 보내는 게
공유된 분위기이다. 사례7도 페미니즘이 “리부트”된 이후에 자신이 속한 학과의 변화
를 느끼고 있었는데 본인이 입학했을 때와는 달리 학과 행사를 준비할 때 생활 규약
을 새로 만들거나 성폭력 내규를 내실화 하는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위의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의 여자 친구들에게 페미니즘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주제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 페미니스트야”라는 선언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한다.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나 또래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구성해가는 페미니스트 정체성은 고립과 배제를 감수하면서 만들어가고 지켜내야 하는 고된 과정으로만 경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당대에 논의되는 페미니즘 이슈들에 공감하고, 주변의 페미니스트 여성들과 이 이슈들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기도 하고, 서로 비슷한 언어를 공유하거나, 취향이 바뀌기도 하며, 탈코르셋과 같은 실천들을 일상 속에서 수행하거나, 시위에 나가 연대하거나 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느끼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이 대중화된 “시대의 분위기”를 만나 현실과 디지털 공간의 여러 관계망 속에서 지속적으로 페미니즘 담론들을 접하면서 페미니스트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 주변의 친구들과 일상 속에서 차별의 현실을 토로하면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페미니즘 담론들을 접하다가 페미니즘 동아리에 가입하고 페미니즘 공부를 시작하게 된 사례5가 말하듯이 “언제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정리가 잘 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페미니즘 담론을 접할 때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득 내가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13이 말하듯 전공의 특성, 학과의 분위기, 학교, 지역, 집단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감지하는 “시대의 분위기”에 대한 평가는 연구 참여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시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느끼거나 주변에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이 페미니즘이 ‘강성’인 학과에 소속되어 있거나, 학과에 페미니즘 관련 모임이 결성되어 있거나, 여초학파이거나 여대라는 특수성 등이 이들에게 페미니즘에 좀 더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실제 이런 공간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세간의 부정적인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에 비교적 덜 영향을 받고 있다.

사례1은 빨간약을 먹고 학과의 여학생들과 “이제는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는, 밤을 썰 수도 있는 주제”가 된 페미니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데에는 자신의 전공 특수성이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평가한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그는 수업 시간에 거의 “세뇌”하듯이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 배운다고 말했는데, 전공 수업에서의 강의 내용과 토론을 통해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꼭 논리적이고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과 내에서 여성복지가 유독 다른 분야에 비해 덜 중요하게 취급받고 있지만 최근에 그나마 “학생들의 목소리”로 여성복지 관련 수업이 신설되었다. 또한 같은 과안에서 비슷한 교육을 받아도 남성들과 여성들 간에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래도 “페미니즘을 아예 까거나” 하면 적어도 “넌 왜 여기 있어?” 라는 시선을 받을 정도의 환경은 된다고 평가한다.

소수 과가 아니라서 그런지 엄청 친한 친구들이 얼마 없고, 친한 친구들이 네 명 정도 있긴 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아예 안 해요. 페미니즘의 폐자도 안 꺼내고, (중략) 두 명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한 명은 아야, 애봐, 완전 페미다, 약간 이걸 듣고 나서 아 애네랑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 느낌이 들었어요. 걔네랑은 그래서 뭘 얘기를 못하겠고. (사례3)

그러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비교적 큰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속한 학내/학과 혹은 또래집단 내에 안티 페미니즘의 분위기가 있거나 페미니즘에 무관심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사례8은 학교에서 목격한 여성혐오 문화와 안티 페미니즘 분위기를 말해주었는데, 학내 커뮤니티에 몰카 관련 글이 올라오자 “응, 페미”라는 댓글이 달려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말도 못 꺼낸다고 말했다. 주변의 남자들이 말을 잘못 하면 “야, 미투 당해”라고 미투 운동을 조롱한다거나, “페미”라는 말을 조롱거리로 사용하는 등의 분위기가 엄존한다. 그래도 사례8은 여대에 다니는 페미니스트 친구와 자주 교류하면서 서로 의지를 하고 있고 트위터나 친구 학교의 에타 등을 통해 페미니즘 담론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다. 사례3은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가 남초라고 느끼고 있었고, 수업 시간에 데이트 폭력에 대해 말하는 자신을 옆에서 비웃는 등의 분위기를 통해 페미니즘에 관해 “대놓고 말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 대학교에서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자신에게 “애봐 완전 페미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그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페미니스트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

한편 지방 대학에 다니는 친구 혹은 가족의 경험을 들려준 사례1과 사례14는 지방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해주었는데, 여성학 수업이 아예 개설되지 않은 학교도 많고 관련 수업이 개설되었을 때 학교 에타에 “강의 끝나고 나오는 여자애들 얼굴을 기억

해라”는 식으로 글이 올라와서 분개한 에피소드를 공유해주었다. 어떤 곳에서는 여성학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메갈 이전에도 페미니스트 ‘낙인’은 존재했다. 메르스 갤러리의 미러링이 등장한 2015년 이전부터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호명하고 학내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던 사례2는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대학원을 입학하면 페미니스트임을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겁이 나서 다른 전공으로 입시를 치를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페미니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얘기하는 느낌을 받고 있었던 그는 “메갈이 터지”고 세상이 좀 변하고 자신에게도 지지기반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서 페미니스트로 ‘낙인’ 찍히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던 사례3은 인터넷 기사나 TV 등에서 페미니즘이 자주 얘기되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지금은 페미니즘이 “일반적인 게” 됐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두려움이 좀 줄었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담론이 폭증하면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호명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페미니즘을 긍정하고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등 “시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인식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많았다.

안티페미니즘 담론은 그 내용을 갱신해가면서 여전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페미니스트를 단일한 문제 집단으로 구성하기 위해 이들을 ‘낙인’ 찍을 구실과 멸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다. 여자 연예인이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로, “Girls Can do Anything” 문구가 적힌 휴대폰 케이스를 찍어 올렸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 밝히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었다고, 민우회 트윗을 리트윗 했다고 밥줄을 끊는 일도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론장에서 페미니스트들을 몰아내려는 시도이지만,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시도를 비웃으며 ‘내가 바로 메갈’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 또한 사회의 부정적인 페미니스트 인식을 잘 알고 있지만 여성들의 목소리와 집합적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드러나는 최근의 상황 속에서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변의 여성들과 더 많이 얘기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연대감을 느끼고, 현실의 “뺑은 사람”들은 “거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페미니즘이 대중화된 “시대의 분위기”와 페미니스트들의 연대가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내 “편”인 “메갈 년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신뢰와 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들에게 페미니스트 정체성의 무게와 의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미가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수해야 할 명예가 아니라, 차별에 저항하는 용기
이자 힘, 연대로 의미화 되고 있는 것이다.

3. 친밀한 관계에서 페미니스트로 살기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이 주로 가족이나 친구, 연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일상적인 관계와 관행들을 새롭게 보고 조직해야 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과제를 다룬다. 페미니즘을 알게 된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기존의 관계와 삶의 방식을 재의미화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 내 삶의 조건과 경험들을 페미니즘의 렌즈로 해석해보고 나의 사적인 경험들이 나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 공유하면서 느끼게 되는 연대감이 페미니즘 입문의 시작이라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관행들과 관계들은 새롭게 보일 뿐만 아니라 재/조정해야 할 과제로 부상한다. 페미니스트라는 이름표를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내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페미니스트로서의 지난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1) 가부장적 가족 경험과 페미니스트 딸

부모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기대되는 성인기 초기의 20대 페미니스트들에게 가족은 성찰과 갈등, 협상과 투쟁의 주요 장이 된다. 2019년인 현재 한국 사회의 20대들은 대부분 민주화의 주역으로 평가되는 386세대의 자식이자, 제도적 평등을 일궈낸 여성운동의 성과 위에서 자라 비교적 성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세대(이나영, 2016)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들려준 그들의 가족 경험은 이러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2015년 이후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담론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여성들의 가족 경험 또한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여전히 여성억압의 핵심적인 제도라는 비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비혼과 비출산 등을 선언하며 이른바 표준(정상)생애주기 과업을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규범적인 삶의 양식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아졌다(정승화·이지원, 2018). 연구 참여자들 또한 부모님 사이의 성별 노동 분업과 아버지의 가부장적 태도, 성별

화된 규율과 통제로 드러나는 딸의 지위에 문제제기하면서 그들의 가족 경험을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재의미화하고 있다.

(1) 어머니의 이중노동 부담과 가부장적 아버지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가 착종되어 있는 채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가장과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돌봄 전담자로서의 여성 주부, 그리고 그들의 자식으로 구성된 근대적 성별 분업에 기초한 핵가족 모델은 산업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로 작동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남성1인생계부양자모델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와해되었고, 대부분이 '전업주부'라는 지위는 중산층 이상에게나 가능한 계급적 현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가 정상화되는 와중에 '맞돌봄'의 정착은 오랫동안 지체되면서 대부분의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이중노동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배은경, 2009; 배은경, 2019).

보통 사건이라 불릴 정도로 인상적이고 강렬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뷰를 시작할 때 본인의 인생이 “평범”한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말로 운을 떼곤 한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뉘줄 때도 ‘평범’이라는 기준이 자주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평범한 가족’이라는 것은 가부장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부모와 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2세대 4인 가구라는 구성에서 자랐다. 소득 형태를 살펴보면 인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한 명의 연구 참여자를 제외하고 9명이 맞벌이 가정이고, 나머지 4명은 아버지의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고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외벌이 가정이다. 맞벌이 가정 중 2명의 연구 참여자 가정은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였는데 이들 부모님은 혼인 상태가 지속되는 내내 어머니가 주생계부양자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이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지만 가사와 양육 등의 각종 돌봄 노동은 거의 어머니가 수행하는 것이 아직도 “평범”하고 “당연”한, “이상적인 가족의 풍경”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 때는 잘못된 줄 모르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막 집안일, 여자들만 이렇게 전 부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전 부치러 가시고 근데 아빠는 집에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불만은 가졌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런 것이 이상적인 가족의 풍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은 못하고 그냥 저도 요리 돕기도 돕고. 그런 걸 하면서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돈 벌어오고. 이런 느낌. (문:엄마도 돈 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례8)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가 아닌 연구 참여자들도 전통적인 공사영역 분리에 따른 성별 분업을 비판하고 가족 내 젠더 규범과 문화의 변화가 여전히 더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아직도 아버지는 가장으로써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만 한다면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어머니는 가사, 양육뿐만 아니라 부계 중심의 가족 문화 속에서 제사 등의 가족 행사를 챙기는 일이나 간병 노동과 감정 노동에 이르기까지 아내이자 주부, 며느리라는 다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마가 하는 거죠. 그런 건. 아빠는 걀 돈만. 그니까 그런 직접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 발로 뛰는 거는 저랑 엄마랑 하고 마지막 컨펌이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냥 어느 정도 되는지 가격이 아빠가 컨펌하고 (중략) 저희를 구속하고 터치하는 것도 항상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 그렇게 하지 말라더라. 저희한테. 말하고. 아빠가 싫어할 거다. 아빠가 뭐라 할 걸? 이렇게? 엄마는 항상 그 중간자고. (사례13)

이처럼 여전히 전통적인 젠더 규범이 지배적인 가족 내에서 자란 연구 참여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자신의 아버지를 가부장적이라고 평가한다. 비교적 다정하고 좋은 아빠이지만 가족 내 돌봄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평범한 가부장’에서부터 ‘가부장의 전형’, ‘엄마남편’, ‘그냥 성인남자’, ‘마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에 대한 평가의 스펙트럼은 다양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말해준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자식에게 “명령”하거나, 자신이 보기엔 “민주적인” 대화를 “버르장머리 없는” 걸로 받아들이거나, “수직적인 대화방식”때문에 소통할 수 없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넘어 “애비를 무시”한다고, 혹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이기도 하다. 인터뷰를 통해 부모의 높은 학력과 소득 수준이 민주적인 가족 문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례1과 사례5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런 권위적이거나 폭력적인 태도가 '자격지심'에서 나온다고 평가하고 있다. 낮은 경제력이나 학력에서 비롯한 열등감을 바탕으로 가부장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것이 도전받거나 손상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폭력적으로 군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경제적인 권한이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쉽게 가족을 통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2)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는 가족

자신의 가족 경험에 더해 페미니즘 렌즈를 장착한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을 사회의 지배적인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의 부모는 딸들에게 성역할에서부터 '여자다운' 태도와 몸에 대한 규범을 훈육하고 섹슈얼리티를 통제한다. 사례3은 어려서부터 어디 발표할 자리가 있으면 “네가 나가서 해”보라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권장하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가사 일을 도와줄 것을 요청할 때 집안의 남자들은 제외하고 자연스럽게 자신만 호출했던 것을 기억한다. 사정상 아버지와 떨어져 살다가 초등학교 때 다시 같이 살게 된 사례8은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컸”는데 물 한 번 제 손으로 안 떠먹던 자신에게 “여자애가 아빠가 밥 해 달라 그러면 밥도 좀 해주고 물도 떠다주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러냐”는 아버지와 긴 시간 소통하지 않고 살았다. “여성처럼 행동”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자란 사례5 또한 “아빠 밥을 맨날 차려야” 했다. 가족 내에서 어머니가 수행하는 성별화된 노동이 딸에게도 당연한 역할로 요구되는 것이다. 반면 사례4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학업에 전념하라는 이유로 유예되던 성별화된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가 대학에 가는 순간 전환됐다고 말한다.

[친구들도] 다들 거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 같아요. 나 이렇게 일 잘하고 학생운동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집에 가는 순간 내가 딸로서 가사 일을 하기를 요구 받고 어떤 애교 부림을 요구 받고 가족과의 친밀성에 대한 요구. 너는 왜 니가 좋아하는 일은 하면서 가족은 안 돌봐? 너 그렇게 잘났어? 이런 얘기를 실제 듣는 거예요. 니가 그렇게 여성 인권 얘기하는데 너는 그래서 딸로써 뭐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근데 남자애들은

그런 걸 안 듣는 거죠. 남자애들은 아무리 학생회 그런 거 한답시고 돌아다닌다 한들 너 왜 가족을 챙기지 않아?에 대해서는 질문되지 않는. (중략) 너는 왜 딸로서 하지 않냐. 그래서 또 아들에게는 그런 기능성이라고 해야 할까 성공을 하면 되었다. 이잖아요. [고딩]학생 때까지는 요즘에 대입이 경쟁률이 치열한 과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여자애들한테 뭔가 고등학생 때부터 가사 일을 해라를 크게 요구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학업에 전념해라 너 서울대 가라 뭐 이런 거기서의 학업에서의 성공을 바라는데 대학 들어가는 순간 그게 이제 전환되어 버리는 거 같아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사례4)

서울 시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학창 시절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이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에 있어서는 자신의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한의 지원을 해주셨다고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교육을 많이 받거나 학업에 있어 부모님의 적극적 관리나 통제를 경험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 이외의 다른 것들은 유예하고 자발적으로 학업에 열중했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딸은 “명예아들”로 취급되거나 “니가 아들이었어야”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딸들은 아들과는 다르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으로는 ‘자식 된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졸업사진 찍을 때는 막 윌피스 입고, 그 화장 받고 막, 머리도 그때는 좀 단발이었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진이 이제 스티커처럼 하나씩 쪼그맣게 나눠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부모를 줬는데, 엄마 남편이 그걸 엄청 좋아하면서 자기 핸드폰 여기 요런 데다가 붙여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거 어디 가서 내 애인이라고 말해야겠다. 이러면서 진짜 역겹게 그런 걸 칭찬이라고 또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걸 너-무 진짜로 뿌듯해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딸 같은 딸을 얻었다고 생각하겠죠. (중략) 그때 니가 갑자기 그렇게 머리 찌르고 남자처럼 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충격 받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처럼 하니까 너무 얼마나 예쁘고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중략) 과거에도 막, 여자처럼 해라, 막 이런 말 엄청 많이 했고, 왜 이렇게 남자 같이 했냐, 여자처럼 해야지, 이러면서 그 사람은 항상 저한테, 애교를 부리고, 예쁘게 하고 다니고, 그니까, 그런 귀여운 딸처럼 행동할 것을 엄청 기대하고, 엄청 얘기했어요. (사례5)

딸들은 “애교”와 “썩썩함”, “살가움”과 “상냥”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받는다. 태권

도, 복싱과 같은 운동을 좋아하고 평소 짧은 머리에 치마를 싫어하는 사례5는 아버지로부터 예쁘게 꾸미고 애교를 부리는 귀여운 딸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평소와 다르게 한껏 꾸미고 찍은 졸업사진을 보고 뿌듯해하면서 “내 애인이라고 말해야겠다”고 말한 그의 아버지는 공부를 잘해서 받은 상장보다도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치는 모습을 더 좋아했다. 한편 성인이 된 딸들은 외모관리를 요구받고 음주, 귀가 시간, 여행, 연애 등 일상을 통제 당한다. 가족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독립한 연구 참여자들과는 다르게 부모와 동거하면서 통학을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의 간섭과 통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내가 아들이었으면, 12시 10분에 들어왔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아들이었으면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중략) 이성교제라든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라든지 살을 빼야 남자들이 좋아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중략) 내가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라고 했더니 니가 아들이면 니가 알아서 살아도 뭐라고 안 했겠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마아빠를 대할 때 나는 딸이니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중략) 딸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드리고 싶고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잘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도 학원 안 가고 좋은데 왔고, 되게 의젓하고 부모님하고 사이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잘 하고, 이랬는데 아직도 엄마아빠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가운 딸이었던 거죠. 살갑고 예쁘고 인기 많고 그런 딸. 그렇지만 문란하지는 않은 딸. 그 부분이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그것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성실하게, 내가 맡은 바를 내 주변의 누구보다도 괜찮은, 능력 있는 자식으로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아빠가 나한테 기대한 거는 그 부분이었겠지만 그 부분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나의 이런 성과에 더 많은 거를 요구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는. 아니라는 답이 나왔고, 그 때부터 네, 확실하게 얘기했죠. 나는 살 안 뽀 거고, 연애도 안 할 거고 (사례11)

어렸을 때도 친구 집에서 잔다 하면 다른 애들은 그냥 다 보내주는데 저는 항상 되게 허락받는데 오래 걸리고 (중략) 아빠도 되게 약간 남의 집 가서 자는 걸 안 좋아했던 게. (중략) 모르는 남자가 있는 집에 보내기 싫다고,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중략) 요즘도 그래요. 밖에 여자가 위험하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사례10)

부모님의 지원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든든한 자식”이고 싶었던 사례11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의젓하고 능력 있는 자식”으로 컸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자신한테 기대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살갑고 예쁘고 인기 많지만 문란하지는 않은 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에 들어와서 통금 시간을 지킬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자취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면서 살을 빼는 등 외모를 가꾸고 연애를 하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그가 아들이었으면 알아서 살게 뒀을 거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집에서 독립해서 자취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을 하고 있는 사례10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의 집에서 잔다고 하면 “모르는 남자가 있는 집에 보내기 싫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한 후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 남자를 조심해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을 수시로 들으면서 일상생활을 통제받고 있다.

아빠는 뭐만 하면 시집가서 이런 살림도 배워야 나중에 사랑 받는다 그리고 나중에 언니가 뭐 잘못했을 때 너 이러면 나중에 남편한테 맞고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여자면 좀 꾸밀 줄 알아야지 원피스 입어야지 근데 짧은 거 입으면 안 돼 너가 조심해야지. (사례14)

사례14의 친척들은 사촌 형들과는 다르게 어차피 시집갈 사촌 누나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예시롭게 한다. 그의 아버지는 딸들을 미래에 누군가의 아내가 될 존재로 전제하고 그들의 여성성을 훈육하고, 섹슈얼리티를 통제한다. 끊임없이 성적인 존재로 대상화하지만 성적 주체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자율권을 통제하는 부모는 딸들을 결혼하기 전까지 훈육하고 보호해야할 ‘미혼 여성’으로 취급한다(허윤, 2016). 가족 내에서 규범적인 여성성을 수행할 것을 노골적으로든 미묘한 방식으로든 강요받고 있다고 느끼는 연구 참여자들은 딸을 ‘여자’로 성별화하는 가족 내 젠더규범과 이를 요구하는 가족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거나, 대화와 설득을 시도하기도 하고, 완강하게 저항하기도 한다.

(3)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족의 영향력, 가부장적 가족에 대한 대처는 가족과의 경제적,

정서적, 공간적 결속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인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 14명 중 부모와 동거 중인 연구 참여자는 8명이고, 나머지 6명은 자취를 하고 있었다. 총 7명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었고,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인터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 참여자 6명은 본인의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모두 본인이 벌어서 충당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고 교육비는 가족이 지원해주는 연구 참여자도 있는 등 경제적 상황과 자립 정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대학 진학으로 가족에게서 공간적으로 독립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을 간섭받거나 통제당하지 않고 자율권을 갖게 되고 가족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가족에게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거나, 일정정도 경제적 자립을 이룬 연구 참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저는 엄마 아빠한테 경제적인 기대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정서적인 지원이 잘 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남자친구들은 다, (한숨) 다 약간 (웃음) 이상한 애들. 멍청하고 (중략)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를 기대를 해서 내 상황을 구제해 줄 거라던지, 뭐 나를 여기서부터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데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없다는 걸 제가 되게 어려웠을 때부터,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 같아요. (사례1)

자신이 “어떤 취약계층에도 다 해당”된다는 사례1은 “도와줄 수 없다”는 엄마의 선언을 듣고, 수능을 친 다음 주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다. 손에 딱 150만원을 쥐고 혼자 서울로 올라온 그는 대학 생활 내내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정서적 기대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에 돈을 주기도 하는 그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이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구제해줄 거라는 기대가 없다.

사례8은 맞벌이 가정의 외동딸로 보수적인 시가를 둔 “엄마랑은 친했”지만,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별로 하지 않고 자랐다. 물 떠오라고 명령해서 싸운 “안 친하”던 아빠도 “시대가 변하다보니 타협을 하신 건지 요즘은 물도 떠다주고” 그에게 뭘 잘 시키지도 않는다. 항상 혼자서도 잘 지내왔던 그는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데 잔소리 같은 가족과의 대화를 요즘도 피하고 있다. 사례9는 보수적이고 “인성 파탄난” 친가

의 며느리인 어머니를 “차분하고 온순”한 아버지가 지켜주거나 편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점이 불만이었지만 “아빠랑 친하”다. 애교를 강요하고 어렸을 때 남동생만 챙긴 엄마한테 서운한 기억도 있지만 부모님과 “사이는 좋”다.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아도 “돈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서 “돈에 집착”하지만 재수하는 동생의 학원 비용을 대줄 생각을 할 정도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부모님과 동거 중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 사례8과 사례9는 부모님과의 정서적 결속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성인이 된 후 부모님의 개입과 통제로 인한 갈등을 겪지는 않는다.

엄마 신세가 너무 안됐고, 왜냐면 엄마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으니까, 너무 그 아빠의 시스템에 너무 진짜 톱니바퀴처럼 너무 잘,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빠한테 경제적 지원을 다 받고 있고 제가 아빠랑 부딪히지 않는 이유도 일단 제가 독립하기 전까지 지원을 받고 싶어서, 제가 지원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 알바를 하더라도- 재료비 같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것도 다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일단 그냥 막연히 독립하고, 돈 생기면 돈이 뭐, 제가 성공을 하면은, 엄마가 혼자 살 집을 따로 사야지. 걔 그렇게만 막연히 생각하고. (중략) 엄마랑 싸우는 것도 어떤 감정이 있어서 싸우는 건데 아빠랑은 제가 그냥 별 감정이 없다보니까 그 싸울 그 열의가 안 생기는 거 있잖아요. (사례 13)

한편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연구 참여자에게 가족의 경제적 지원은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원인으로 작동한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취업경쟁 속에서 부모의 지원 없이 생존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은 가족 내 폭력을 나름의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독립을 유예하고 견뎌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사례13은 “가부장의 전형”인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으면서도 경제적 사정으로 이혼을 못하는 어머니랑 항상 따로 살고 싶었다. 대학 진학 이후 자취를 하게 된 그는 전공 특성상 교육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아버지와 “부딪히지 않”는다.

아빠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화를 많이 때렸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때렸는데. (중략) 옛날에는 엄마한테도 많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 보고 우린

아무래도 엄마랑 애착이 강한데 아빠가 엄마를 저렇게 공격한다고 이러니까 되게 반항심이 많이 생겼어요. (중략) 집을 나오기에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웃음). 최대한 붙어 살죠. (중략) 그냥 언젠가 독립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고. (중략) [학교 상담사]도 사실 독립하는 걸 제일 추천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적금이 5만원도 없는데.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나름대로 잘 피하고 다니고 있어요. 집에서 짧은 바지 안 입고, 그냥 아빠 옆에 있으면 그냥 방에서 안 나가고, 아빠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나름 그냥, 그렇다고 아빠를 되게 가시적으로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톡톡 대는 건 아니고 다른 집처럼 잘 지내고 있긴 해요. (사례14)

사례14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 눈 뒤집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인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아버지의 폭력은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만졌던 기억도 있는 사례14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에게 그 기억을 말하였고 지금은 집에서 짧은 바지는 안 입고 아버지를 피하는 등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런 경험 때문에 “페미니즘에 관심이 갔던 거 같”다고 말하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성차별적 발언에 즉각적으로 맞섰고, 크고 나서서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면 “싸움을 피하기엔 너무 억울”해서 “무서워서 힘이 안 들어가”더라도 같이 맞서 때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를 “애”취급하는 아버지에게 사례14의 저항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독립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적금이 5만원도 없고 취업 준비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집에 붙어 살” 수밖에 없다. 집에서 아버지를 매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례14는 사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힘들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마워하면서 “모순적”이지만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나아가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을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겪는 일로, 성추행 경험을 “저 시대 사람”이라 인식이 낮은 이유로 벌어진 일로 의미화하면서 고통을 상대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 가부장을 상대로 분투하는 페미니스트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

가부장적 가족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은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내 불평등한 역할 관계를 수용하거나 참는 대신 이에 문제제기한다. 갈등은 엄청난 감정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를 인식해도 자주 모른 척 넘겨버리거나 참거나 포기해버린다.

쉽게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가족의 경우 문제를 마주하고 갈등상황을 견뎌내는 것 뿐만 아니라 갈등을 초래하는 용기를 내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딸로서 가족 내 젠더 불평등에 문제제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가족 구성원들의 성차별적인 언행에 문제제기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자 노력하기도 하며, 노력 끝에 결국은 포기하기도 한다.

이들의 문제제기는 일차적으로 아버지를 향한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버릇없다거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의사소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례2와 사례6의 아버지는 비록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할지라도 딸들의 문제제기에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나도 대학교육을 받았고 대학에서 당연히 페미니즘 배웠다. 그러면서 나도 당연히 페미니즘에 당연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당연히 동의, 지지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지만 (중략) 아빠가 전혀 실행은 하지 않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아빠가 당연히 그렇지만 또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이런 느낌으로 약간 말을 하는 거예요. (중략) 전혀 뼈 속 깊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혀 이게 딸과의 대화에서 당연히 또 싸우기 싫고 또 이 아이 말에 동의를 해주고 싶으니 동의를 하는 거지 이게 전혀 이 말 뜻이 뭔지 모르는 느낌인 거예요. (중략)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빠는 이해를 못했지만 저는 끊임없이 말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물꼬를 튼 거죠. 2016년쯤에. (사례6)

사례6은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아버지와 “선처는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 싸운 적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와 페미니즘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해왔다. 시모의 병간호를 비롯해 가정 일을 어머니에게 다 일임하는 아버지에게 편지와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를 선물하고 나눈 대화에서 그의 아버지는 “페미니즘에 당연히 동의하고 지지한다”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 사례6이 보기에는 정작 실행은 하지 않고 있고, 딸과 싸우기 싫어서 동의를 해주는 거지 자신이 한 말을 “뼈 속 깊이” 이해는 못한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물꼬”를 튼 이후 아버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사례2는 언니와 엄마를 대신해 “아빠랑 싸워주”고 있다. “똑똑한 딸”인 자신과는 다르게 “착하

고 예쁜 딸”인 언니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언니와 엄마를 대표해서 내가 뭔가 말을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지만 언니나 엄마의 부탁을 받으면 당장 가족 단독방에 말하고 “페미니스트 딸한테 많이 배울게”라는 아버지의 사과로 일단락된다.

결혼이 여자한테 너무 손해고 애 낳으면 몸도 상하고 이랬더니 갑자기 아빠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결혼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로 하는 거고, 그 결실로 애가 나오는 건데 무슨 한쪽 성별의 손해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웃음) 격분을 하시면서. 너무 한쪽 성별에 편향된 얘기다. 라고 하시길래 아, 나는 여자니까 여자에 편향된 얘기를 하고, 실제로 결혼하고 애 낳으면 경력단절 되고 몸 상하는 거 맞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막 씩씩 대면서. 엄마가 옆에서 말리고 (웃음) 근데 그 때 느낌 자체가 저한테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냥 요즘에 젊은 여자애들이 되게 그런 거에 원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약간 육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갈 길이 멀었구나(웃음) (사례11)

외동딸인 사례11은 부모님과 굉장히 “끈끈하게 살”아 왔다. 대학에 입학한 후 귀가 시간, 다이어트, 연애 등에 있어 아버지의 개입과 통제를 경험하면서 부모님이 “나를 부정한다고 느”꼈고, 그들과 “함께하는 세상이 깨졌다”고 말한 그는 부모님과 정서적 유대가 강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식이 아니라 딸”이었다는 자각이 “충격”이고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통금을 10분 어겼다는 이유로 “육하”면서 화를 내는 아버지와 처음으로 싸웠던 그는 두 달 동안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권유로 없는 애교를 꾸며 내가며 화난 아버지를 달래야 했고, 1학년 내내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울증까지 겪었다. 여행을 다녀오고 페미니즘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된 사례11은 여행 이후 부모님에게 용기내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말하고, 다이어트도 연애도 안 한다고 선언하였다. 돈도 없고, 연을 끊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취는 불가능하지만 다이어트와 폭식을 반복하던 고통은 사라졌다. 이제는 아버지가 “살빼라”, “연애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정색하고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하고 자신의 결혼 얘기를 하는 아버지와 친척들 앞에서 “결혼이 여자한테 너무 손해”라고 말하며 논쟁을 하기도 한다.

아빠한테도 항상 할 말 하면서 맨날 서로 싸워요. 아빠가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지 하면 아빠나 입어라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치마를 입어야 되냐고 그러고 아빠는 맨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라고 위협하다고 하면 아 위협한 건 아는데 그러면 아빠도 그 사촌오빠들한테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여자 건들지 말라 말해본 적 있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긴 했어요. 근데 아빠는 이제 한 마디 하면 저희가 열 마디 할 거 아니까 이제 좀 눈치 보면서는 하긴 해요. (중략) 안 변하세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왜 안변하실까?) 아빠가 항상 생각이 계속 저희를 애처럼 봐요. 너네가 해봤자 아직 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저희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본인한테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례14)

사례12는 가족 내 성차별을 크게 경험하지는 않았다. 다만 맞벌이 하는 부모님의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아버지에게 “한동안 따”지기도 하고, 『맨박스』를 선물하는 등 아버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지금은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내가 더 많이 벌어요”니까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맨박스를 읽었더니 “나는 되게 좋은 아빠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아버지를 보고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따졌던 기간을 지나”다보니 말과 행동에 있어 딸의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이게 젠더 불평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요즘 애들은 별 걸 다 꼬치꼬치 따지고 든다”며 그저 “세대 갈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한다. 사례14가 보기에 그의 아버지는 “여자에 대한 인식이 낮은”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보수적인 친가 쪽 사람들과 아버지에게 “반항심”을 많이 가져왔다. 성차별적인 발언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와 즉각적으로 싸워왔고, 그도 그런 딸들의 눈치를 조금 보기는 하지만 딸들을 “아직 애”로 보기 때문에 딸들의 비판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변화하지도 않는다.

한편 엄마는 딸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엄마는 죄책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과도한 통제를 행사하는 어머니의 삶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가부장제의 “피해자”이자 “희생양”인 어머니를 연민하면서도 참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어머니를 답답해하거나, 원망하거나, 거리두기를 시작하기도 한다. 한편 어머니 편에 서서 아버지와 맞서

서 투쟁하기도 하는 딸들에게 고마워하거나 지지를 보내는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이 사회의 젠더화된 규범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한다.

전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엄마아빠가 이혼을 하던지. 이혼을 안 하나까 내가 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아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중략) 계속 엄마랑 저랑 동일시 돼가지고, 그니까 제가 끌어안게 되는. 엄마의 스트레스를. 똑같이 느끼니까. 그게 처음에는 엄마한테 이입이 되가지고 너무 아빠가 싫구 엄마가 불쌍하고 정말 신세 어쩔까, 근데 이게 너무 소모적이고 저를 진짜 갇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진짜 그걸 좀 털어내고 싶었어요. (사례13)

아버지와의 불화에도 이혼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불쌍한 “신세”에 동일시하면서 오랜 시간 괴로워한 사례13은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이 소모적인 감정 노동을 그만하고 싶어 한다. 딸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집착”하는 어머니와 한 번 크게 싸우고 “속내”를 얘기한 이후로 엄마도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 생활을 하는 등 점차 나아지고 있다. 한편 사례6과 사례11은 부녀 사이의 갈등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결국 어머니가 맡게 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사례10은 아빠보다 엄마가 더 보수적이고 엄격하다. 그의 어머니는 딸의 외모와 섹슈얼리티에 세세하게 개입하고 통제하는데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다니는 것보다 “나는 너가 예쁜 게 더 좋다”고 말할 정도로 외모를 중요하게 여긴다. 딸의 몸에 동일시하면서 지배하는 어머니의 통제는 음주와 자취를 금지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그런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사례10은 최근에는 어머니의 삶이 어떠했기에 지금의 엄마가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항상 아빠 편”이었는데 요즘은 “좋은 아빠라고 해서 항상 좋은 남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희 엄마는 그 생각이 되게 강해요. 결혼하면 여자는 인생이 망가진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본인도 좀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고, 그리고 저의 주변에 뭐 이모들도 그렇고, 사촌언니들도 그렇고, 다, 남편이 이제, 거지같은 부분이 있어서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니까 그런 걸 보면,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가 더 손해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고, 그리고 엄마는 저를 이제 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동일시까지는 아닌데, 자기가 못했던 거를 해주는 나의 딸,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엄마한테 제

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의 성공과 이런 게. 근데 그런 딸이, 한국에서, 일반적인 그런 가정에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사는 굉장히 많은 여자들처럼 막 착취당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사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막 결혼 안 한다고 맨날 이러면은, 한다고 하거나 말라고 이러면서, 제발 진짜 자기는 너무 진지하게 결혼 그냥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사례5)

사례5는 어린 시절 폭력적으로 자신을 훈육했던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가족에게서 도망 나오기 위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자신을 낳은 어머니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제스처”를 취하면 동생과 함께 “서포트”를 해주고 “사건을 해결할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선”에서 “참고 넘어가자”고 하고 아버지에게 맞춰주는 것이 답답하다. 그래도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한국의 일반적인 남자와 결혼해서 많은 여자들처럼 착취당하면서 사는 꼴은 보기 싫으니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페미니스트 딸들은 사회적 사건에 대한 논평이나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중에 드러나는 가족의 성차별적 발언과 인식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본인에게 강요되는 규범적 여성성 수행 요구에 저항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투쟁하는 많은 부분이 어머니가 수행하는 다중의 노동 부담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아버지를 가사를 비롯한 돌봄 노동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어머니들은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딸들의 노력에 “고마워 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지만 “시켜도 안” 하는 남편을 “포기”했으니 “굳이 다투려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한다. 결국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포기”한 사례 12는 “엄마가 피곤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있”다.

엄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가족 역학 안에서 변화가 나타난 시기가 미투 운동 이렇게 워낙 커지면서 홍준표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서 (중략) 내가 생각했던 거만큼 세상이 뭔가 살기가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감각을 갖게 되었더라고요. 저한테도 막 갑자기 낙태죄 폐지운동 이런 기사를 자기가 봤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할머니가 전화해가지고 홍준표 뽑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딸 둘 가진 엄마한테 홍준표를 뽑으라고 하시냐 (중략)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 하니까 여전히 저랑 안 맞는 지점들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조금 확실히 바뀌어간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례4)

여성혐오적인 그런 게 있었거든요. (중략) 엄마도 기대를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빠 욕을 엄청 하거든요. 엄마한테. 왜냐면 명절에 엄마만 일하고 그게 너무 싫어서 엄마도 아빠를 비난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빠가 일도 안 도와주고 아빠가 외가에 가면 입도 뺑긋 안하고 엄청 얘기를 하고. 제가 아빠를 막 시키고 이러니까 어, 되게 그 약간 생각이 변하고 계신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여성혐오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예전에는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거의 없는데. 요즘에는 저한테 먼저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또 무슨 짓을 했다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여자로 살기 너무 힘들지 않나?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응원이 많이 됐어요. (사례11)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가부장제의 “희생양”인 어머니들도 젠더 의식이 높지는 않다. 사례6과 사례11은 한 여자연예인이 겪은 데이트 폭력 사건을 두고 피해자인 여자 연예인을 비난하거나, 설거지를 매일 하는 딸을 앞에 두고 이웃집 아들이 설거지 몇 번 한 것을 칭찬하는 자신의 어머니들도 “여성혐오적인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한다. 사례4와 사례1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딸들의 영향으로 어머니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에서 모성을 수행하는 어머니들이 딸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딸이 어머니를 볼 때만큼이나 양가적이다.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 내 노동을 전담하고, 딸들에게 외모 관리와 살가움을 요구하는 등 연구 참여자들의 어머니들 역시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화된 규범들을 내면화하고 수행하면서 살아온 존재들이다. 이들은 딸들 세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규범을 깨지 않는 선”에서 “똑똑하고” “당당”했으면 하고 바란다.

그니깐 사납배기처럼 다른 페미니스트처럼 슷컷하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발표 잘하고 pt 잘하고 당당한 여성 이 정도 수준이지 규범을 깨지 않는 선에서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선에서의 그게 있고 거기를 벗어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중략) 양가적인 거죠. 그렇지만 또 되게 똑똑하고 여장부라고 생각하면서도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는 계속 아직 사회경험을 많이 안 해봐서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보고 그래서 좀 성숙이 덜 됐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사례2)

“큰소리”와 “분란”은 피하고 “저주는 게 이기는 거”라는 지론을 갖고 계신 “인품 좋

은” 사례2의 어머니는 논쟁을 회피하지 않는 그의 태도를 아직 사회 경험이 많이 없어서 좀 덜 성숙한 것으로 평가한다. 사례6은 자신의 어머니가 규범적 여성성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딸의 문제제기를 몇 년 지나 취업하고 직장을 다니면 달라질 “치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어머니에게는 “내가 페미니즘을 만난 게 방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하는 사례6은 “세상에 화가 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알겠지만 “표현 방식이 과격하다”, “말투가 너무 감정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살면 니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념적으로 ‘성평등’이 당연한 세상에서 딸들은 진짜 세상은 그렇지 않으며, 성별화된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암시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차적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는 사회에서 자녀의 실패는 곧잘 어머니의 실패로 연결되곤 한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면 그게 마치 내 탓인 듯 자책하거나 자식을 비난하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리 낯선 것도 아니다. 불평등한 젠더 규범을 거부하는 페미니스트 딸과 가부장제 사회에서 규범적 기준을 자녀에게 교육시키고 ‘정상성’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훈육하는 어머니 사이에 다른 삶과 관계 양식은 상상되기 힘들다.

사례6은 가족 내에서 “소용돌이”를 만드는 자신을 보고 “동요”하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일부러 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가 보기에 갈등의 진원지는 가족 내 차별이지, 차별에 문제제기하는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라 아메드가 말하듯 우리는 성차별이란 용어를 알기도 전에 성차별을 만난다. 페미니즘의 언어를 획득한 페미니스트들이 문제들에 이름을 붙일 때, 주변에서는 이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지목한다. 때문에 성차별을 겪는 일보다 알아차리는 게 더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성차별을 인식하고 이에 문제제기하기 시작하는 페미니스트는 ‘평지풍파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잘못을 한 사람이 결국 자신이 되어버리는 전도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다. 페미니스트 되기의 여정이 감수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여정이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성차별적 문화에 동참함으로써 타협을 하기도 한다. 제도에 적응하고 동참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학습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가 가지는 불행에 대한 두려움은 규범적 삶에서 이탈하지 말고 안착하라는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규범이 제시하는 삶의 방향성이 행복을 향한 방향일 것이라는 허위의식을 거부하는 페미니스트

들은 방향전환을 통해 새로운 길을 낼 수 있고, 이 때 페미니스트들은 새로운 삶의 지지체계와 동력 구축을 필요로 한다(Ahmed, 2017: 67-122).

2) 이성애 연애와 섹슈얼리티

연구참여자 14명 중 10명이 연애를 한 경험이 있었고, 인터뷰 당시에 연애 중인 연구 참여자는 6명으로, 이중 한 명을 제외한 5명이 이성애 연애를 하고 있었다. 이전 연애에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나 스토킹, 임신과 낙태, 불법촬영 문제 등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성애 연애와 섹슈얼리티는 욕망이나 탐색의 영역이기보다는 위험과 안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남자와 연애를 하지 않거나, 만나더라도 정말 잘 아는 남자가 아니면 소개시켜주거나 소개받지 않는 방식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임신과 불법 촬영에 대한 두려움은 섹스에 대한 거부나 기피, 철저한 피임 관리 등으로 나타난다. 연애 파트너로서의 남성에 대한 불신과 안전에 대한 불안, 외모 관리 등을 비롯하여 연애 관계에서 나타나는 젠더화된 문화적 실천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두 명을 제외하고는 크게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연애에 몰입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소수의 연구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연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한 크게 찾아보기는 힘들었는데 몇몇은 연애 관계를 그렇게 효용이 크지 않은 귀찮은 것으로 인식하거나 소비문화생활의 파트너 정도로 의미화하고 있다.

(1) 위험으로 인식되는 섹슈얼리티와 안전한 연애

연애 경험이 있는 10명 중 3명은 이전 연애 관계에서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폭력과 사랑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남성중심적 연애 관계 속에서 소문, '가스라이팅'¹⁶⁾, 성폭력 등의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문제라고 느끼면서도 헤어지지

16) 가스라이팅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한 말로,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못하고 연애를 지속했던 기간이 있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알게 된 후에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고, 지금이라면 다르게 대응했을 거라고 말한다.

제가 입는 옷, 저는 이제 간헐적 흡연잔데, 그것도 되게 싫어하고, 술 먹는 것도 싫어하고, 저를 싫어했어요. 저를 싫어했는데 왜 만났나 몰라. 너가 이거하는 것도 싫고, 저거하는 것도 싫고 (중략) 그 당시에 엄청 그 연애에 몰입을 많이 했던 상텐 거예요. 저는 그 전 연애에서 그렇게 막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도, 애는 그걸 개의치 않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당시엔 빨간약을 먹기 전(웃음) 그래서 되게 의지를 많이 했는데, 인제 항상 뭔가 막 이런 주제가 나오면 말도 잘 안통하고, 또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느낌도 안 들고, 그치만 만나야 하니까 만나는 느낌? 좋아했겠쥬, 제가 개를. (중략) 제가 아, 이진 아니더라고 계속 말했는데도, [첫 성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뒤로 저는 개랑 헤어졌어야 되는데, 스스로 아 나는 버린 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략) 나는 애랑 뭔가 그 순간에서도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그리고 뭐 강간, 성폭행, 이런 얘기가 꼭 사실 눈빛으로도 되고, 말로도 되는 거고, 꼭 물리적으로 누가 이렇게 때리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중략) 그거를 그때 같으면 니가 나한테 한 건 성폭력이나까 너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고 말했겠지만 그때는 빨간약 먹기 전? (웃음) (중략) 만날 때 힘들었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으려고 뭔가 자기최면을 건거 같아요. 그래도 애는 날 좋아하지, 왜냐면 개가 그랬어요, 자기가 왜 이러는 거 같냐는 거예요, 너를 좋아하니까 그렇대요, 참 사람이 이런 거 보면 무지가 죄라고. (사례1)

사례1은 지난 두 번의 연애에서 성폭력을 경험하였다. 멋모르는 신입생 때 성적요구를 많이 했던 전 남자 친구는 술자리에서 거짓 소문을 내고 군대로 사라져버렸다. 지금이라면 증거를 모아서 고소했을 거라는 그는 당시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소문이 “사실”로 번지면서 술자리에서 성적으로 “소비”되었다. 두 번째 연애에서는 첫 ‘성관계’를 강간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나는 버린 몸”라는 생각에 “너를 좋아하니까” 이룬다는 남자친구와 2년 가까이 연애 관계를 이어나갔다.

사례13은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려주지는 않았지만 성격이 “한남”인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고 폭력적으로 굴었는데 본인도 당시에 “자아분열이 너무 심해”서 만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못 헤어졌었다고 한다. 그 때는 그 사람도 페미니스트인 줄 알았다는 사례13은 그로 인해 “남자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자신을 “메갈”이라고 소개한 여성과 연애를 이어나가

고 있다.

그러니까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중략) 소문을 퍼트려서 다른 학교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고등학교 다 붙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내에서 놀더라도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누가 나를 다 아는 것 같고. (중략) 개가 너 오늘 영화보고 어디에서 밥 먹고 이거를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영화를 보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 했더니 누가 지나가면서 너 봤대. 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애들이 입을 모아서 개한테 전달을 해주면 개가 아, 애가 뭐했고 이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때 진짜 소름끼쳤어요. (사례9)

사례9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배려랍시고 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싫다”고 말하면 화를 내면서 “내가 좋아서 해주는 거니까 너는 그냥 받기만 해”라고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 수차례의 고백과 거절 끝에 한 번 만나주라는 “주변의 성화”에 “더 차기는 미안”해서 만났던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헤어지고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두 사람이 사귄 걸 전교생이 다 알 정도로 “입이 굉장히 가”버렸던 그는 사귀는 내내 주변의 친구들의 눈과 입을 통해 사례9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와서 어딜 가도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고 “공포심”을 갖게 만들었다,

삽입 자체 남성 중심으로 된 그런 성행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느끼지도 못하는 데 임신의 위험도 있고 콘돔에 구멍 뚫는 애들도 있는데. 몰카 찍힐 위험도 엄청 많잖아요. (중략) 할 때 어디서 하지? 부터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 그 사람 집? 아니면 모텔? 진짜 모텔 아니면 그럴 텐데. 모텔에서 가면 몰카 찍히면 어떡하지?부터 생각을 해서 (중략) 저희 집도 좀 기분이 그런 거예요, 핸드폰 여기서도 찍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자체가 불법촬영의 경로가 되는 것도 싫어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남자와 섹스하기 싫다. (중략) 상호간 좋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남자만 넣고 좋고 끝나고 이러는데. 제 주변 경험담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들어봐도 진짜 여자 애들이 좋았던 적이 없고, 그거의 위험성까지 부담하면서 남자들 성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는가. 그냥 여자는 그 분위기가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분위기가 좋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런 둘만의 시간과 공간 이런 게 좋으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못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다고도 하고(웃음). 정말 무슨 자신감인지.

(사례8)

연애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도 연애를 했을 때 뒤따를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주변 친구에게 지인의 “납치사건”이나 헤어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사례8은 “최대한 이상한 남자는 만나지 말”자는 “주의”이다. 소개팅을 통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정말 아는 사람 아니면” 소개 시켜주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8은 섹스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연애 중이고 성관계를 가져 본 적이 없는 그는 삽입 자체가 남성 중심인 것도 문제지만 콘돔에 구멍 뚫는 애들도 있어 임신과 낙태의 위험도 있으며, 몰카 찍힐 위험도 많기 때문에 “불법 촬영의 경로”가 되는 “남자와의 섹스”는 하기 싫다고 말한다. 이런 “위험성까지 부담하면서 남자들의 성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희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가 제가 너무 좋다고, 헤어지기 싫다고 아 그냥 확 임신해버릴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고, 미친 거 아니야. (중략) 그리고 되게 야동 보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때는 저도 약간 남자들 원래 야동 많이 보지 이랬는데 또 한국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야동을, 정상적인 야동이 많지 않잖아요. (중략) 진짜 임신 할까봐 무서워요 저는. 해본 애들은 다 콘돔 끼면 걱정 없다고 다들 그러고 많이 해보면 그런 걱정 없어진다 하는데도 저는 안 해봤으니까 그게 너무 무섭고 (사례10)

현재 연애 중인 사례14는 피임약을 복용하고 콘돔도 사용하는 이중피임을 하고 있다. 임신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 남자 친구가 보여준 “야동”을 보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냐고 했던 사례10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못해서 임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자가 “부담”을 안아야 하는 성관계를 “감수”하는 게 싫다. 최근에는 자신에게 애정표현이랍시고 “그냥 확 임신해버릴까”라고 했던 전 남자친구가 “나 몰래 찍은 사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이성애 연애 관계에서의 섹슈얼리티는 욕망이나 탐색의 영역이기보다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낙태죄를 비롯하여 데이트 폭력과 불법촬영, 스토킹 등의 젠더폭력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안전이별’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문제나 ‘경찰이라니 가해자인줄’과 같은 해시

태그 운동 등을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법적 구제나 제도적 대응이 미비한 것을 넘어 성차별적이라는 점이 디지털 공간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연애 관계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연애와 섹슈얼리티가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자신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안전의 문제가 되고 있다.

(2) '한남'과 연애하는 페미니스트

사례10은 사회의 권력이 남성에게 있는 한 연인 관계에서도 위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없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남자는 여자한테 데이트할 때 꽃을 사다준다든지 그럼 여자는 그 꽃을 받고 좋아해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니까 내가 좀 더 예쁜 모습이어야 될 것 같은 죄책감이 계속 들고,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살갑게 말해야 될 것 같고, 그게 그 둘이 좋아하는 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싫어서 네,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중략) 만약에 그거를 깨부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남자가 있으면 연애를 하겠죠. (사례10)

아직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례10이 이념형으로 이해하고 있는 '젠더화된 연애 각본'은 몇몇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담과 많이 닮아 있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외모 관리를 비롯한 여성성의 수행은 스스로 욕망하는 것이기도 하고 강요되는 것이기도 하고 강박으로 인해 벗어나기 힘든 것이기도 하다.

과팅 같은 거나 그런 건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낮을 가려서 거기 서는 이려고(머리 뒤로 넘기는 흉내) 있고 하하하 이려고 있으니까 엄청 이러면서 얘기 하는데, 그런 이미지만 보고 사귀니까 이제 개도 저한테 환상이 있는 거예요, 여자애는 이렇겠지. (중략) 너무 환상을 갖고, 외모로만 보니까 저한테 환상을 가져서 저를 그거에 끼워 맞추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원래는 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 본 성격을 조금 드러내면 이상해하고, 원래 막 그 규정하는 여성스러움이라는 거리가 먼, 엄청 시끄럽고 목소리도 엄청 크고 이런 성격인데 그걸 조금 보여주면 이상해하니까, 저

는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스무살 때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헤어졌는데(웃음) (사례8)

연애할 때 “내가 여자다”라는 감각을 느끼는 사례4는 남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여성성을 부각할 것 없이 털털해지려고 한다면, 연애할 때나 썸 탈 때는 “스스로 여성적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는데 이 때 사례4가 말하는 “여성적”인 것은 외모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다. 여자는 다 노래를 잘 하는 줄 알았다고 하거나 자신의 빠듯 글씨와 큰 목소리를 이상해하던 전 남자친구 앞에서 조용히 얘기하고, 수줍은 척 하고, 치마를 입고 나갔던 사례8은 외모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여성스러움이라는 환상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인터뷰 당시 막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사례8이 가장 “짜증”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꾸며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강박관념”이다.

그 때 개가 저의 자존감이었어요. 그니깐 이렇게 똥똥해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좋아해주는 게 다른 일반 연애와는 차원이 다르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 (중략) 너는 왜 이렇게 너를 살로만 재단해 나는 세상에서 진짜 너가 너무 아름답고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너를 사랑할거야 이렇게 계속 말은 하지만 어쨌든 개의 이상형은 마른 여자인 거잖아요. (중략) 살찐 여자들은 안 예쁘고 뭐 엄청 자기네 과에도 성격 좋아도 못생긴 누나 있어서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하고 누구 만나고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적용 안되는 게 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개는 이상형이 내가 아닌데도 나를 너무 좋아하니깐 나를 좋아해 이랬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략) 근데 어떻게 맨날 모든 여자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말을 듣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나 싶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사랑의 증표로 생각했어요. 그게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되게 이중적이에요. (사례2)

사례2와 사례9는 똥똥하거나 꾸미지 않아도 내가 가치 있다는 연애 상대의 인정을 통해 “자존감”을 구성한 경험이 있다. 똥똥했었던 자신의 “자존감”이었다는 사례2의 전 남자친구는 여성의 몸과 외모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있고 그 잣대로 모든 여자를 매일 평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잣대가 유일하게 자신한테만 적용이 안 되니 그것이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례2는 끊임없이 다른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던 전 남자친구의 그 “엄격한 잣대”가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혐오하게 한 바로 그 잣대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중이다.

일단, 자존감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되게 혼자서는 높이기 되게 힘든 건데, 저는 제가 자존감이 낮은지도 몰랐거든요. (중략)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게, 그것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는. 그래서, 아, 정말 좋아하면 내가 화장을 하든 빨개 벗고 있든 뭘 하든, 그냥 나 자체를 애는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내가 그거에 집착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딱 그런 연애편이 딱 정립이 됐어요. 아, 진짜 좋아하면 이래야지. 라는 게 생겼어요. (사례9)

사례9는 자신의 “꾸며진 모습을 좋아했던 것 같은” 전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화장, 의상에서부터 알바 후 땀 냄새까지 신경을 쓰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의 남자친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한다. 덕분에 이제는 꾸미는데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고, 자신에게 필요한 배려를 해주는 남자친구와의 연애로 “자존감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도 많아졌다는 사례9에게 연애는 성장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례1이 전해주듯 “내 남자친구가 한남인” 것이 요즘 가장 큰 고민이라는 여자 친구들은 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헛소리나 뻑뻑해”대는 남자친구랑 다 “똑같은 걸로 싸우고, 똑같은 걸로 헤어”진다. 그나마 멸절한 “소수 20%”의 남자 중에서 여러 조건이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하니 여자들이 비혼, 비출산, 비연애 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냐는 사례9의 말처럼 직접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디지털 공간과 주변 지인들의 경험담으로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페미니스트인 연구 참여자들은 이성애 연애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웃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살짝 힘들어요. 고민이 많아요. (중략) 친구랑 둘이서 결혼할 생각도 없고 이런 플로우가 너무,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못 만나겠다. 우리는 둘이 그냥 지지고 볶고 맛있는 거나 사먹고 놀자. 그리고 이런 거나 응원하자. 지지하고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러자. 했는데 제가 사겨버려가지고. (사례8)

사례8은 4B운동에 찬성하는 페미니스트인 자신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요즘 가장 큰 고민이다. 그러나 비혼, 비출산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높은 동의 수준과 견주어봤을 때 연애는 강력한 욕망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기피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지난 연애에서 경험한 폭력을 얘기해줬던 사례1과 사례9, 사례13 모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면 다르게 대응했을 거라는 말을 미루어 볼 때 페미니스트인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과 다르게 연애 관계에서는 비교적 자율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페미니즘을 접하고 부당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점도 한 몫 한다.

인터뷰 당시에 이성애 연애 중이었던 연구 참여자 5명 중 이제 막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사례8을 제외하고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페미니즘 관련한 주제를 남자친구에게 설명하거나 논쟁하거나 싸우기도 하고, 페미니즘 수업을 같이 듣기도 한다.

저는 그런 것도 그냥 다 얘기하거든요. 내 입장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정말 다 가감 없이 얘기하거든요. (중략)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한테 제가 아니야, 너도 똑같애. 이라고 다짜고짜 헤어질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내가 애를 좋아하고 애도 나를 좋아하고 어쨌든 계속 만날 거면, 뭐라도 내가 말해주고, 어떻게든 내가 붙들고 너라도 내가 사람 만들겠다. 진짜 너만은 내가 사람 만들겠다. 계속 얘기하고. (사례9)

사례9는 비록 “신생아를 키우는 느낌”이지만 “너만은 내가 사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공중 화장실의 구멍 난 사진을 찍어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보여주기도 하고 “효도는 셀프”이며 임신은 “창조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가감 없이 얘기한다.

남자친구가 그랬어요, ‘어? 너 페미니즘 그런 거 해?’ 이랬는데 약간 뭐지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른 여자 애도 한단데 너도 그거 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한 번 궁금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너무 후회되는. 그래서 그 사건, 그 때 이후로 자꾸 남자친구한테 페미니즘을 숨겼다가 갑자기 너무 애를 계도하고 싶은 거예요. (중략) 난 페미니즘 공부하고 있는데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남자친구를 사귀다? 하면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했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실패했죠. (중략) 개가 너도 남혐 같은 거 해? 이래가지고 제가 핫김에 해. 이랬거든요. 근데 개가 나는 너가 세상을 바꾸는 멋진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남혐을 하다니 정말 실망이다. 이러면서 약간 그 때는 크게 싸웠었는데. 뭔가 지금 아직 사귀면서도 그냥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건가? 싫기도 하고. 근데 이렇다고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헤어진다고 하면 그럼 나는 앞으로 여자들끼리만 만나야 하는 건가.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지? 우리끼리만 얘기해서. (사례14)

사례14는 페미니스트인 자신이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게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1년 동안 남자친구를 “계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헤어진다면 “나는 앞으로 여자들끼리만 만나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다. 사례14와 사례3은 남자친구를 상대로 “남혐”이나 “이퀄리즘”과 같은 최근 유행하는 안티페미니즘 담론을 반박하고 페미니즘을 옹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례3은 남자친구랑 “그 주제”는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안하다가 한 번 꺼내고 나서부터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의 남성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남자친구와 페미니즘 수업도 같이 들었는데 어느 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와선 “한국의 페미니즘이 너무 과격”하고 “변질”되었다며, “나는 이퀄리스트가 더 맞는 거 같다”는 남자친구와 싸움을 하기도 했다. 사례3은 남자친구와 논쟁할 때 대답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거나, 말을 하면 다른 여자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 같아서 여전히 페미니즘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건 힘들다고 한다.

이성애 연애 각본에 따른 여성성 수행과 폭력과 사랑의 경계가 모호한 남성중심적 연애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연애 관계에서의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고, 이성인 연인과 각개전투하면서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협상해나가고 있다.

4. 페미니즘'들' 속에서 '나의 페미니즘' 만들기

4장에서는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페미니즘'들'을 접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페미니즘을 구성해가는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혼란과 갈등에 주목한다. 안티 페미니즘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물화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페미니스트 내부의 차이 또한 마주해야 하는 곤경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긴장과 균열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담론적 바탕과 사회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탐구해본다.

1) 페미니즘'들'

2015년 이후 이슈화된 사회적 사건들과 이를 둘러싼 반응들을 보고 연구 참여자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 사회에 여성 억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공론장에 기입되기 위해서는 여성들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대 페미니스트들은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한국의 페미니즘'을 악마화하는 안티페미니즘과 여성혐오를 디지털 공간과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여초카페, 인스타그램, 에타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전개되는 페미니즘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갈등을 민감하게 인식한다. 최근 이들이 주로 목격하고 고민하는 논란과 갈등은 페미니즘이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로 일반화하면서 남성을 아예 배제하는 "남성혐오"로 가고 있다는 비판과 페미니스트들 내부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와 의제, 실천 방식 등을 둘러싸고 "진영"을 나누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었다.

페미니즘을 세계와 자신의 삶에 대한 정확한 설명력을 갖춘 언어이자, 성차별에 맞선 저항과 변화를 위한 실천으로서 이해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즘은 무엇에

맞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하는 운동으로 구성되고 있을까?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이자, 페미니스트인 이들에게 '여성'이란 것은 그리고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절에서는 안티 페미니즘에 맞서 성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을 강변하고 페미니즘을 '옹호'해야 하는 위치에서 자신의 페미니즘을 구성하고 있는 20대 페미니스트들이 "한 마음"인 줄 알았던 페미니스트들 간의 차이 또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면서 겪는 곤경에 주목한다. 안티 페미니즘이 추동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물화된 인식과 페미니스트 내부의 차이들을 다룸에 있어 이들이 경험하는 혼란과 균열을 점검하고 이 곤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바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남성에 대한 불신과 변화에 관한 전망

메갈리아의 미러링 실천이 가져온 파장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동안 디지털 공간에서 별 문제의식 없이 지속되어 온 여성에 대한 멸시, 비하, 공격을 패러디하며 남성들에게 그대로 돌려준 메갈리아의 미러링은 만연한 여성 혐오를 폭로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남성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기보다 오히려 여성들을 '각성'시킨 '의식화'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미러링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냐는 논의는 뒤로 밀려난 듯 보이지만 구조의 문제를 인격화하고, 그에 대한 반격(Backlash)이 문제의 본질을 가려버리는 역효과를 가지고 있으니 지속가능한 운동 방식은 아니라는 평이, 존중과 인정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제안이 제시되기도 한다(김수진, 2016; 천정환, 2016). 미러링과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격은 '한국의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로, 페미니스트들은 '메갈'로 통칭하면서 악마화하는 과정을 통해 '사상 검증'을 요구하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현실에서의 폭력과 해고 등의 위협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피해 경험의 공통성으로 구성되는 집단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제기되고 있다. 파-가해의 이분법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순수한 피해자로 구성하고,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모든 여성은 순수한 피해자라는 극히 단순화된 집단 정체성을 통해 여성 억압이 어떤 억압보다 더 큰 상처이자 고통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여성 개인 간 혹은 여성 집단 내에 존재하는 차이를 지우고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는 논의가 그것이다(이현재, 2017; 권김현영 외, 2018). 이런 상황 속에서 페미니스트인 연

구 참여자들에게 ‘여성’과 ‘남성’은 그리고 변화를 위한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을까?

연구 참여자들은 성차별이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본다. 모든 여성이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여성이라고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지역, 경제적 상황, 성적 지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교차성을 체화하고 있는 이들은 또한 모든 남성이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라고 보지만, 개별 남성이 모두 가해자인 것은 아니고, 남성들도 사회 구조 속에서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페미니즘 운동이 남성을 설득하며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성차별적 사회 구조, 남성이 가해자인 수많은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은 몇몇 연구 참여자에게 페미니즘 운동이 가부장제의 수혜자인 남성이 아니라 피해의 당사자인 여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남자가 본인이 페미니스트고 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고 노력을 해. 라는 말을 한들. 이게 17년쯤에 저희 동기가 한 말인데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한남이다. 지가 페미니스트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는 평생으로서 남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살아왔고, 아들로써 혜택을 받았고 그게 취업뿐만 아니라 대학교부터 모든 것에서 본인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혜택을 누리고 살아온 이상 한남이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사실 없잖아요. (사례6)

사례6에게 남성은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수혜자다. 자신에게는 여성들의 “행복”, “부흥”이 중요하게 와 닿는다고 말하는 사례6은 남성은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태어난 이상 혜택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한들, 그냥 “한남”일 수밖에 없다는 친구의 의견이 반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남성들도 기득권자로서 개인이 경험해야 됐던 차별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그렇지만 일단, 이 문제에서는 남성은 수혜자고 여성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성이 당사자로 가장 먼저 우선권을 가져야, 발언의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남성의 발언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죠. (사례11)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피해자인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가 우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사례11은 “남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낙태죄 시위에 남성도 참여 가능해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는 남성은 페미니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페미니즘은 여성의 실천을 통해 여성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여성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의식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페미니즘이 던지는 아젠다에 동의하는 남성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페미니스트 앨라이(Alley)”라고 부르자는 제안에 동의하는 그는 남성 개인이 경험하는 차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남성은 수혜자이고 여성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에서 있어서 여성이 “당사자”로서 “발언의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례3은 여자만 페미니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도, 동의하지 않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여성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우선”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성별싸움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례3은 여성학 수업을 듣고 사회 구조가 문제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와 가해자 남성에 대한 비판이 자주 오고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수역 사건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자신의 생각을 “남자 챙기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전하지 못한 경험을 말해준 사례3은 친구들이 남자를 믿지 않고, 여성의 피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여성대상폭력을 듣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또래의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을 지나치게 배척하고 ‘혐오’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다. 남성들과 함께 살며 세상을 바꿔나가야 하는 이상 설득하고 소통하는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례8은 남성들도 “사회의 틀 안에서 남성성이란 것도 강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신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한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는 남학생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고쳐주려고 해야 되는데 “남자는 쓰레기야”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남혐”을 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개네가 그 남성혐오 그거에 단체로 너무 미쳐서 약간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막.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이 다 같이 뭔가 홀린 것처럼 거기에만 너무 맹목적으로 약간 미쳐가지고 (중략) 저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막 남자애들도 이해를 못하고 막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그러지. 물론 좋은 말로 해도 뭐 이해를 할까는 미지

수진 한테 어쨌든 싸우는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잘 먹히겠죠. 그래서 굳이 저렇게까지, 이해도 못하는데 서로, 피터지게 싸우면서 감정소모를 하고 싶을까? 싶기도 하고. (중략) 어차피 지구에는 남자와 여자의 두 개 성이 있고, 보기 싫어도 그냥 눈만 떠도 엄마아빠가 집에 같이 있는데 어쨌든 같이 부대끼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중략) 다들 뭐가 으, 싫어. 더러워. 죽어라. 이렇게만 하지.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라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영원히 발전이 없을 텐데. (사례9)

자신의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성애 연애를 하거나 화장 등 꾸미는데 신경을 쓰는 친구들을 대놓고 비난하고 배제한다는 여대를 다니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사이비종교” 같이 “남성혐오”로 “변질”된 페미니즘 때문에 남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난다는 사례9는 좋은 말로 하면 남자들도 이해할지는 미지수지만 싸우는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잘 먹힐 것이라고 말한다. 사례9는 자신도 지금까지는 자신이 여성대상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만 했지 특권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봤었는데 수업시간에 “특권사다리 동영상”을 본 뒤로 자신이 사소한 부분에서 많이 누리고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면서 “한쪽 성별에 치우친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근데 저는 남자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남자도 사는 세상인데 우리끼리만 페미니즘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게 일어나지? 결국엔 남자도 같이 사는 세상인데 개네랑 같이 얘기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남자가 보이면 바로 욕을 하거든요. (중략) 대화의 장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세미나에서 신입 남자 학생들이 들어왔었어요. 그 친구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의 생각도 많이 듣게 되고 저도 나름대로 개네한테 편견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냥 자꾸 이런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사례14)

여대의 “남자 지우기”에 자꾸 눈이 간다는 사례14는 남성을 배제하고 하는 페미니즘 운동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동덕여대 사건¹⁷⁾을 접한

17) 2018년 10월 6일 한 남성이 동덕여대의 빈 강의실에서 노출하고 찍은 본인의 사진과 자위 영상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이를 파악한 재학생들이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남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게시했다. 당시 총학생회는 총

자신의 학교 학생들은 남자가 학교에 들어와서 “물카 설치하면 어떡하냐”면서 남자가 학내에 보이기만 하면 바로 욕을 한다. 페미니즘 세미나에서 남성들과 소통한 경험이 긍정적이었던 그는 “남자들 지우고 우리끼리만 논의하면” 변화를 이뤄낼 수 없으니, 이런 “대화의 장”이 많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오히려 예전에는 너무 진짜 콧방귀를 쏘어요. 모두를 위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 모두 당연한, 당연하지만 너무 말이 우습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네. 근데 올 해를 보내면서는 아 진짜로 아 이게 말로 표현이 어려워지는 지점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됐다고 해야 되나? (중략) 근데 여행을 가니까 어 너무 답이 없어요. 근데 내일도 봐요, 모레도 봐요, 같이 밥도 해먹고, 이 사람 너무 개차반 같은 말을 할 수 있죠.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근데 보고 싶지 않아도 이 사람의 반짝 거리는 순간도 보니까. 이 사람의 진심 있는 순간도 보니까. (사례7)

사례7은 “n개의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있듯이 각자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다양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과 같은 말을 들으면 “콧방귀를 쏘았다고 한다. 그러다 대안학교의 교사를 하면서 “그런 말들이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학생들과 다른 교사들과 함께 장기 교육 여행을 떠났던 사례7은 “개차반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매일 봐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자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내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례7과 사례14처럼 남성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과 다르게 남성과의 소통 경험이 부정적이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남성이 변화할 것이라는 신뢰가 별로 없다. 여성과 남성 집단의 의식 변화 속도가 너무 다르다는 점은 변화에 대한 기대나 전망을 가지기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장의 사과와 외부인 출입규정 신설, 건물에 카드리더기 설치, 경비인력의 상시 배치, 학내 책걸상 교체를 요구하였다. (참고: “여대서 성추행, 음란행위... 지금 여대는 ‘남자주의보’”, 『아시아경제』, 2018.10.15.)

왜냐면 진짜 너무 너무 남성중심사회고 (중략) 막 지금 너무 여성중심사회다. 너무 여성이 너무 여성을 편애해주고 너네는 더러운 건 하기 싫고 지들 좋은 것만 권리 얻으려고 하나 (중략) 너무 지겹잖아요. 다 남성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기들이 쌓아 올라 온 건데. 그거를 저희가 하지 말자 이라는데. 아니, 너네는 왜 안 하나 이라는 거예요. 지들이 만들어놔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깰려고 하면 또 넘보지 말라 그리고 이런 느낌이니 까. 여자가 군대 가서 뭘 하겠냐 충이나 들겠냐 이런 말도 하고, 군대 보내놓으면 저는 진짜 만약에 둘 다 가야 된다고 치면 만약에 둘 다 가야 되고 군데 권리는 똑같아져요. 임금 차별도 없어지고, 그럼 저라도 가요, 그리고 막 임신, 출산도 거의 육아휴직도 동등하게 써서 남자도 엄청 잘 도와주고 그런다면 저도 군대 2년 갈 것 같거든요. 군데 그거를 진짜 군대 2년에 유세를 엄청 떨고 임금차별이 엄청 심하고 (사례8)

자신이 “남혐으로 갈까봐” 걱정하던 사례8도 남자들이 매번 군대 얘기를 꺼내면서 “여성중심사회다”, 여성은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고 권리만 얻으려 한다는 식의 비난을 하는 것을 접하면서 사회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남성들이 “남성중심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군건함”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례12는 “여자들만 바뀌고 남자들은 그대로” 거 같아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강한 표현으로 “남성혐오”를 비판하던 사례9도 “깨닫는 여자들이”만 많아지고 “여자들이 인식만 바”뀌어 가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남자들에게 말하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하는 “신생아 키우는 느낌”이라고 한다.

저는 그 때 처음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남성의 말을 신뢰를 한다는 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느껴버린 거예요. 진짜 나랑 똑같은 말했고 심지어 애가 진짜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군데 내가 했을 때는 막 조금 논리적이지 않으시다, 성급하시다. 이랬는데 애가 말을 하면 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중략) 이런 감정적인 지친 거를 너무 피할라고 하다보니까 주변인도 그렇게 다 끌어내고, 수업에서 그냥 입을 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워마드가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된다니깐요. 왜냐면 친절하게 몇십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조곤조곤 얘기해주면 뭐해요. 듣지도 않는데, (중략) 저는 워마드에서 하는 방식이나, 거칠게 막 말하고, 이런 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략) 그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는 편안함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나

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남자들을 바꾸지, 그니까 남자라기보다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모두 당연히 우리가 더 좋은 사회로 나아 갈려면 그 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교화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쥬. 그리고 그게 뭐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데에.. 쫓,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페미 잘못된도 아닌 건데 (중략) 수십, 수백 년 간 얘기를 하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할 게 아니라 그들한테 왜 듣지 않냐고 하는 게 더 저는 편하거든요? 속에 맞거든요? (사례5)

사례5는 여성단체의 세미나에서 만난 중년의 신입회원이 싸우지 말고 남자들과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다양한 페미니즘,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한다. 사례5는 그 신입회원에게는 페미니즘이 남녀싸움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만 하면 해답이 나올 것 같이 생각된다는 점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즘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사례5는 수업시간에 한 경험을 통해 남성들이 여성의 말은 무시하고 남성의 말만 신뢰한다는 걸 절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소모를 피하다보니 인간관계도 끊어내고 수업 시간에 입을 닫게 된다는 그는 ‘위마드’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말로 “교화”하려고 노력했던 여성들에게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을 바꾸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게 아니라 남성들에게 “왜 듣지 않냐”고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남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남성들이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하고, 여성들이 하는 경험을 잘 모르는 걸 넘어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사례3은 페미니즘보다 ‘이퀄리즘’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남자친구와도 싸운 경험이 있다. 이렇게 페미니즘 이슈를 두고 논쟁할 때 자신이 “여자를 대표”해서 말한다는 느낌이 들고, 사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을 때 남자 친구의 주장이 정당화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남성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변화가 어렵고 더디다는 걸 의식하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목소리에 더 주목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더 들리게 하는 것이 페미니즘이 지향해야 할 주된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변화와 설득에 회의적인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들만의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변화를 위한 소통과 설득에 지친 이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것은 이 설득과 소통이라는 노동의 책임을 개별 페미니스트들에게 지우기보다 페미니즘 교육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에 페미니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중고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여성’ 범주를 둘러싼 논란과 페미니즘 ‘진영’ 구분

최근 디지털 공간에서 전개되는 페미니즘 담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디지털 공간의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을 생물학적 범주로 제한하고 ‘여성 우선’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젠더 이분법과 다른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강화하고 재생산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나영, 2017; 이현재, 2017; 고병진, 2018; 권김현영 외, 2018; 김보명, 2018a; 이효민, 2019). 고병진(2018)은 지속적으로 연대거부의 담론이 생산되고 있는 “위마드의 사상”이 온오프라인에서 TERF가 늘어나는 상황에 관여하고 있으며, “메갈리아 세대” 중 “일부”가 TERF가 되는 과정 속에서 최근의 페미니즘 운동이 “쓰까페미”¹⁸⁾와 “연대를 거부하는 여성들”이라는 “진영들”로 “양분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과연 교차성 페미니즘 혹은 분리주의 페미니즘이 디지털 공간의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을 추동하는 대표적인 페미니즘으로 자리 잡은 걸까?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해화역 시위로 보다 가시화된 논란인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런 주장이 다른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연대의 정치를 거부한다는 비판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었다. 그런데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와 연대라는 문제에서 퀴어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견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생물학적 여성만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연구 참여자는 없었다. 해화역 시위에서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참여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퀴어 및 트랜스 배제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례¹¹⁾는 해화역 시위에 유일하게 참여해본 연구 참여자다.

18) ‘쓰까’는 한테 넣어 합친다는 의미의 ‘섞다’라는 말의 경상도 사투리이다. 페미니즘 운동에 남성, 퀴어, 트랜스젠더, 장애, 난민 등 다른 인권 운동의 의제를 섞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트랜스젠더도 참여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략) 저는 트랜스젠더가 배제됐다는 것도 동의하고 근데 그 시위에는 그 워딩이 왜 필요 했는가 그 맥락에도 동의하는데, 그래서 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되요, 요즘 제일 큰 고민이에요. (사례11)

사례11은 여성만 참가한 해화시위에서 “해방감”을 느꼈지만 “자이루” 등의 “혐오적인 워딩”이 당황스럽고 불편해서 그 다음부터는 가지 않았다.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기준이 “옳거나 단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남성으로 패싱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는 순간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다른 여성에게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있는 게 낫다고 말한다.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조롱과 비난을 하는 남성들의 폭력이 2015년 이후의 거리 시위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사례11은 ‘생물학적 여성만’이라는 조건이 이런 현실 속에서 시위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자신이 이 문제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아직 고민이 된다.

퀴어 및 트랜스 배제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사안은 SNS에서 일종의 밈(meme)이 되어 유통되는 남성 성소수자와 트랜스 젠더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논리이다. 사례3과 사례8은 디지털 공간에서 남성 성소수자 집단 내의 여성 혐오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트랜스젠더의 여성성 수행이 여성의 이미지를 고착화하거나 여성성을 희화화한다는 논리를 보고 이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 사례3은 “게이나 성전환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 같은데 “게이들이 여성 혐오가 엄청 심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역시 그들도 “남성으로서 우리를 혐오”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는 “게이 말고 성전환한 사람들”이 좀 더 의문이 드는데, 그들의 “꾸밈”이 “여성을 희화화하는 느낌”이고, 자기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꾸미는 것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페미니즘’이 해체하려고 하는 여성성을 더 “단단하게” 하고 “여성의 이미지를 고착화”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이런 정보는 SNS 계정에서 봤으며, 직접 만나본 트랜스젠더는 없고 영화를 통해 본 적 밖에 없다. 사실 온라인에서 이런 정보를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에 그치지 깊게 고민해보거나 하지는 않았다.

트랜스 뭐뭐. 이거는 너무 트랜스 젠더 조롱같은 거예요. 어쨌든 많은 성들이 있는데, 많잖아요. 나는 무성애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가볍게 소비하고 트랜

스 뭐뭐 해서. 내가 고슴도치 같다고 생각하면 내가 고슴도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례8)

사례8은 “동성애는 찬성”한다고 하면서 그것보다 MTF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인하는 경로가 이상하다고 말한다. 핑크를 좋아하거나 귀여운 걸 좋아하는 등 소위 말하는 ‘여성적’ 취향을 통해 자신의 여성됨을 느끼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성전환 수술을 통해 가슴을 키우고 이런 “인위적이고 과장 된” 것만 보고 접하다보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던 그도 SNS에서 관련 정보를 접했고, 영화를 통해 어떤 전형을 본 것이 전부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트랜스워밍” 하면서 “트랜스 젠더를 조롱”하고 “많은 성들”을 “가볍게 소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례8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서 찾아본 적은 없고, “예민한 주제”라 자신이 “말을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혐오하는 건 쉽지만 변호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례12도 MTF의 “여성성 수행이 여성인권을 후퇴 시킨다”는 논리를 SNS에서 봤다고 한다. 그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처럼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취해야 할 “스탠스”가 고민이 된다. 사례14도 학교 커뮤니티에 “트랜스 젠더와 남자 동성애자가 페미니즘의 인권을 떨어뜨린다.”는 식의 주장이 자주 올라와서 불편하다고 말하며, “남자 게이는 남자니까 빠고, 트랜스 젠더가 진짜 여자일까?”라는 식의 주장은 트랜스젠더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사건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더욱 정당화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사례3과 사례8이 일부 공감한 ‘트랜스젠더가 여성성을 과잉 수행함으로써 여성이 겪는 여성성으로 인한 억압을 강화 한다’는 식의 주장은 트위터, 여초카페, 에타 등에서 반복해서 게시되고 공유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젠더정체성의 구성과 수행에 따르는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화와 같은 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어떤 전형 이외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의 다양한 삶의 맥락과 차이는 삭제된 채 트랜스젠더는 “여성인권을 떨어뜨린”다는 논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을 ‘여성’과 페미니즘 운동을 위협하는 존재로 만들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여성 우선’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이 트랜스 젠더를 적극적으로

타자화하는 것을 통해 본질주의적인 '여성' 범주를 구성하고 피해자 정체성 정치에 천착하고 있다는 논의가 계속 되어왔다(고병진, 2018; 이효민, 2019). 그렇지만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논란이 트랜스 젠더 배제와 혐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본질주의적 여성 정체성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앞서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와 의제 설정에 있어 '여성만'은 아니지만 '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례3과 사례11도 이 '여성' 범주를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해부학적 특성에 터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모두 이 논쟁과 논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로 내가 취할 "태도"나 "입장" 혹은 "대응할 논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랜스젠더들의 인터뷰와 관련 기사 등을 찾아보기도 한 사례 12는 아직 저 논리에 대응할 "모범답안"을 찾지는 못했다.

정승화(2018)는 이와 관련한 최근의 담론 지형이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 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내세우는 급진 페미니즘 대 정치적으로 올바른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프레임"으로 페미니즘을 구분하며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식의 구도와 재현은 개별 페미니스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 당사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래디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례11은 "페미니스트이자 퀴어로서"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가 요즘 제일 고민이다. 사례11은 최근의 페미니즘 담론장을 "교차성과 래디컬로 나뉘"고, "퀴어 페미니즘과 래디컬과 싸우"는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에게 구조적 성차별에 문제제기하기 위해 집단으로서 '여성' 범주를 구성하는 것과 교차성 논의가 "충돌"하며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면서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3) 하나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즘들

사례11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즘 담론장을 진영 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의 의견과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분열", "갈등", "파벌", "내분", "편 가르기" 등으로 인식하면서 이것이 운동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소강"시키고 "동지"를 잃는 일이라고 우려한다. 이렇게 페미니즘 의제에 있어 의견이 달라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상황을 분열이나 갈등으로 인식하는 것은 욕설을 포함하여 비난과 조롱이 오

가는 ‘강렬한 말하기 방식’(한우리, 2017)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여러 논쟁을 거치면서 ‘쓰까’나 ‘랜팸’ 등과 같은 진영 구도가 굳어져버리고, 이런 극화된 갈등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저도 좀 이렇게 기여도 하고 싶고 이런 건데. 처음에는 그래도 사상만 같으면 다 페미니즘에 관심 있고 요즘 관심 없는 여자들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면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었는데 (중략)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너무 나누고 막 파벌 그런 거 같잖아요. (중략)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안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해야 좀 바뀔 만한 건데. 여기에서 내분 이런 것도 일어나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한 마음일 텐데 다들. (한 마음일까?) 잘 모르겠어요(웃음).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다들 인권이 올라가는 거는 찬성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면서. (사례8)

사례4는 자신이 속한 학내 페미니즘 모임에서 “터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확인하고 놀랐지만, “싸우자니 그것도 분열”이고 해서 그 주제를 빗겨가는 식으로 마무리했다. 사례1은 나와 다른 입장의 논리도 청취하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비하하는 말 등이 오가는 것은 “동지”를 잃는 일이라고 말한다. 사례6은 친구와 탈코르셋에 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탈코르셋 논쟁이 “여자들끼리 편 갈라 싸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두고 “여자들 간의 갈등으로 묘사”해서 짜증났다고 한다. 사례8은 최근 ‘쓰까’나 ‘랜팸’ 같이 “파벌”을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한다. “그래도 한 마음일 텐데” “내분”으로 변화의 동력이 상실될까 우려한다. 사례11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발생한 터프 논쟁을 보고, “여성의 서로를 향한 비판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 페미니즘이 “굉장히 갈래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남성 중심적인 기득권 구조의 불평등을 비판”하는 것을 공통의 전제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페미니즘 운동에 적용되는 “다양한 잣대들”이 페미니즘 운동을 “소강”시킬 거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하나가 아니다. 연구 참여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페미니즘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심하게 대립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이들은 힘 있는 여성 연대의 토대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페미니즘 내부의 차이를 애써 외면하고 공통성을 회구하는 태도를 구성한다. 퍼거슨이 ‘페미니즘의 순수성에 대한 열망’이라 부르는 이 합의된 페미니즘에 열망은 의견이 다를지라도

논쟁과 토론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공상적인 합의는 운동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페미니스트들이 하나의 진짜 올바른 페미니즘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페미니스트들이 논쟁과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페미니즘들은 언제나 경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Ferguson, 2017).

많은 수의 여성들이 여성혐오와 성차별에 맞서 거대한 페미니즘 물결을 만들어낸 지난 몇 년 간의 경험에서 페미니스트로 '각성'하고, 힘 있는 여성연대에 고양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만들어왔다.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역차별을 주장하는 안티페미니즘은 '한국의 페미니즘'은 '변질된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의 고정된 '올바른 페미니즘'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페미니즘을 물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안티페미니즘의 안티테제로서 자신의 페미니즘을 구성해가는 개별 페미니스트 주체들도 이런 식의 물화된 인식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하나의 페미니즘은 없고 페미니즘들만이 있을 뿐이다(Ferguson, 2017). 사라 아메드는 페미니즘은 DIY, 즉 스스로 조립하는 형태라고 말한다(Ahmed, 2017:59). 다양한 페미니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많은 페미니즘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각들을 한데 묶는 과정(Ahmed, 2017:66) 속에서 각자의 판본으로 페미니즘을 구성해나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페미니즘'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페미니즘 담론장을 더 풍부하고 활발하게 만들고 지속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페미니스트 실천과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의 의미

20대 여성 페미니스트인 연구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 의제는 성폭력, 불법촬영, 성매매, 낙태죄, 외모 꾸미기, 탈코르셋, 비혼, 임금격차, 채용차별, 핑크 택스(Pink Tax), 쿼어,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 등 굉장히 다양했다. 이들의 관심 의제에 따라 행하는 페미니스트 실천들도 달라진다. 미투 운동이나 낙태죄 폐지 등 시위에 참가하기도 하고, 탈코르셋을 실천하기도 한다. 4B운동(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의 주장에 공감하기 때문에 비혼과 비출산을 다짐하기도 하고 SNS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 페미니즘 관련 글을 쓰는 이들도 있다. 청와대 청원에 동참하거나 불매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성 단체에 후원을 하기도 한다. 카드뉴스를 만

들어 배포하기도 하며, 독서, 세미나, 강연, 강의를 통해 페미니즘 공부를 하기도 한다. 어떤 단어가 여성혐오적이라고 지적되면 그 단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일상 속 실천으로 꼽기도 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페미니즘 모임을 만들어 공부하거나 문화제를 기획하거나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에 연대하는 등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위의 실천들을 대부분 다 하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취사선택하기도 하면서 각자 자기만의 페미니스트 실천들을 해나가고 있다.

(1) 디지털 공간이 매개하는 실천들과 규범이 된 페미니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공간의 문법에 익숙할 뿐더러 이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공간에서는 다양한 페미니즘 실천들이 펼쳐지고 있다. 유머, 패러디라는 놀이를 통해 디지털 공간의 여성혐오를 조롱하고 전유하는 ‘메갈’의 방식이 통쾌함과 재미를 주면서 여성 유저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었고, 미러링은 이제 하나의 디지털 문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외에도 디지털 공간의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한 게시글에 좌표를 찍고 화력 지원을 가서 댓글을 선점하거나, 후원 액수와 청와대 청원의 동의, 리트윗, 마음, 좋아요 수를 통해 여론을 형성 하는가 하면, ‘여성혐오적’인 유명인사 혹은 기업의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불매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순식간에 많은 수를 동원해 내는 속도전과 동원전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페미니즘은 소비하고 여성혐오는 불매하는 방식의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동원하고 발휘하는 실천들 이외에도 여성에게 강요되는 미와 그 기준, 소비자본주의와 연계된 외모관리문화를 비판하는 탈코르셋 운동 등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일상 속에서도 디지털 공간이 생성해내는 쟁점들과 실천들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디지털 공간 자체가 삶의 조건이자 기반(손희정, 2017)인 사람들로 이들에게 온오프라인은 배타적이고 단절적으로 구분되는 공간이 아니라 상호 매개적(조혜영, 2016)으로 작동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매우 친숙한 이들은 생산된 메시지를 확대·재생산하는데 익숙하고 재생산된 생산물들을 그들의 일상생활로 통합시키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장민지, 2016). 이들의 이런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됐던 것이 메르스

갤러리에서 펼쳐진 미러링 실천이었다. 사례12는 여성혐오를 전유하여 여성혐오에 대항한 메갈리아와 미러링 실천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가담한 유일한 연구 참가자다.

남자는 조신해야 된다. 남자는 집에서 설거지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도 없었고 그게 재밌다고도 생각 안 했는데. 이게 그런, 좀 통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오는 재미가 커서. 페미니스트가 된 큰 계기라고 해야 할까요? (중략) 그게 제일 컸던 게. 뭐가 제일 컸냐면 된장녀나 김치녀라는 단어가 미러링 돼가지고 한남이라는 단어로 미러링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거를 욕할 수 있는 단어가 생겼다는 게 되게 편하다고 해야 되나? (사례12)

사례12에게 미러링은 하위문화적 놀이였는데, 디씨인사이드에서 시작되어 유통되는 “어그로¹⁹⁾”성 유머들을 전유하면서 되돌려줬던 메르스 갤러리의 미러링 놀이가 “통쾌”함으로 오는 재미가 컸다. 사례12에 따르면 페미니즘 담론이 예전에 운동권들이 펼치던 “숭고한 이데올로기”에 따른 실천과 다르게 유머로 소비되었기 때문에 파급력도 컸지만 당시 젊은이들에게 “놀이나 패션인 측면”이 있어 “진지한 담론이 나오기 어려운 토양”이 되기도 한다. ‘한남’이나 ‘재기해²⁰⁾’ 같은 ‘메갈’ 언어들이 유행어처럼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는 현실에서 ‘너 메갈이지?’는 “요즘 애들은 다 메갈인 거 알지?”로 되받아칠 수 있는 질문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라는 말보다 “메갈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례5는 ‘메갈’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똥똥하고 남자한테 사랑 못 받아서 불편한 소리 하는 여자들”이라는 페미니스트 전형에 대한 낙인을 전유하면서 가지고 노는 것이 외려 자신의 페미니스트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그가 “친하지 못”하는 페미니스트 스타일이 바로 “엄숙 페미”인데, 그가 설명하는 “엄숙 페미”들의 특징은 어떤 단어의 어원이 ‘여성혐오’적 의미에서 비롯됐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폐기하거나 대체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19) 어그로(aggro)는 영어의 ‘aggressive’에서 유래한 말로 상대를 도발해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20) 구 대한민국 남성연대의 대표였던 고(故) 성재기씨가 2013년 후원금 모금을 위한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한강 투신을 예고한 뒤 “남자도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한강에 투신, 사망한 한 사건을 본따 사용하게 된 말로 ‘재기’는 자살을, ‘재기해’는 ‘자살해’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쓰이고 있다.

‘매갈’의 미러링 실천이 남성들과 남성문화에 대한 조롱과 유머로 가득한 놀이의 측면이 강했다면, 의식화된 여성 유저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 이제 페미니즘을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 또한 요청하고 있다. 안티 페미니즘과의 경합 속에서 ‘페미니즘이 옳다’고 선택한 페미니스트들은 뿌리 깊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개별 여성들 또한 성차별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디지털 문화와 일상,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페미니스트 개인이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요청되는 다양한 종류의 실천들로 나타났다. 그 실천들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과 토론이 벌어졌고, 거친 비난과 단절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규범적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경향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한. 일단 말로 하는 건데. 외모에 대해서 좀 말을 지양할라고 하기도 하고. 최대한 누군가가, 혐오표현을 덜 할라 해요. 그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애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태어난 건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도 최대한 안 할라고는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동기들이랑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말 많이 조심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화장품 같은 것도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아예 안 사거든요. 있던 걸로만 하고 필요한 것만 사고 옷도 옛날에는 엄청 꾸미는 거 좋아했는데. 그냥 옷 살 돈도 없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러는 거 같아요. (사례14)

사례5가 말한 “엄숙페미”들에 의해 종종 지적을 당하는 사례14는 자신이 “반페미니즘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친구들이 하나씩 고쳐준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지치게 되는 그는 “내가 아는 모든 단어가 다 여혐인건가?” 라고 생각이 든다. 그에게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실천이 있냐고 물었을 때 나온 대답은 지양의 목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례14는 친구들이 말하는 “반페미니즘적”인 것에 의구심이 들어도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대신 지적된 문제적 발언이나 행동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발화자의 맥락과 구조를 무시한 채 “뽕은 말”이라고 정해놓고 도덕적으로 문제시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언어들을 이미 상식적 규범이 된 것처럼 전제하고,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토론과 논쟁이 불가능하게 만든다(최성용, 2019). 페미니즘이 디지털 공간의 속도전 속에서 ‘토론없음’으로 경험되는 ‘도덕의 레

토릭'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주희, 2016). 페미니즘을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다양한 판본들로 이해하기보다 이념형의 올바른 페미니즘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자격'에 대한 심문을 낳기도 한다. “조금만 빼끗하면 갑자기 페미니스트가 아니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사례14는 페미니즘을 지켜야할 규범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를 어겼을 때 마치 페미니스트 자격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아마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그래?’ 라는 질문을 받/하거나, ‘이런 내가 페미니스트가 맞나?’라는 의구심을 가져본 페미니스트들이 많을 것이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도 페미니스트 ‘자격’을 두고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탈코르셋 운동의 실천 여부를 두고 페미니스트 ‘자격’을 질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 탈코르셋 운동이 활발한 쟁점이 되면서 주요 페미니스트 실천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천 여부를 두고 격한 논쟁이 오간 영향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SNS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문법, 논리 등을 체화하여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비난을 현실의 압력으로 느끼기도 한다. 페미니즘 담론이 가장 활발히 유통되는 플랫폼인 트위터는 페이스북과 달리 익명의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며, 커뮤니티와 다르게 공지나 규칙이 없어 조리돌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으로, 이슈가 등장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입장이 나뉘고, 의견이 다른 이에게 다소 공격적인 분위기가 펼쳐진다(한우리, 2017). 탈코르셋에 동의하거나 실천하는 연구 참여자, 탈코르셋이 강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트위터 등 디지털 공간에서 탈코르셋 담론을 접하고 있다.

(2) 탈코르셋 운동과 페미니스트 ‘자격’

각자 그 이유와 방식은 달랐지만 총 5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탈코르셋을 하고 있었고, 그 중 3명은 탈코르셋을 실천하지 않는 동료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안타까움 혹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 두 명의 연구 참여자는 탈코르셋을 실천하고 싶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사례4는 최근 디지털 공간에서 탈코르셋을 비롯한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등 “인권 의제들”이 다 “선악으로 나뉘는 느낌”을 받는다.

그 친구가 이제 탈코 얘기를 많이 올리는데, 보면서 약간 드는 생각이 이 인권 관련된 모든 의제들이 다 좀 선악으로 나뉘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저 자신도 그런 실수라고 할까? 그런 우를 많이 범하는데 이제 이 의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사람들인데 이거를 반대하고 휘방 놓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탈코 이제 흐름들을 보면 항상 그래서 이래서 여자애들 유아용 뭐 화장품을 파는 그런 업체들은 다 나쁜데. 그러니까 다 불매해야하고, 여자애들한테 뭔가 화장하는 여자애들은 왜 이 의제에 동참하지 않냐 너네는 흥자다 이런 얘기들. (그게 일상에서도 있어요? SNS 말고?) 근데 SNS 상인거 같기는 해요. 그 말이 SNS에만 머무르는 거긴 한데 (사례4)

자기 과 무리가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머리 짧게 자르고 화장도 안 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남자친구도 있고 머리로 길고 화장하고 다니니까 애들이 전부 다 너 페미 맞냐고 너 페미니즘 하는 것 맞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검열하는 게 있어서 자기 너무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마치 페미니스트가 되는 게) 어려운, 단계가 있는 것 마냥.(사례14)

이런 식의 비난이 SNS상에서만 나타나기는 한다는 사례4의 경험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검열과 비난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다고 전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다. 사례9와 사례14는 여대에 다니는 친구가 경험한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이들의 친구들은 남자친구를 사귀고 화장을 한다는 이유로 “너 페미맞냐”, “페미니즘 하는 것 맞냐”는 질문을 받았다. 마치 페미니스트가 되는 게 “어려운 단계가 있는 것 마냥”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바로 외모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중략) 내가 막 하나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머리로 짧고 이렇게 다니면 더 쉽지 않을까? 나의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웬지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략) 나는 아직 화장하는 게 좋은데, 괜찮냐? 근데 또 나름 탈코르셋은 그런, 그 나름의 이렇게 역사가 있는 투쟁의 방식이니까. 근데 약간 인터넷은 서로 이렇게 막 많이 싸우잖아요. (중략) (한숨) 그때 인제 어쨌든 좀 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흔히 식발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례1)

아직 화장하는 게 좋은 사례1에게도 탈코르셋은 고민거리이다. 최근 SNS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탈코르셋 운동의 흐름 속에서 아직 화장하고 꾸미는 게 좋은 자신이 힘들다는 점이다. 탈코르셋을 하면 페미니스트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느낌”이 들고, 내가 하는 주장에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사례1은 탈코르셋의 노력이나 시도는 좋지만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사례8은 탈코르셋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괴리감”과 “현타²¹⁾”를 느낀다.

친구들이 다 페미니스트들이고, 또 그래서 저랑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그런걸 뭐 작게나마 후원을 한다든지 시위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뭔가 일을 할 때 저한테 계속 공유를 해주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와보니 만나보니 친구들이 다 화장은 하고 있고, 아 이거를 뭔가 또 이렇게 말하기가 점점 생각할수록 좀 애매하더라고요, 화장은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기가. 그게 단편적으로 사실 그런 게 아닌데, 화장을 하고 있어서 애는 탈코를 못했고 그래서 좀 페미니스트로서 좀 그게 모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전혀 없는 건데, 이걸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애매한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사례6)

말로는 페미니즘을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연애를 하는 그런 애들도 있고(웃음) (중략) 말로만 하고, 진짜 속된 말로 입페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로만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너네가 그런 짓을, 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쨌든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인식은 시켜줘야 되는 거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면, 꾸밈의 자유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사례8)

제 주변에는 이런 친구도 있는데, 페미니스트로서의 자기를 되게 좋아하고 이런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화장과 이성애중심적인 연애를 포기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음, 볼 때마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 친구가 둘 다 좋아할 수 있는지가 약간 의문이고, 그니까 말로는 아, 화장하면 안 되지, 연애는 되게 이성애 중심적이고 여성 착취적인 거 같아. 라고 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불편하고 억울할 때도 있고, (중략) 결국 하, 페미니즘이라는 게, 물론 그 친구도 페미니즘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는 약간 도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례11)

21)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이르는 말로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출처: 다음 어학사전)

페미니스트가 되니 “뭔가 가만히가 안 있어지는 느낌”이라는 사례6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현재는 탈코르셋을 실천하고 있다. 친구들의 “세팅된 모습”을 보고 혼란에 빠진 것은 페미니스트 친구들과 자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탈코르셋을 못했다고 페미니스트로서 모자라다고 할 수 없지만, 사회의 만연한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탈코르셋이라는 방법론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불변의 명제”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고 있는 그는 친구들과 토론했고, 가능하다면 설득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탈코르셋에 대한 반감의 분위기, 탈코르셋이 이른바 역코르셋이라는 비판적 인식을 감지했기 때문에 솔직한 토론을 할 수가 없다.

디지털 공간에서 펼쳐지는 각종 실천들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자 하는 사례8은 불매운동과 탈코르셋을 실천 중이다. 페미니즘 운동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8이 볼 때 “입페미”들에게는 개인이 실천하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필요하다. 페미니즘은 “여성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운동이자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례11은 주변의 “패션페미” 친구를 보며 “불편”하고 “억울”하고 “박탈감”이 들기도 한다. 사례11은 모든 페미니스트가 탈코르셋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탈코르셋에 동의하는 페미니스트라면,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본다. 나의 페미니즘은 “절실함”에 바탕을 둔 실천인데 친구의 페미니즘은 그저 자기표현의 “도구”인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그랬듯 사람마다 “속도”와 “과정”이 있고 “상황”이 있으니 탈코르셋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페미니스트 아니야”라는 말을 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지 않거나, “유보”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다른 페미니스트들이 탈코르셋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에 혼란이나 실망감을 느끼는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 각자 탈코르셋을 실천하는 이유와 실천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 사례6은 화장을 하는 친구들을 보며 페미니스트들 사이에도 변화를 위한 실천의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점에 내적 갈등을 겪고, ‘옳고 그름’, ‘상호인정과 비난’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때문에 차이를 토론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사례8은 저마다의 맥락이 있으니 탈코르셋 실천여부를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탈코르셋이 아니더라도 페미니스트라면 자신의 여건이 되

는 한 실천하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코르셋이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이들과 다르게 사례11은 개인적인 동기로 탈코르셋 실천을 하고 있지만, 말만 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친구가 페미니스트일 수 있는지 고민이 된다. 성적 대상화의 거부, 성별화된 외모관리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꾸밈 압력으로부터의 자기 해방 등 각자 다른 이유로, 다른 수준의 탈코르셋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에게 공통적인 점은 페미니스트라면 개인의 변화 혹은 사회의 변화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탈코르셋의 의의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탈코르셋을 지켜야 할 하나의 규범으로 이해하고 있고, 페미니스트 전형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페미니스트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중략) 한편으로는 그 유아인도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산이도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페미니스트인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도 평가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페미니스트, 너는 페미니스트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의 대답이 나는 누군가 나를 봤을 때 페미니스트라고 나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이제. 근데 내가 스스로 이제 내가 페미야라고 말해놓고 이렇게 한다면 스스로 아 지금 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기 검열이 있을 것 같아요. (사례5)

사례5는 페미니스트를 하나의 전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보기에 페미니스트가 아닌 연예인이나 대통령도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 타인에게 페미니스트냐고 질문하는 것과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페미니스트라고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페미니스트에 대한 평가가 내외부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라면 ~해야 한다/할 것이다'는 생각을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현실 공간과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의견을 마주하면서 균열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 또는 실천이 '페미니스트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자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페미니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페미니즘은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차이를 거점 삼아

논쟁해온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재규정되고 갱신되는 “여러 사상들과 현실의 여러 행동들로 구성된 다양하고 복수적인 조각들의 묶음”이기 때문이다(freedman, 2002).

‘여성’으로서 가지는 다층적이고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욕망들이 ‘페미니스트’로서 가지는 자의식과 충돌할 때 ‘진정성’이라는 기준이 작동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들의 고민과 분투는 개인마다 처한 맥락과 속도와 과정이 다르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닿고자 하는 종착지가 같지도 정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새삼 마주하고 있는 결과일 수 있다. 가장 올바른 페미니즘도, 가장 훌륭한 페미니스트 같은 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죄책감과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페미니스트 검증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페미니즘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페미니스트로 사는 길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페미니즘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이 서로 간의 개입(engagement)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스스로 자신의 페미니즘을 갱신해 가는 것이 홀로 페미니즘을 만들어 가는 일일 필요는 없다. 논쟁과 토론을 비난으로 인식하거나 회피하고, 페미니즘을 규범화하는 태도들을 성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탕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례8은 “트위터에서 페미니즘 배우지 말”라는 글을 트위터에서 봤다는 말을 전하며, 예전에는 돌아다니는 글과 정보들을 곧이곧대로 믿었지만, 최근에는 스스로 이런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고 말한다. 페미니즘 담론을 접하는 주요 통로가 디지털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담론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하나가 아닌 다양한 페미니즘을 만나고 있으며, 이에 나름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와 “입장”, “논란”을 마주하고 헷갈려 하면서, 논란에 대한 ‘정답’을 찾고,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자유롭지도 않다.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스트인가/아닌가보다 자신이 어떤 페미니스트가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의 문법과 현재적 지형이 가지는 영향력에서 거리 두고 상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가 필요하다. 세미나, 학회, 동아리, 소모임, 여성학 관련 수업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논쟁과 토론을 해도 단절되지 않는 관계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안전함’을 느끼며 자신의 태도와 생각, 여성주의 지식을 갱신하는 경험을 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페미니스트 실천의 의미

최근 페미니스트들은 광장에 결집해서 집합적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탈코르셋 운동과 4B운동(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 불매운동, 청원, 후원금 내기, 페미니즘 굿즈 구매 등 다양한 실천들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온오프를 넘나들며 페미니즘 관련 이슈들을 쟁점화 하는 것을 통해 일상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추동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도 이런 페미니즘 실천들에 각자의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다. 최근 페미니스트들의 실천 방식이 복잡한 문제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기보다 이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기보다 개인화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주희, 2016; 김보명, 2018b; 강예원, 2019). 페미니즘 운동이 법과 제도 개혁을 통한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례4와 사례13은 이런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영영페미 느낌은 그 개인을 일단 내보내고 생각하자 이 개인이 일단 문제고 이 개인에 대해서 나는 공론화를 해야 되고 이 개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나서 그 문화를 좀더 바꾸자 이런 느낌을 받는 게 트위터 특히 트위터나 이런데서 항상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의 그런 소위 얘기하는 뺨은 발언들이라던가 누군가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항상 문제제기가 나오고 그거와 함께 물론 전체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은 그 개개인에 대해서 근데 다 뭔가 액션을 취해야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례4)

인터뷰 당시 학내 페미니즘 모임에 참여하고 있던 사례4는 최근 영영페미 세대가 가지는 실천 방식의 특징이 개인화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진단하고 있다. 가령 한 개인의 문제적 행동이 있었을 때 최근의 세대는 이를 개인 차원에서 공론화한다면, 과거 선배들은 공동체의 문화로 이를 규정하고 좀 더 큰 의제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탈코르셋 운동을 평가할 때도 “몸”과 “일상 안에서의 액션”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제도 변화 같은 “넓은 의제”로 이어지기보다는 “과편화된 개인의 일상”에 머무르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탈코르셋 운동을 주도하는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이 이 운동에의 동참 여부를 두고 비난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문제가 “선악”의 문제로 나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탈코에 동참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탈코가 왜 지금 이렇게 대두되었는지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가 보기에 “전체적인 의제”는 사실 지난하고 지치는 과정이라면 탈코르셋 운동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효과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다. 법제도 변화가 개인의 일상적 실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례13은 광장을 나가는 것만이 “진짜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시적”인 숫자 중 하나가 되는 것에 “뜻깊음”을 느끼고 거리에서 “수적으로 대표되는 것”이 좀 더 빠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페미니즘이 개인 실천의 문제로 간주된 지 너무 오래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례13은 개인이 일상의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도 나름의 방식이지만 그게 너무 느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먼저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으면 더 빠르지 않겠냐는 것이다.

반면 사례14는 법제도가 바뀌어도 실행의 차원이 담보되지 않는 것도 많다고 말한다. 가족, 학교, 직장, 일상에서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개인들의 인식 전환이 없으면 변화가 회의적이라고 보는 그는 기성세대를 문제로 지목한다.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거기에 여성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른 여성들을 위해 영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사회 구조가 성차별적임을 인식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남성이나 사회가 단시일 내에 변화될 것이라는 신뢰가 거의 없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망과 전략을 밝히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대신 최근 페미니스트들이 사회 변화를 위해 집합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고양감과 연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이들의 신뢰와 희망은 여성들에게로 향한다.

하나의 신념이 생긴 거 같아요. 원래 그 전까지는 이렇다 할 신념이 없었는데 페미니즘 알면서 신념이 생기니까 방향성이 좀, 내가 진로를 선택하든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방향성이 좀 정해진 거 같아요. 페미니즘을 하면서 여기에 좀 반하는 행동을 덜 하게 되고 이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는 거 같아요. 좀 뭔가 아직은 좀 어렵긴 한데 선택할 때 약간 방어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래도 페미니즘을 하신 분들은 이해해주지 않을까(웃음) 이런 방어막? 편이 있는 거 같은. (중략)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이 좀 힘들면 좀 다른 일을 하거나 그것보다 나는 어쨌든 내 여성들을 좀 끌어올리고 싶으니까 여기서 좀 더 버티게 되는 힘이 되는 거 같아요. (사례14)

페미니즘을 알게 되고 신념이 생겼고, 그 신념을 통해 삶의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사례14는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내 여성들을 끌어올리고 싶으니까 좀 더 버티게 되는 힘이 되는 것 같다”는 것이다. 변화는 나와 여성들에게, 그리고 나와 여성들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즘은 자기 자신과 여성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실천으로 의미화 되고 있다.

사실 우리가 구조를 바꾸자. 라고 하면 언제든 절망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고 근데 적어도 남들은 이렇게 사회는 한참 멀었지만 적어도 나는 이걸로 인해서 나의 그런 억압들을 벗어 던지고 거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저한테 있었고 (중략) 일단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적어도 한 사람의 여성이라도 자기한테 느껴졌던 어떤 불합리한 그런 억압들이 이게 부당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용기를 얻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11)

탈코르셋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11은 사례4가 평가하듯 탈코르셋이 자신에게 성취가 바로 드러나서 좋다고 한다. 탈코르셋은 개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실천이지만, 페미니스트에 대한 적개심이 거리, 학교, 직장, 일상에서 횡행하는 사회에서 쉬운 실천은 아니다. 사례11은 탈코르셋을 한 자신의 외형이 어떻게 프레이밍 될지를 알면서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실천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페미니즘이 “여성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운동”이라고 말했다는 한 여성학자의 말에 감화 받았던 그는 이 실천이 자기 개인의 해방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사실 그 다음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변화가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구조 변화가 대체 어떻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다른 여성이라도 용기를 얻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자신 혹은 개인의 실천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이나 신뢰는 없냐는 질문에 주변에 친구들이 페미니즘 얘기를 하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나를 바꾸는 선택”은 사회적 위험 또는 모순이 개인의 문제이자 책임으로 전가되는 사회에서 나오는 개인의 대응전략 (박기남, 2012)이기도 하지만, 실천하는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나를 바꾸는 것은 다른 여성들을 향해 있기도 하다.

페미니즘을 접하고 뭐라도 “행동하는 사람”이 됐고, “주체의식”이 생겼다는 사례6은 탈코르셋 운동을 개인적인 해소도 있지만 여성해방인 동시에 디폴트가 되고자 하는 운동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가시화된 것과 다르게 사람들이 의외로 탈코르셋을 너무 하지 않고 있어서 실망했지만 “이렇게 살면서 보여주”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학원에서 강사 알바를 하는 사례8은 자신의 외모 가꾸기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탈코를 시도하고 있는 그는 불매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차별적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는 신뢰가 거의 없다고 말하는 그가 그럼에도 페미니즘 운동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아랫세대 여성들을 위해서다. 윗세대는 물론이고 자기 세대도 답이 없는 것 같다는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성 리더”가 더 많이 보여 지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다.

또 제가 그러고[꾸미고] 다니는 거 보면 또 어딘가의 고등학생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나 개인은 그런데서 오는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좀 뭐랄까 포기하는 게, 포기함으로써 그게 저는 좀 아랫세대에 줄 수 있고 주어야만 하는 뭐랄까 페미니스트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자세라고 해야 하나 생각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편이라서. (사례12)

시민의 눈으로 꾸준히 감시하기, 청원, 모금 등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사례12는 변화가능성을 믿어야 할 당위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비웃는 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외모관리가 자신에게 억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례12는 그럼에도 탈코르셋을 하고 있는데 ‘여성’으로써 가지는 욕망을 “포기”하고서라도 어른이자 ‘페미니스트’로서 아랫세대에게 다른 문화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탈코르셋을 하는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들이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외모관리문화의 ‘피해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생산하는데 연루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디지털 공간, 일상, 광장을 넘나들며 나름의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내가 하는 실천이 세상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페미니스트로서 자기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은 개인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자신에게만 몰두

해 개인화된 방식의 실천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 변화의 책임을 개별 여성의 몫으로 두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게 만들거나, 중국에는 개인을 비난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성차별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요한 페미니스트 실천으로 의미화 하는 것은 사회와 남성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성들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차별적 사회에 여성 개인이 연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의 변화가 사회에 전시되고, 주변의 여성들에게 보여 짐으로써 다른 여성들에게 변화와 해방의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자신의 페미니스트 실천이 다른 여성들에게 롤모델이자 자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5. 결론

이 논문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이 대중화된 현재 한국사회에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20대 여성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최근의 20대 페미니스트들을 ‘영영 페미니스트’, ‘메갈’, ‘래디컬 페미니스트’ 등으로 이름붙이면서 내적 동질성을 가진 어떤 단일한 실체로 고정화하는 인식에 문제제기하면서,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페미니스트가 되어가는 20대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되기 경험을 통해 이들에게 페미니즘이 어떤 의미인지를 탐색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즘은 자기 삶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언어로 채택되었다. 부정의에 맞설 수 있는 힘이자 연대로 의미화 되기도 하고, 일상 속 경험과 관계들을 재해석하는 틀로 작용하기도 한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불법촬영물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통해 이들은 자신이 언제든 젠더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자임을 자각했을 뿐 아니라 이슈가 된 사건들을 둘러싼 사회와 남성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으면서 집단으로서의 여성이라는 범주에 강력한 동일시를 경험했다.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를 ‘남성혐오’로 문제화하는 안티페미니즘이 디지털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페미니스트로서의 관계맺음과 실천에 제약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페미니즘이 대중화되고 페미니스트들이 수적으로 많아졌다는 감각은 페미니스트 연결감을 고양하고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토양이 되고 있다.

가족과 연애 관계는 페미니즘의 렌즈를 통해 재/해석되면서 성찰과 갈등, 협상과 투쟁의 주요 장이 된다. 가족 내 경험을 통해 가족을 사회의 지배적인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장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성별 노동 분업과 아버지의 가부장적 태도, 성별화된 규율과 통제로 드러나는 딸의 지위에 문제제기하며 페미니스트 딸로서 투쟁한다. 이성애 연애의 섹슈얼리티는 욕망이나 탐색의 영역이기보다는 위험이자 안전 관리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비롯해 젠더화된 역할 수행을 성찰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은 이성인 연인과 각개전투하면서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협상해나가고 있다.

20대 페미니스트인 연구 참여자들은 확고하고 완결된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여러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고민과 실천들을 통해 페미니스트가 되어 가는 존재들이다. 디지털 공간과 현실을 막론하고 안티페미니즘을 맞닥뜨리는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들 내부의 차이 또한 지속적으로 마주한다. 안티페미니즘은 '한국의 페미니즘'은 '변질된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의 고정된 '올바른 페미니즘'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페미니즘을 물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안티페미니즘의 안티테제로서 자신의 페미니즘을 구성해가는 개별 페미니스트 주체들도 이런 식의 물화된 인식에서 자유롭지 않다. 디지털 공간에서 페미니즘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심하게 대립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이들은 힘 있는 여성 연대의 토대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면서 페미니즘 내부의 차이를 애써 외면하고 공통성을 회구하는 태도를 구성하기도 한다.

디지털 공간의 페미니즘 담론들이 발휘하는 효과들 속에서 갈등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이에 대응할 논리와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과 부담이 개별 페미니스트 주체들에게 부과되기도 하고, 페미니즘을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념형의 페미니즘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죄책감을 보이거나 다른 페미니스트를 비난하는 등 페미니스트 '자격'에 대한 엄격한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혼란과 균열 속에서도 페미니즘이 사회와 젠더 관계를 변화시키는 변혁적 이론이자 실천이라고 믿는 연구 참여자들은 장을 막론하고 자신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각종 페미니스트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다양한 실천 중에서도 개인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의 실천은 무엇보다 다른 여성들을 향해 있다.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의 변화가 사회에 전시되고, 주변의 여성들에게 보여 짐으로써 다른 여성들에게 변화와 해방의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자신의 페미니스트 실천이 다른 여성들에게 롤모델이자 자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본 논문은 20대의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고정되고 완결된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여러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고민과 실천들을 통해 페미니스트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드러내고, 이들에게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범주화할 수 없는 차이들과 동시에 페미니스트 연대에 대한 열망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0대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페미니즘을 구성하고 갱신해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혼란과 곤경을 직시하면서 그것이 대부분 물화된 페미니즘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가장 올바른 페미니즘도, 가장 훌륭한 페미

니스트 같은 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죄책감과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페미니스트 검증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나의 페미니즘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페미니스트로 사는 길이라는 점이 되새겨질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페미니즘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이 서로 간의 개입(engagement)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논쟁과 토론을 비난으로 인식하거나 회피하고, 페미니즘을 규범화하는 태도들을 성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탕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스트인가/아닌가보다 자신이 어떤 페미니스트가 될 것인가를 열어두고 고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의 문법과 현재적 지형이 가지는 영향력에서 거리 두고 상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가 필요하다. 세미나, 학회, 동아리, 소모임, 여성학 관련 수업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논쟁과 토론을 해도 단절되지 않는 관계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안전함’을 느끼며 자신의 태도와 생각, 여성주의 지식을 갱신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소속감을 갖고 꾸준한 활동의 터가 되는 페미니스트 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정규 교육 안에서 페미니즘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젠더 연구 커리큘럼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한계로 표집의 편의성을 이유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여자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가 대학 위계와 서열이 강한 학벌주의 사회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이라는 연구 참여자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 이 집단을 특권화 하는 요소이다.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표집 시에 이를 고려하여 계층적 다양성, 대학 입학 전 성장 지역, 전공 등 나름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표집 하고자 했다. 오늘-여기 20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가 되어 가는 과정과 고투를 읽어내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본 논문을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하여 과도한 일반화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예원. (2019). 「디지털 시대 페미니즘 대중화와 십대 페미니스트 ‘되기(becoming)’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병진. (2018). 「연대 거부를 통한 ‘여성’ 경계의 확장: 메갈리아 분열 이후 위마드와 TERF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권김현영 외. (2018).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서울: 교양인.
- 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 이민경. (2017). 『대한민국 넷페미史』, 나무연필.
- 김경연. (2017). 「페미니즘의 귀환, 혹은 반란의 정치에 부처」. 『오늘의 문예비평』 104, 84-104.
- 김리나. (2017). 「온라인 액티비즘으로 재/구성되는 ‘여성’ 범주와 연대: ‘메갈리아’와 ‘위마드’의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명. (2018a).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 『한국여성학』 34(1), 1-31.
- . (2018b).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 사회』, 99-138.
-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 207-248.
- 김수아. (2018). 「젠더정치의 미디어 프레임, ‘그 페미니즘」. 『황해문화』 101, 18-34.
- 김주희. (2016). 「속도의 페미니즘과 관성의 정치」. 『문학과사회』 29(4), 19-34.
- . (2017). 「독학자들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지식문화의 현재성에 대한 소고: 신간 페미니즘 서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3, 351-379.
- 나영. (2017). 「모순과 혐오를 넘어 페미니즘 정치를 향하여」. 『황해문화』 97, 98-116.
- 류진희. (2015). 「기획 1: 한국 사회와 성: “쫓불 소녀”에서 “메갈리안”까지, 2000년대 여성 혐오와 인종화를 둘러싸고」. 『사이판 SAI』 19, 41-66.
- 문은미. (2016). 「여성운동에서 페미니즘의 자리 찾기」. 『내일을 여는 역사』 64, 53-64.
- 박기남. (2012). 「개인화 시대의 여성운동 방향 탐색: 한국여성민우회의 회원 인터뷰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2(1), 73-116.
- 박무너. (2016). 「혐오에 맞서는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젠더 담론」,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영민, 이나영 (2019). 「새로운 페미니스트 운동의 등장?: 불편한 용기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과 세계』, 135-191.

- 배상미. (2016). 「‘혐오’를 딛고 ‘승리’로 나아가는 여성들」. 『여/성이론』 35, 72-93.
- 배은경. (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페미니즘 연구』 9(2), 39-82.
- _____. (2019). 「한국사회의 젠더와 젠더갈등: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막힌 사회와 그 비상구들』. 아시아.
- 손희정. (2015).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83, 14-47.
- _____. (2016). 「젠더戰과 퓨리오-숙들의 탄생」. 『여/성이론』 34, 35-59.
- 양경언. (2016). 「거울을 비추며 웃고 떠드는 여성들」. 『여/성이론』 34, 16-34.
- 윤명희. (2013). 「소셜네트워크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의 복합적 수행」. 『페미니즘 연구』 13(1), 131-169.
- 윤보라. (2014). 「온라인 페미니즘」. 『여/성이론』 30, 166-180.
- _____. (2017). 「메갈리아의 ‘거울’이 비추는 몇 가지 질문들」. 『그럼에도 페미니즘』. 은행나무.
- 이경. (2007).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증후군」. 『여/성이론』 16, 325-334.
- 이근호. (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 양식」.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 이나영. (2016).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문화와 사회』 22, 147-186.
- 이다혜. (2012).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정체성 형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재. (2017). 「페미니즘 트리플: 도시 상상계와 편집증적 주체의 탄생」. 『여/성이론』 37, 102-126.
- 이효민. (2019). 「페미니즘 정치학의 급진적 재구성: 한국 ‘TERF’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미디어문화연구 전공 석사학위 논문.
- 장민지. (2016).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주체(Digital Native Fe/male Subject)의 운동 전략: 메갈리아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1(3), 219-255.
- 장혜경. (2010).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학지사.
- 정승화. (2018). 「급진 페미니즘을 퀴어혐오로부터 구해내기: 여성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의 연대를 위한 시론」. 『문화과학』 95, 50-73.
- 정승화, 이지원. (2018). 「급진 페미니즘의 비혼주의 운동과 탈이성애규범성의 정치학」. 2018 한국여성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정용림, 이나영 (2018). 「포스트/강남역」. 『페미니즘 연구』 18(1), 181-228.

- 조선정. (2014). 「포스트페미니즘과 그 불만:영미권 페미니즘 담론에 나타난 세대론과 역사쓰기」. 『한국여성학』 30(4), 47-76.
- 조혜영. (2015). 「낙인, 선언 그리고 반사」. 『문화과학』 83, 104-121.
- _____. (2016). 「상호매개적 페미니즘-메갈리아에서 강남역 10번 출구까지」. 『문학동네』 23, 1-12.
- 천정환. (2016).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메갈리아’논쟁까지: ‘페미니즘 붐기’와 한국 남성성의 위기」. 『역사비평』, 353-381.
- 추지현. (2019). 「페미니즘’들’: 변화, 위해, 소통의 경험들」. 『여성학논집』 36(1), 59-91.
- 최성용. (2019). 「정치적 올바름을 생각하다: 페미니즘이 ‘공용어’가 되기 위하여」. 『페미니즘 쟁표, 이분법 앞에서』. 들녘.
- 한우리. (2017). 「‘이생망’헬조선’여성청년들의 페미니스트 되기」. 『여/성이론』 37, 58-78.
- 허윤. (2016). 「‘딸바보’ 시대의 여성혐오」. 『대중서사연구』 22(4), 279-309.
- 황정미. (2017).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사회』 114, 17-51.
- Ahmed, Sara. (2017).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동녘.
- Freedman, Jane. (2002). 『페미니즘』. 이후.
- Ferguson, M. L. (2017). 「Trump is a feminist, and other cautionary tales for our neoliberal age」. 『Theory & Event』 20(1), 53-67.

Abstract

The meaning of 'feminism' for women in their 20's identifying as feminists

Oh, Hyej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feminism' for women in their 20's who identify themselves as feminists, specifically in terms of the journey on 'becoming a feminist.' This will inevitably challenge the widespread misunderstanding that feminism among young women is a single, fixed category with internal homogeneity encompassing diversities within the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order to hear the voices of these women and to explore their feminist practices both online and offline. Summary of what has been revealed in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research participants think recent social issues such as misogynist murder in Gangnam station and spycam crimes and their life experiences of gender discriminations served as a momentum to lead them becoming feminists. They become aware of their identity as a woman and identify women as a group. With the rise of feminism in digital space, they acquire the language of feminism and feminist consciousness, which enables them to (re)interpret their own life experiences and to give them empowerment and solidarity in consequence.

Also, in their everyday practices, they consider intimate relationships within the private sphere as the main field where self-reflections, conflicts,

negotiations, and struggles operate in complex ways. They problematize gender division of labor and gender role in the family struggling as a feminist-daughter. The contradictory status of and conflicting relation with mothers as victims and oppressors at the same time is another issue they encounter. While sexuality in heterosexual relationships is taken as a risk or safety issue rather than desire or exploration, these women also try to reflect their own desire and negotiate their feminist identities in gender dynamics of the relationships.

In these processes, they struggle to construct their own meaning of feminism under the reality of many different 'feminisms.' Since backlash or anti-feminism spread out, following a recurrence of feminist activism in present Korean society, interviewees feel a responsibility to stand for feminism and to seek strong solidarity among women. Even though they are aware of the existing differences within women and between every and each feminism and the importance of intersectionality, they show different responses or strategies. Some of them focus on commonality to secure women's solidarity after experiencing splits and conflicts among feminists as well as the threat of anti-feminism and misogyny. Some understand and internalize feminism as norms and require qualifications for being feminists. However,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diverse feminisms and need for engagements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shows women in their 20's who identify themselves as feminists at the current moment in South Korea are those who are becoming feminists in diverse considerations and practices within their private and social relations, rather than having stable and/or steady feminist identities. In spite of inner conflicts and confusions under many 'feminisms', they keep doing feminist practices, whether looking for structural change of the society or trying to make a change on personal levels hoping to be role models and resources for each other and for other women.

Keywords: feminisms, becoming a feminist, women in their 20's, women's solidarity, women as a category, feminist practice

Student Number: 2012-20190